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소요의 자만하고 확대된 원인을 상기한 세 가지에 있다 하려니와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묻지 아니하고 소요의 자만하고 확대됨에 따라 무고한 양민이 옥석구분으로 영어(囹圄)에 신음하는 자가 없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는 부득이하게 무력으로써 진압하여 수원사건³²⁴과 같은 실패를 연출한 것은 유감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바이다. 소요는 무력진압에 의하여 표면적으로는 진정되었으나 민심이 악화되어 배일(排日)의 기세가 날로 증장하여 병합 이후로 여름 밤 노상(路上)에서 무리를 이뤄 산보하던 옥의단극(浴衣短履)의 일본인과 닮이 없는 조선인의 형영(形影)은 전혀 소실되고 일어로 문답하는 행인도 볼 수 없게 되어 병합 후 십 년간 고심 노력해 온 위정자의 동화정책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학자와 정객은 조선 문제에 대하여 혹은 자치를 허락함이 옳다 함을 주장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독립에 찬성의 뜻을 보이는 자도 있으며 혹은 조선인의 배은(背恩)을 논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무단정치의 죄악을 평하는 자도 있어 여론이 귀일(歸一)치 못하고 각자 그 소견을 구구히 발표하여 신부동포(新附同胞)로 하여금 향배를 정함에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조선의 통치방침이 개혁되지 아니하고는 그치지 않을 형세가 되었으니 다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영원한 강복(康福)을 증진코자 한 병합의 대정신에 대치된 사변을 야기한 것이 어찌 한갓 제국의 불상사이리오. 동양 전국을 위하고 조선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고 호탄(浩歎)함을 능히 금치 못할 바로다.

이 불상사의 소요를 무력으로써 진압한 후에 당시 총독부 당국자가 취한 태도와 또는 조선인의 지식계급이라고 칭할 만한 인사가 취한 행동과 일반 민심이 품은 의구는 과연 어떠하였는지 이의 서술과 비평은 다음 호에 넘기고자 하노라. (이하 다음 호)

〈이상 (8)〉

〈출전 : 金丸, 朝鮮時局史觀(1, 2, 3, 5, 7, 8), 『時事評論』 4호(1922.8.15) 5호(9.15) 6호(11.15)
2권 2호(1923.3.15) 2권 4호(7.15) 2권 5호(9.15)〉

324)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 행위로 일본 군경이 수원군(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사는 민간인 20여 명을 학살하고 민가 30여 호를 불태운 사건을 말함.

8) 김환,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확립하자(1~3)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은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합병칙서(併合勅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 민중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강복(康福)을 증진하여 충량한 제국신민이 되게 하는 것에 있고, 이것이 즉 합병의 대정신이다. 따라서 제1대 총독 테라우치(寺內) 백작이 취한 동화정책은 이 합병의 대정신에 따라 시설(施設)한 것이다. 동화정책이라는 것은 조선인의 하여금 의복, 음식, 풍속, 습관을 변개(變改)하여 일본인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선인의 심리를 화육(化育)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 관념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동화정책의 골자이다.

그러나 동화정책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論)가 각각 달라서 우리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하는 않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분기점으로서, 조선을 식민지로 보는 자의 동화정책에 대한 견해는 모두 우리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동화정책의 근본의의는 본국 본위의 정책이다. 따라서 식민지 토인(土人)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폴란드와, 프랑스의 알제리 및 인도차이나(印度支那)에 대한 동화정책의 실패를 들어 역사가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보는 자의 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조선인 중에서도 많을 뿐 아니라 일본인 중에서도 많다. 그리고 이 견해가 유력하다는 것도 또한 이 견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만세소요가 발발한 후, 문화정치에 의존하여 동화정책의 표어를 버리고 내지연장주의를 성명하여 융화정책을 취한 것은 상술한 견해가 유력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내지연장주의라는 것은 동화정책과 동일한 것이다. 문자는 다르지만 의의는 동일하다. 동화정책이 조선을 자치령(自治領)으로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내지연장주의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동화정책의 정신이 본국 본위로서 조선을 일본국 및 일본인을 위해 이용하고 조선인은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내지연장주의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근본방침으로 하는 정치로서 혹은 동화정책을 표방하고, 혹은 내지연장주의를 성명하여 통치방침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득책(得策)이 아니다. 동화정책에 대해 오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오해를 영석(永釋)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표어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조선통치의 대방침은 일정불변(一定不變)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표방이 변

경됨에 따라 대방침까지 동요하게 하는 것은 조선통치를 전술(前述)을 위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바이다. 또한 내선일가(內鮮一家)의 실질(實)을 예로 든 위에서도 암영(暗影)을 드리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합병 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조선인 가운데 조선의 독립을 몽상(夢想)하는 자가 많고 일본인 중에서도 조선을 자치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를 내놓는 자마저 있는 것은 요컨대 내지연장주의를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인 중에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는 것은 일한합병의 정신이 내선 양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여 일본이라는 국가를 양 민족의 공유국가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어 식민지가 된 것처럼 오해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일한합방(日韓併合)은 조선이 야마토(大和) 민족에 영유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이 일본국가의 영토가 됨과 동시에 일본국가는 조선 민족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도 일본로 이주하면 일본인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제국신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일본인도 조선으로 이주하면 또한 역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상 (1)〉

일본 거주 조선인 중에 이번 총선거에서 선거 및 선거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1만 5,000에 달하고, 제국신민으로서 최상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거주 일본인은 선거 및 피선거권 없이 조선 거주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참정권이 없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조선 민족은 식민지의 토인(土人)이 된 것처럼 오해하여 국민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 언동으로 나오는 조선인이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력한 일본인 중에서 조선을 자치령으로 하여 영국의 캐나다(加奈陀)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을 동요시키고 없음으로써 조선의 민심과 시국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실로 방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인 중에는 그의 구미 식민지에 관한 학설 및 정책 또는 역사에 구속되고, 조선을 식민지로 지칭하고 자치령론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지연장주의까지도 본국을 위한 정책처럼 해석하는 자가 많다. 이는 한일합병의 진의가 그의 구미열강의 식민지를 침탈 점유한 것과는 크게 그 취지가 다른 것도 모르고 구미를 모방하려고 하는 오견이다.

오견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바라 호되게 나무랄 것까지는 없다고 해도, 그 오견이 세상에 발표되면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선 양 민족의 친선융합

의 성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오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단지 일본인 학자 및 정치가뿐만 아니라 통치의 국(局)에 해당하는 고관 중에도 그러한 오견(謬見)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다. 고(故) 시모오카(下岡) 정무총감 같은 자도 조선을 식민지로서 여기고 내지연장주의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조선통치에 있어서 회유정책을 실시한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시모오카(下岡) 계통의 고관은 거의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다수가 자치령을 희망한다면 자치를 허용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다. 때문에 조선통치의 대방침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을 의심하는 자가 많고, 일반 민중은 그 향배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요즘 조선의 민심 황폐가 극에 달해 과격사상에 오염되고, 파괴주의를 구가하는 자가 많아지게 된 것은 그 원인은 통치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일합병의 근본정신에 기인한 동화정책 즉 내지연장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일반 민중이 그 향배하는 바를 정하여 오견자의 잘못된 논의가 나오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지연장주의를 어떻게 확립해야만 하는 것일까. 조선에서 중의원의원 선거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일반에게 성명하는 것밖에는 없다. 내지연장주의의 목적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과 같이 총량한 신민으로 만들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의무를 수행시켜 8천만 신민을 포용하는 신일본 건설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시행할 시기를 정하고 일반 민중에게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준비와 훈련을 쌓게 함과 동시에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는 자각을 주는 것이 내지연장주의의 확립이다. 내지연장주의가 확립하면 의구심이 제거되어 내선양 민족의 정신적 결합을 공고히 하여 비로소 일한병합의 취지가 관철될 것이다.

〈이상 (2)〉

그리하여 조선 민중의 사상이 일변하여 과격사상과 파괴주의와 같은 것도 쇠멸(衰滅)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상 선도(善導)도 내지연장주의의 확립에 있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내지연장주의라는 것은 조선 거주주의 일본인에게 선거·피선거권을 주어 제국의회에 의원을 선출 파견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선인에게도 선거·피선거권을 주어 대의사(代議士)를 선출하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조선인의 의원을 선출해도, 약 백 명의 대의사가 2백 명 가까운 내지인 대의사 사이에 끼어 조선인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단지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일랜드(愛蘭人) 대의사가 영국 의회에서 의사(議事)를 방해하

고, 분규(紛糾)를 야기한 복철(覆轍)을 답습할 우려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선통치의 대책(大策)은 자치를 부여해 조선인에게 정치적 만족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도 일종의 망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국민으로서 국정(國政)에 참여하여 책무를 분담하는 것은 권리임과 동시에 또한 의무이다. 동일한 제국신민으로서 일본인만이 국정에 참여하고, 조선인은 국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한일합방의 근본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조선을 자치령 식민지로 해야만 조선인이 정치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수의 조선인 대의사를 제국의회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설은 특히 무망(誣妄)의 소치이다. 오히려 한 사람의 대의사라도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다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다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수가 많고 적음을 논의할 수는 없다.

현재 중의원을 당파별로 보아도 오는 20일 일본 총선거에서 정우회(政友會)와 민정당(民政黨)에서 각각 2백 명의 대의사가 선출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실업(實業)동지회, 혁신구락부(革新俱樂部) 및 네 무산정당은 각각 열 명 내외의 소수가 선출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대 정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개재(介在)한 소수당이 필사의 힘을 다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선출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치인 것은 아닐까. 오히려 소수라도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동시에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을 꾀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다. 오히려 2대 정책의 정쟁 승패가 소수당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아일랜드 문제를 견강부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워르츠에서 로이드 조지와 같은 대의사를 선출하여 영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아일랜드 의원이 의회에 방해만 하는 쪽을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통치의 좋고 나쁨이 단순하게 조선인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국운의 융쇠(隆衰)에 영향이 적지 않음을 생각하면 국가 백년의 큰 정책을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속히 조선에 중의원의원 선거법을 시행할 시기를 발표하여 내지연장주의를 확립할 것을 절규한다.

〈이상 (3)〉

〈출전 : 金丸, 内地延長主義を確立せよ(1~3), 『朝鮮思想通信』 588~590호, 1928년 3월 27~29일〉

9) 고희준, 나의 신국가관(1~3)

1. 국가사상의 변천

19세기 이래로 세계 개조의 소리가 사방으로 전파되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사상이 일변하였다. 먼저 프랑스혁명전쟁이 끝난 때, 즉 빈 회의³²⁵⁾ 당시에 개인이라는 사상에 반동되어 사회라는 사상이 발흥하였고 나중에는 이번 세계대전 중국에 즈음하여 국가라는 사상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회라는 관념이 고조하게 되었다. 프랑스혁명은 개인 해방 혁명으로 종래 유럽의 농민은 토지에 부착된 일종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인 귀족이 토지를 전매할 때마다 농노 역시 그 토지와 함께 매매가 되었던 이와 같은 인도(仁道)에 맞지 않는 제도를 프랑스혁명은 파궤(破毀)하고 이들 농노를 해방하여 모두 독립적 인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혁명으로 농민들은 생활의 보장을 잃게 되었다. 무엇 때문인가. 종래의 귀족은 농노를 압제하였으나 동시에 이들을 지극히 보호하여 의식주의 우려는 없었거니와, 혁명 후 농민은 독립·자유인격은 향유케 되었으나 의식주도 혼자 힘으로써 귀족과 생존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생존경쟁의 이면에는 홀연히 빈부의 계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대 공업이 발흥함과 동시에 자본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문제의 시초라.

지금 이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나타난 사회라는 사상은 빈 회의 당시와 달라 개인에 대항하는 의미가 아니요, 국가라는 사상에 대항하는 의미로 사회라는 사상이 고취케 되었으니, 이번 세계대전은 독일인의 국가사상과 프랑스인의 사회사상의 쟁투라고 보는 것이 옳다. 독일이 패하고 프랑스가 승리함은 국가사상이 패하고 사회사상이 승리하였다고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국가와 사회라는 양 사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래 이 양 사상에 대하여는 독일과 프랑스 양 국민 사이에 그 견해가 상이하니 프랑스인은 말하길 국가는 인류의 정치적 관계를 의미함에 불과하나, 사회는 그 범위가 극히 넓어 경제적, 종교적, 도덕적, 문예적 및 기타 사회관계를 모두 포괄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 요컨대 국가는 강제권을 특질로 하고 사회는 임의적, 자연적인 조직관념을 요소로 하여 국가는 그 본질이 권력으로써 인류를 통솔함에 반하여 사회는 권력의 작용이 없고 인류의 자발적 또는 합의적으로 집합된 것이므로 그 사이에 협력, 공존과 연대관계

325) 나폴레옹 몰락 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승전국 회의(1814.11.1~1815.6.9).

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인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여 사회는 본능이 지배하고 국가는 이성이 지배한다, 사회는 그 성질이 무의식적이고 불합리한 단체이기 때문에 인류가 사육으로써 서로 다투는 뿐이니, 이성이 있는 국가는 그 권력으로써 이를 통솔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두 가지의 사상을 비교하여 보면, 프랑스인의 사상은 인생은 본래 상호 협조하여 평화적 생활을 위할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함에 반하여, 독일인은 인생은 사리사욕으로써 서로 다투는 본능이 원만한 생활을 하려면 국가의 권력을 더하여 강제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 학자 ‘뵈리유’가 근세국가론에 서술하였으되, 인류는 그 성질에 조합적(組合的) 취미가 있으니 개미와 벌과 같이 천연으로 존재하는 고정적 강제적으로 부동불변하는 조합성이 아니요, 융통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 어떠한 형식으로도 변화할 성질의 조합성이라. 이 자연적 경향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 더욱 이를 인류의 성정(性情) 내에서 발달해 왔다. 예를 들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나 학술회와 같은 무수한 조합이 처음 성립될 때에 아무런 강제력을 가한 것이 아니니, 인류는 따로 국가와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히 그 성질이 협조적으로 공동생활하는 본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프랑스인의 문명관은 문명진보의 상징은 계약의 한계 범위 대소로써 계량할 수 있다. 국권이라는 우월한 강제력을 가하지 아니하고 인간 상호간에 자유의 합의로써 처리되는 사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명은 다시 높은 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인이 사회를 조합함에 있어 국가라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반하여 독일인은 극단의 필요설을 주장하니, 그 대표적 학자는 ‘두라이지케’이다. 그는 정치학에서 논하길, 사회는 각종 잡다한 경쟁적 이익이 혼란한 곳이니, 이를 방임하면 전 인류가 상호 적대시하여 통일이 없고 질서가 어지러워 인류생존을 위협하게 하므로 사회상의 이익투쟁을 제어, 구속하여 합리적 통일을 부여함은 국가라는 이성과 권력이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윤리상 국가를 신성시하는 이유이니, 사회적 경쟁세계에 정의와 상호적 용인의 정신을 발생케 함에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신의 권현(權現)이요, 이성의 현출(現出)이라고 말하였다.

철학자 루도윅스다인이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며 말하길, 인류가 점차 증가하여 각기 토지를 나누어 소유함에 이르러 서로 탈취하고자 하여 전쟁을 발생하게 하여 사회에는 무사라는 계급이 생기고 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예라는 계급이 나타났다. 무사는 외적을 방어하며 노예는 산업에 힘써 금일 정치조직에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원은 전쟁하기 위하여 발생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유지, 존속하고 발달함이라 하였다. 다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선언 서두에서 강조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사회투쟁의 역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인의 국가사회관은 대개 전쟁적 인생관으로 충만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프랑스인은 인류는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선천적 성질이 있어 따로 강제를 가하지 아니하고라도 교육문□□□□□□하여 도덕적 사회를 나타낼 수 있다고 논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인류 협동은 자연의 성질이라 말하는 것과 독일인의 인류 투쟁은 사회와 국가의 참된 모습이라 말하는 것은 필경 인생의 성질을 선시(善視)함에 있고 이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분기논쟁은 동서고금 사상에 일대 문제를 만들었으니, 그리스에 있어서는 플라톤은 성악설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선설이라. 플라톤은 말하길, 인생은 본래 자기 자신이 자연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즉 두 가지 방향으로 상호 반대하는 힘이 있어 무한한 전쟁이 있으니, 한편으로는 선(善)을 지키는 양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맹목적으로 쾌락을 구하는 간정(間情)이 있어 마치 백 개의 머리를 가진 큰 뱀과 같이 백 개의 뱀 머리가 각각 특수한 욕망을 만족케 하고자 하는 상태와 같은 것이 인생, 생활이니 인생은 이 큰 뱀을 정복하려면 한 마리의 사자의 원조가 필요하다. 이 뱀과 사자와 선을 지키는 양심, 이 삼자의 전쟁생활이 인생이다. 즉 간욕(間慾)과 용기와 이성, 이 삼자의 조화가 인생의 이상적인 상태요, 도덕원리가 즉 이곳에 있다 하였다. 플라톤은 다시 이상국(理想國)을 묘사하여 말하길, 국가는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눌 수 있으니, 제1계급은 철학자요, 제2계급은 군인이요, 제3계급은 농공상(農工商)의 집단이니, 최하계급인 농공상 집단은 물질욕을 대표하여 사리사욕을 서로 다투는 곳이니,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성을 대표하는 철인(哲人) 계급이 필요하고 이를 돕는 용기 있는 군인 계급이 다시 필요하다 하였다. 그 사회를 사리(私利) 분쟁의 장소로 보고 이를 다스림에 국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설은 독일인이 만들었다.

플라톤이 처자공유제도와 재산공유제도를 말함은 인생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족을 유지케 하면 가족을 사랑하여 국가를 망하게 할 염려가 있고, 재산을 사유케 하면 자기의 이익을 먼저 하고 국가의 이익을 나중에 할 염려가 있다는 인간의 성질을 비판하고 악시(惡視)하는 데에서 발생한 학설이다. 이에 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질을 선으로 보았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우애심이 있으며,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조합은 강제력을 가하지 않고도 자연적 성질의 발휘로 인하여 국가라는 최대 조합같이 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동양에도 순자(荀子)는 성악설을 논하여 말하길 인성(人性)은 원래 악이요, 선은

거짓이라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利)를 좋아하기 때문에 쟁탈이 발생하여 예양(禮讓)³²⁶이 망하였고, 이목(耳目)은 성색을 좋아하여 음란이 발생하고 예의가 망하였으니, 인성에 따르고 인정에 순종하면 반드시 쟁탈이 생겨 범문난리(犯文亂理)가 될 따름이니, 이로 인하여 성인이 도덕을 역설함도 원성(元性)이 악하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맹자(孟子)는 성선설을 주장하여 말하길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단(四端)은 선천적으로 인생 성질에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은 인생의 본성을 계발할 따름이라 따로 강제하지 않고도 사회를 조성할 요소가 인생에 구비한 것이라고 설명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설과 합치한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사람을 보되 성악설과 성선설로 양 방향으로 각각 주장하여, 오늘 날에 독일은 성악설에 기인하여 사회 및 국가의 조직을 장려하고 프랑스인은 성선설에 기인하여 국가 및 사회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성악설은 예로부터 항상 전제주의(專制主義)에 귀착되고 성선설은 자유주의(自由主義)에 입각하였다.

순자의 성악설은 예(禮)를 중요시하는 결과로 법 제도를 구비케 할 필요가 발생하여 법치사상은 한비자(韓非子)에 영향을 주어 형명법술(形名法術)의 학설이 발생하였고, 법치적 전제주의는 상양(商鞅), 이사(李斯)를 통하여 진시황(秦始皇)은 유학(儒學)을 땅에 묻고 시·서(詩·書)를 불태우게 한 극단의 전제정치를 발휘케 하였다. 맹자는 이에 반하여 덕치주의를 고조시켜 법술(法術)에만 의하고 각박한 정치를 배제하고 도덕으로 인민의 감정을 선화(善化)하고 인정(仁政)으로써 인민의 이해있는 복종을 하게 함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순자의 법정(法政)으로 인민을 강제함과 맹자의 덕정(德政)으로 인민을 감화함이 마치 독일이 성악설에 기인한 인민을 강권으로 복종케 하는 국가사상과 프랑스인이 성선설³²⁷에 기인한 자유공동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사상과 흡사하여 이번 세계대전은 이 성악설에 기반한 국가사상에 대하여 성선설에 기반한 사회사상의 반항으로 볼 수 있으니, 이제 독일이 패하고 프랑스가 승리함은 일면 강권적 국가사상이 패하고 자유적 사회사상의 승리로 볼 수 있다. 국제연맹이라든지 국제노동협약이라든지 모두 대국가 또는 유산계급이라는 강자가 소국가 또는 무산계급이라는 약자와 공동생존의 정신을 발휘하고자 함에 있으니, 프랑스인의 자유적 사회관념은 실로 '생시몽'이 이를 주창하여 '칸트'라는 학자에 이르러 과학적 일대 체계를 완성하였다. 칸트가 말하길, 사회는 인류의 상호계약에 기반하는 조합이요,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노력

326) 예의를 지켜 공손한 태도로 사양함.

327) 본문은 성악설로 되어 있으나, 성선설의 오류임.

하는 협력동존의 단체라. 상호 그 직능은 다르나, 항상 인류연대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분업적 관계에 있어 가족은 하나의 공공 기관이요, 개인은 생존발달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 관리로 간주하는 관념은 근세 사회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주의에 반동하여 일어난 학설이니, 사회의 단위를 개인에 두지 아니하고 가족에 두었으며, 사회 정학(社會靜學)으로 인류 사회의 질서를 연구하고 사회 동학(動學)으로 그 질서의 진화하는 법칙을 연구하였다. 그는 사회의 급격한 혁명을 옳지 않다고 하고, 과학적, 질서적 진화를 진정한 진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프랑스 보르도 대학 교수 ‘쭈이꾸’의 정치철학에서 논하였으되, 그가 첫 번째로 인정한 실재는 자아의식이라 “나는 사고하는 존재자”라 하는데, 칸트의 철학을 전제로 시작하여 개인적 의식이 사회학상 유일하게 실재한다고 논하여 이 개인적 의식 외에는 사회의 실재성까지도 무시하니, 이는 칸트의 사회실재론과 정반대로 개인주의를 역설한 것이다. 그는 개인적 의식의 실재를 인정하여 말하길, 개인의 사념(思念)이 바깥 세계에 향하여 움직이는 경향을 이룸하여 나의 사(思)라 하고, 이 의사가 외부에 대하는 표현을 나의 행위라 한 것이니, 요컨대 자기의식이 있는 인생이 사고하며 욕망하며 의식한 목적을 얻기 위하여 행동함은 이 사회생활상에 유일한 사실이라 말하였다.

이 개인의식과 사회관계를 말하면 개인의식이 유일한 실재라 하면 이 실재는 개인 양심의 내용이 확대할수록 사회도 확대하게 된다. 만약 인생이 자기의식뿐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관계, 즉 타인과 자기와의 연대관계를 의식하면 이 연대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자기 개인성의 확대라. 인생이 공동생활로 인하여 불편과 고통을 감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니, 인류의 연대관계나 인생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실이면 이 연대의식은 개인적이다. 즉 개인의 생활욕의 확대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식은 한편 개인적이나 다른 한편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행동을 이루게 되나니, 인생은 동일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를 이룬 것이니, 이 연대관계는 유사한 연대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그 근로한 결과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사회의 연대관계는 한층 그 효과를 증대하게 된다. 필경 문명의 진보는 개인의 발달, 개인의 문화, 개인의 능력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그 유사(類似)함이 감소하게 되나니, 이것이 분업에 의한 연대관계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요컨대 사회연대는 유사한 연대관계와 분업의 연대관계가 있어 개인의 발달과 사회의 연대관계의 발달은 상호 병진적(並進的)인 성질을 가졌다 한다. ‘쭈이꾸’는 이상과 같이 사회연대관계와 개인의식의 관계를 논한 후에 이 사회연대관계를 기초로 한 인생행

위의 법칙을 구하고자 하였다.

즉 그는 이 행위의 법칙은 자연계의 법칙과 같이 항상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인과율이 아니요, 어떠한 목적을 의식하여 그 실현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이니, 따라서 행위는 본래 목적으로부터 발생하고 행위의 가치는 그 목적의 가치로 인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행위의 목적이 사회연대의 목적으로 인하여 결정될 것 같으면 이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1의 행위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1. 사회연대의 목적을 의지하여 결정된 개인의식에 기반한 모든 행위를 존경하고 항상 그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땅히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개인은 사회연대에 반대되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
3. 유사함에 의한 사회연대 및 분업에 의한 사회연대를 감소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또한 이 두 가지의 사회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행위의 법칙은 반드시 사회 그 자체의 산물이니, 사회 그 자체는 필경 인간행위의 법칙이다. 따라서 소위 국가의 법규라는 것도 이상의 세 종류 외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니, 이 법규의 실행을 확보함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 법규는 어떤 사람이 집행할 임무를 지닐 것인가. 소위 치자(治者)라는 한 무리의 사람이니 그들의 피치자(被治者)에 대한 관계는 결코 자기의 권리를 행함이 아니요, 다만 치자의 의무를 행할 따름이다.

그들이 피치자와 다른 점은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힘, 특히 조직된 힘을 특별히 가진 것이니, 이 법규집행의 임무를 행한다는 것 이외에는 치자와 피치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치자나 피치자나 모두 사회의 구성분자요, 각기 분업적 사회연대관계에 있어 그 직업에 아무런 준비귀천이 없음은 물론이요, 하나는 법의 집행을 임무로 하고 하나는 자기의 직업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니, 치자나 피치자가 공히 이 사회에 봉사하는 하나의 관리가 되는 것은 같다. 그러므로 과거의 국가는 관리와 인민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적 관계로 봄에 대하여, 사회는 인류연대관계로써 공동생활을 하는 처소로 생각함이니, 종래의 국가관념에 대하여 사회관념으로써 대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쭈이꾸’는 종래의 국가인격설을 일개 철학상 공상적 산물로 배제하고 개인의식 외에는 실재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인격이 있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요, 단순히 치자가 행 하나 실제상 권력이 있을 뿐이다. 다시 ‘쥬이꾸’는 자기의 사상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국가는 인격자가 아니요, 역시 권리 그 자체도 아니요, 일개 사실적 제도기관이니, 그 제도로는 한 무리의 치자(治者)가 있어야 최대한 힘을 독점한 것이다.
2. 이들 힘을 독점한 치자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회연대를 보호함에 필요한 법규에 따른 의무가 있음. 또한 이 법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와 최선의 힘을 다할 의무가 있다.
3. 치자는 그 의지를 다른 개인의 의지에 강제함을 얻을지나, 오직 그 의지의 강행은 절대적이 아니요, 단순히 법규에 부합하는 정도에 한하여 행할 따름이다.
4. 치자의 직분은 점차로 감소하여 끝내는 감시감독에 그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영국 학자의 국가관이니, 유래로 영국인의 국가론은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의 국가론이다. 자유방임을 환언하면 국가의 직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개인의 활동범위를 최대한도로 확대코자 하는 주장이다. 존 로크의 계약설이며, 아담 스미스의 경제정책론이며, 벤담, 밀의 공리주의 정책론이며, ‘코브던브라이트’의 무역정책론이며, 스펜서의 국가철학론 등이 모두 국가의 직능을 최소한도로 축소는 논의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일정하고 유한한 직능을 가진 하나의 단체에 불과한 것이니, 이와 같은 종류의 단체는 국가 이외에도 교회, 회사, 자선단체, 사교클럽, 정당, 학술협회 등 무수히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는 시간상 장구하며 공간상 광범위하여 통제작용이 강렬하며 다른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성시할 터이나, 그 근본 본질에 이르러서는 이상의 모든 단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종의 직능단체에 불과하다. 각종 직능이 있는 이들 단체는 존재의 기초에는 아무런 직능과 조직이 없고 다만 인류 상호가 가진 같은 종류의 감정에 기인하여 성립한 기본 사회가 있으니, 모든 각 직능단체는 이 기본 사회에서 파생하고 이에 대하여 공헌하고 이의 완성을 최종, 궁극의 목적으로 하여 그 존재를 지키고 유지할 따름이라 한다. 이상의 국가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계이니 오늘날 많은 국가가 병립하여 존재하나, 각 국가의 소속인원은 결코 자기 국가의 소속인원만의 사회관계에 성립한 것이 아니다. 가령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남녀간의 연애결혼이라든지, 경제상 물화(物貨) 거래라든지, 기타 종교, 학술 등은 국경이 없고 국적을 불문한다. 또한 노동동맹이라든지 화폐도량형에 관한 조약이라든지

우편, 전신, 철도, 운수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저작권,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기타 예전에는 혹 한 국가에만 관한 현상으로 보호, 단속하던 종류의 사항이 오늘날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가 상호 협동하여 보호,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무수한 국제협약이 출현하였다. 나아가서 중국에는 이들을 포괄하는 가장 보편적, 일반적으로 국제연맹이라는 일개 신국가단체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그러면 재래국가들은 일개의 연방으로 취급케 되는 세계적 국가를 조성케 될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재래의 국가관은 사회와 국가를 혼동하여 하나로 보던 것이 지금에는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판명히 구별되어 국가를 일종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의 보호기관에 불과한 일개 직능단체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직능단체 외에 다시 그 기초상에 따로 기본 사회가 존재하여 금일에는 이 기본 사회가 점차로 세계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이 기본 사회에서 국가 및 기타 각종의 단체가 파생하며 또 어떤 국가에도 관계되지 않는 바가 없는 많은 세계적 직능단체가 성립, 존재하게 되었다.

둘째는 종교개혁 이후에 입헌정치하에 확립된 자유권이란 현상이니, 종교와 국가 간에 분쟁으로 인하여 종교는 마침내 국가의 직능 이외에 속할 것으로 승인되었다. 즉 신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학문, 예술, 도덕의 자유도 확립되고 이 자유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부수하여 언론, 집회, 직업, 혼인, 계약 등의 자유와 신체, 주거, 신서(信書) 등 불가침의 자유를 승인하게 되었다. 이들은 국가 직능에 제한이 있고 소속 인민의 인격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함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종래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국가론에서는 인민의 인격상에 국가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설을 배척하고, 자유는 진정한 자아의 실현이니 진정한 자아의 실현에는 국가의 구속이 필요하다 하여 국가의 구속이 즉 자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에 관계가 없는 개인은 실로 기본 사회를 형성하는 개인이요, 그 자유범위는 국가의 간섭 이외에 성립하여 법률구속 이외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세계에 속하는 의미로는 물론 구속이 있을지나, 이는 국가 법률적 구속과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

셋째는 목적관이니, 오늘날 국가는 결코 국가 그 자신이 목적이 아니요, 수단으로 존재함에 불과하다 함이 학자 간의 통념이다. 국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 학자 간에, 국가 존재 긍정론자 또는 국가 존재를 부인하는 '아나키즘'의 학설이 존재하는 것을 본 즉, 국가는 우리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정론(定論)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란 결코 단순한 자연적 개인을 목적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요, 기본 사회를 형성하고 도덕상 자기완성의 지고(至高)한 목적을 가진 개인을 목적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는 개인

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바,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속한 일개의 제도기관이라 칭하는 바로다.

2. 애국심의 진정한 의의

우리는 이상에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신관념을 간단히 조사하였거니와, 요컨대 독일 '투라이지케'나 헤겔 등이 주장하는 국가주의는 부인되고 국가와 사회를 명확히 구별하는 학설이 점차 성하여 국가 이상(以上)에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 이상(以上)에 개인 인격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국가는 권력에 기반한 인류공동생활의 한 단체이나 정권과 무력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종교, 학술 등 그 이외에도 무수한 사회단체가 있음은 전술함과 같으니, 인문(人文)의 발전은 점차로 국가지상주의의 학설을 수정하고 국가를 일개 조합으로 취급케 되는 경향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특히 신구 국가론의 우열을 상세히 논하고자 함이 아니나, 현 우리 조선인 사상계의 경향을 살펴건대, 아직 그 정도가 유지하여 사회철학가 '울워'이 설명한 바를 빌려 말하자면 아직 우리는 인생으로 통과하는 3단의 자의식 내에 자연아(自然我)의 경지를 배회하는 감이 없지 않다. 자연아를 초월한 사회아(社會我)가 있고, 사회아를 초월한 진아(眞我)가 있으니, 사회아는 사회가 즉 나요, 내가 즉 사회라. 사회와 내가 일신동체임을 자각한 나이니, 자연아는 단순한 본능아(本能我)요, 본능아는 육육의 충동에 따르는 하나의 기계적 생활을 영유하나, 사회아는 육육충동적 생활이 아니요, 능히 사회구성 원리를 이해하여 자타 인류의 연대관계를 통찰하여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즉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침을 자각하여 사회를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도덕적 인격을 말함이니, 이 사회아의 생활을 능히 선하게 하는 자라야 비로소 자연아의 생활도 능히 선하게 할지며, 사회아에서 더욱 나아간 진아(眞我)는 즉 영지(靈智)와 양심으로 독립, 자유 생활하는 이상아(理想我)이니, 이는 지정의(智情意)와 영(靈)이 원만하게 조화된 완전한 인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아적인 생활이란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적(人的) 생활을 말함이니, 완전무결한 전인적 생활을 하면 사회아의 실현과 자연아의 존재 가치도 이 가운데에 있다. '좀더 큰 생활 내에는 작은 생활이 포함된 것이니'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에 발생함은 동시에 진정한 소아를 활동케 하는 원인이다. 이 이론을 유추하여 국가 대 인류관계에 이르면 국가는 국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함이 아니요, 국가 이외에 더욱 큰 사회, 즉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에 국가 존재의 의의가 있으나, 가령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가는 각기 소속 국민에게는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세계에 유일무이한 단체가 아니요, 특히 자기 국가와 같은 동일한 단체가 무수히 병존하였으니, 다시 이를 총괄하는 인류사회라는 국가 이상의 대단체가 있음을 자각할 진대, 국가 동지 간의 공동의존 관계가 없고는 능히 자기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를 발휘 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문명의 대세가 국가주의에서 국제주의로, 국제주의에서 세계주의로 향하여 진전함은 인류생활 진보상 당연한 경로라 하겠다.

여기에 이르러 문제를 다시 환원하여 국가 대 개인, 개인 대 국가에 대해서 그 관계 역할을 설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개인은 각자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생명을 기여할까. 또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어떻게 하여 개인 각자의 발전, 존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가짐과 같이 국가도 개인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니, 개인의 생활내용이 풍부할수록 개인을 포용하는바 국가의 생명도 풍부하고 충실할 것이다. 이 풍부한 생명과 충실한 내용을 가진 국가가 개인의 생활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생활가치를 높고 크게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상관적(相關的)으로 사고하면 개인은 다만 국가에 대하여 충실한 종의 책임만 가질 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다시 나아가 진정으로 분가(分家)에 충실코자 하려면, 먼저 자기수양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개인에게는 국가의 권위나 병력으로도 침범하지 못할 신성한 인격이 있으니, 그 신성한 인격을 향상케 하는 마음과 노력이 없으면 마땅히 국가생명에 대해 공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각오와 노력이 강대한 개인을 구성요소로 한 국가는 그만큼 세계문명과 인류사회 진보에 공헌하게 될 터이니, 여기에 비로소 국가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의 취지에 따라 애국심에 대해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무릇 모든 선(善)한 사물에도 다소 폐해가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인데, 과거 역사상 공이 있는 자가 반드시 현대에도 공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뿐더러 반대로 해독을 남긴 사례도 적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 편협한 애국심과 배타적 애국심과 군국적(軍國的) 애국심 등의 해가 많음은 물론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이들의 착오된 애국심으로 인하여 이번에 세계대전을 야기한 일은 세상이 모두 아는 바요, 전후에 유럽 개조가 지지부진함도 모두 배타적 애국심의 여독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애국심이 일국의 존립흥체(存立興替)에 무상한 공력(功力)이 있었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니, 오늘날 문제는 다만 어떻게 하여 애국심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며, 어떻게 하여 그 내용을 순화, 확충, 향상케 하며, 어떻게 하여 현대에 적응한 애국심의 함양을 얻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여 신의의(新意義)의 애국심을 장려하여 신시대 인심의 공명(共鳴)

을 일어나게 할까 함이다. 그러나 애국심의 유지, 작흥은 우리 국민의 도덕상 장래에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하여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바 애국심의 진의(眞義)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 (1) 세계주의에 기반한 박학(博學)의 정신으로 정의인도를 실현함에 있음
- (2) 애국심은 유사시에 적개적(敵愾的) 정신을 발휘함에 있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매일의 의무를 충실히 함에 있음
- (3) 자기 국가는 자기 민족의 장점만 일으켜 천박한 자만심에 타락치 말고 아무쪼록 세계 각 국가 및 각 민족의 장점(長處美点)을 이해하며, 동시에 자기의 단점과 매일의 결점을 지적, 개선하여 진선미(眞善美)에 합한 세계적 국민성을 양성함에 노력할 것
- (4) 국가의 사명은 단순히 자국의 강대함과 융성을 꾀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인류의 진보와 행복에 공헌함에 있음을 잘 이해하여 재래의 배타적 애국심을 순기(純記)하여 박애적 정의와 인도주의로 확대, 충만케 할 것
- (5) 전통적, 본능적, 선천적 감정에 기인하여 물이해적인 맹목적 애국심을 기각하고, 아무쪼록 과학적, 철학적, 교육학적으로 이를 분석, 해설 내지 비판을 가하여 현대 청년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긍정, 납득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케 할 것

지금 세상사람의 소위 정의는 한 국가, 한 민족에 한정된 정의는 있으나, 전 세계 인류 사이에 통용하는 정의는 없다고 말하여도 옳다. 가령 영토의 문호를 엄격히 차단하고 인종의 차별을 고수하면서 이와 같이 정의와 인도를 고창하여도 이는 종족적, 지방적, 국부적 정의에 불과하다. 전 세계, 전 인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동일시하는 박애 정신이 없고는 보편적 정의가 아니요, 세계적 정의가 아니다. 그 편협하고 고루한 정의관념에 기인한 애국심의 해독이 우리의 과거를 비참케 한 세계대전 당시 및 이후 오늘날의 현상에 비추어 볼진대 이와 같이 유해무익한 지방적, 국부적 편파한 애국심은 배척하고 모름지기 세계적 정신하에 만인과 만국에 공통할 만한 세계주의적 애국심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의와 인도는 즉 세계주의에 기반하지 않으면 완전한 정의가 아니요, 박애정신에 기인하지 않으면 최고의 정의가 아니다. 그러나 혹은 말하길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고는 애국심은 성립하기 어렵다 말하나 생각해보라. 구 국가의 도덕으로는 이들의 말에 응답할 이유가 없지 않으니, 구시대에는 국가나 민족이 상호 생존권 경쟁을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자연히 배타적이고 이기적 행동을 발휘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

왔거니와 지금 시대는 경쟁이 원칙이 아니요, 상호부조가 원칙으로 개조된 시대이다. 따라서 개인은 개인과, 민족은 민족과, 국가는 국가와 상호부조하여 공존동영(共存同榮)함을 원칙으로 세우니 국제연맹이 아직 완성치 못하였으나 그 정신은 모두 이 상호부조의 원칙에 입각하였다 함이 옳다 하도다. ‘제노바’ 비침략주의 협의와 워싱턴 군비축소협약이 모두 이러한 상호부조라는 원칙하에 세계의 항구평화를 축성하고자 박애정신의 실현적 초보라 말하여도 옳도다. 그렇다면 구시대의 배타적, 이기적 애국심은 이미 시대착오의 유물이 되었고, 신시대의 국가도덕에 맞지 않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즈음에 종래의 오용된 애국심, 즉 배타적, 이기적이고 편파고루한 애국심을 일체 배척하고 전 세계 평화에 기초될 박애정신과 세계일가 동포주의에 입각한 신의의(新意義)의 애국심을 크게 장려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 이상 5개 조항을 열거한 바로다.

〈이상 (1)〉

3. 선악 관념의 표준(정의관의 확립)

우리가 이 때에 일언일동(一言一動)하면 그 영향은 반드시 크든 작든 사회에 파급되며, 혹은 선악을 논하며 시비정사를 평가하여 세상사람의 훼예포핍(毀譽褒貶)³²⁸⁾의 자료를 이루도다. 그러나 보통 세상 사람이 논하는 바, 시비정사(是非正邪)가 과연 정곡을 찔렀다 할까? 선(善)이란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표준하여 말합이며, 정의란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목표 삼아 논함인가, 이것이 실로 우리의 큰 의문이라 하는 바로다. 갑(甲)의 정의는 을(乙)의 비의리(非義理)로 폄(貶)하는 바요, 을의 선(善)은 병(丙)의 악(惡)으로 평가하는 바 아닌가. 따라서 보통 사람은 이 선악의 시비를 판단함에 오리무중으로 방황하는 감이 없지 않다. 이에 우리는 이 선악관념의 완전한 표준을 세워 진정한 정의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악관념의 표준을 세움에 있어 먼저 동서양 고금의 학자의 선악관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 동양 고대로부터 옛 선인의 선악관을 일람(一覽)하고자 한다. 주나라 말, 노자(老子)는 어떻게 보았는가. 그는 선악의 구별을 일말(一抹)하고자 하였다. 그의 논점은 셋이니 첫째, 선악은 동일한 본체(本体)라는 이유를 들어 도(道)는 만물의 오(奧)이니, 선인(善人)의 보(寶)는 불선인(不善人)의 보(保)할 바라하여 선악의 명칭을 무차즉계(無差則界)로 끌어들이 말살코자 하였다. 둘째, 선악은 상대라는 주장이라. 천하가 모든 아름다움을 알면 이

328) 남을 헐뜯거나 칭찬함.

것이 추함(醜)이고, 모든 선(善)의 선함을 알면 이것이 불선(不善)이라고 하였다. 추(醜)가 없으면 미(美)가 없으니 미는 즉 추라고 하였다. 즉 악이 없으면 선도 없을지니, 선은 즉 악이라는 의미라고 말하였다. 셋째, 선악의 차가 극히 작다고 하여 말하길, 유(唯)의 아(阿)와 서로 다름이 어느 정도냐고 하여 선과 악의 서로 다름이 어느 정도인지 논하고 선악의 구별을 말살코자 시도하였다. 다음은 공자(孔子)의 선악관(善惡觀)이니 공자의 선악관정법에는 셋이 있다. 첫째는 직각설(直覺說)로서 생각건대 인생은 살면서 선악관념이 스스로 있어 선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주장이라. 둘째는 중용설(中庸說)이니, 중용은 즉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 하여 사물의 양끝을 잡아 그 가운데를 취한다는 의미다. 셋째는 충서설(忠恕說)이니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인자(仁者)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타인을 서게 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타인을 이루게 한다는 예수의 소위 자기가 바라는 바는 타인에게도 베풀라고 말함과 같은 의미이다. 다음은 묵자(墨子)의 선악관이니, 묵자는 선악의 표준을 세움에는 먼저 천의(天意)를 연구하여 하늘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를 고찰하여 행함이 옳다고 말하며, 우리 행위에는 모범 및 법칙이 필요하니 이를 법의(法儀)라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법의를 정할까. 첫째는 부모로써 법의함이 불가하니 천하에 부모가 많으나 인자(仁者)의 부모가 적은 까닭이요, 둘째는 학문으로써 법을 삼음이 불가하니 천하에 학자가 많으나 인자(仁者)의 학자가 적은 까닭이요, 셋째는 군주로써 법을 삼음이 불가하니 천하에 군주가 많으나 인군(仁君)이 적은 까닭이라 하였다. 그러면 무엇으로써 법을 삼을까. 오직 하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하늘의 행(行)은 넓어서 사(私)가 없고 그 베품이 후하되 덕(德)으로 여기지 않고 그 밝음(明)이 오래하여 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을 법으로 하여 하늘이 바라는 바를 행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를 행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하늘은 반드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여 서로 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는 이치를 기본으로 정하여 소위 묵자의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하니, 그러면 사랑은 무엇을 말함인가. 사랑은 내가 사랑을 좋아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동정심이다. 애정 중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이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함을 포함하는 것이니, 인자(仁者)는 반드시 천하의 이(利)를 흥하게 하고 천하의 해(害)를 제거함에 있다 하였다. 그러면 천하의 이익은 무엇이며, 천하의 해는 무엇인가. 국가의 인민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빼앗으며 군신부자(君臣父子)가 불충(不忠), 불효(不孝), 불자(不慈)하여 형제가 서로 화합치 못함이 해이니, 그 원인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 함에 있다 하였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하며 서로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다른 국가를 볼 때에 자국과 같이 하며 사람이 다른 가정을 볼 때 자기 가정과 같이 하며 사람이 타인을 볼 때에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다. 그러하면 국가가 상쟁치 아니하고 사람이 서로 해치지 아니하고 강자는 약자를 압박하지 아니하고 부자는 빈자를 모멸하지 아니하게 될 터이니, 사랑 중에는 남을 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남을 이롭게 함이라 하였으니, 묵자의 겸애설은 공자, 예수의 박애설(博愛說)과 같다. 마정방중(磨頂放踵)³²⁹⁾이라도 만인을 위해서는 일신(一身)을 희생에 바칠 무한한 사랑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양자(楊子)³³⁰⁾의 선악관은 바로 이와 반대하여 ‘발일모이위천화(拔一毛而爲天下)’³³¹⁾라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양자는 다만 순연(純然)한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선악을 판정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이익만을 표준으로 하여 이롭게 하면 선이요,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악이라 말하였다. 그는 말하길 인생은 짧고 또 고통이 많으며 사후에도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현세의 쾌락만 얻으면 만족이라 하였다. 그 쾌락도 역시 육체에 속한 주색(酒色)을 첫 번째 요건으로 삼았으나 공자, 묵자의 설에 비하면 운양(雲壤)의 차가 있다.

다음은 열자(烈子), 장자(莊子) 등의 회의설(懷疑說)이며 방임설(放任說)이다. 열자는 말하길, 갑국(甲國)에서는 선으로 여기는 것을 을국(乙國)에서는 악으로 여기는 풍속이 있음을 예로 들어 일정한 선악이 별개인 것을 논하여 선악관념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도덕은 각기 국가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정한 바요, 만세불역의 일정한 도덕이 없으며 선악이 없다 함이 장자의 말이다. 장자는 또 말하길, 소인(小人)은 몸을 이(利)에 바치고 선비(士)는 이름에 바치고 대부(大夫)는 가정에 바치고 성인은 천하에 그 일이 같지 않을지나, 그 몸을 잃음은 일반이라. 양치는 자가 박혁(博奕)을 사랑하여 양(羊)을 잃음과 책을 읽다 양(羊)을 잃음과 양(羊)을 잃는 것은 같다. 백이(伯夷)가 이름을 위하여 수양산 아래를 따름과 도척(盜拓)이 동릉(東陵) 위에 죽음이 그 죽음은 서로 같지만 생(生)을 해치고 성(性)을 다치게 함은 일반이니, 어찌 반드시 백이(伯夷)를 옳다 하며, 도척(盜拓)을 그르다 하리오. 도덕이 사람을 망치고 불행한 고통을 주니 나는 알지 못하겠다. 참으로 선(善)함이며 참으로 불선(不善)함인지, 만약 선(善)하더라도 몸을 활(活)함에 족하지 못하고 불선(不善)하더라도 사람을 활(活)함에 족하니 진실로 선(善)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길게 탄식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이 사회의지 다수의 압제로 인

329) 정수리에서부터 갈아서 발꿈치에 이른다(磨頂放踵)는 뜻으로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해 희생함을 이르는 말.

330) 양주(楊朱).

331) 털 한오라기를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양주의 위아설(爲我說).

한 일반적 습관됨을 도파(道破)³³²함은 진리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선악이 근본적으로 별개라고 한다는 사례는 회의파의 관찰점이라.

그 다음은 맹자의 양지양능설(良知良能說)이니, 즉 공자의 직각설(直覺說)과 같다. 사람은 배우기 전에 선악을 명찰(明察)하는 양지양능이 고유하다는 주장이다. 대체론(大體論), 소체론(小體論)을 논하여 말하길 몸에 귀천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으니 소(小)로써 대(大)를 해하지 말며, 천(賤)으로써 귀(貴)를 해하지 말라고 하여 소(小)를 기르는 자는 소인이요, 대(大)를 기르는 자는 대인이라 하였다. 또 이목에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명령에 따르는 자는 대인이고 또한 말하길, 물고기도 우리가 바라는 바요 곰 발바닥도 우리가 바라는 바니, 이 둘을 겸득(兼得)키 어려운 경우에는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할지며, 생(生)도 우리가 바라는 바요, 의(義)도 우리가 바라는 바라. 이 둘을 겸득키 어려운 경우에는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지라. 생은 우리가 바라는 바이나, 바라는바 생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구차(苟且)하게 그 생을 얻지 아니하며 죽음도 우리가 싫어하는 바이나 싫어하는바,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환(患)도 피하지 않는 바라고 논하여 크게 양심이 명령하는바 정의에 따를 것을 고취하였다. 다음에 순자(荀子), 상자(商子), 한비자(韓非子) 등의 인성을 악시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형명의법(刑名儀法)으로 인민에 대한 명령, 요구, 주의를 역설하여 인의, 자비를 배척하고 선악의 판정은 그 때, 그 국가 법률로 표준을 정함이 옳다는 설이다. 그는 말하길, 제후를 친구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救)함이 없는 자는 상벌로써 권금(勸禁)하기 어려우니,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와 같은 요순(堯舜), 허유(許由), 도척(盜拓) 등과 같이, 혹은 고의사(高義士)라 하며 성현이라 칭하는 정신적 인물 등은 중주(重誅)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중상(重賞)을 이익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무리는 무익지신(無益之臣)이요, 태물(殆物)이요, 불령지민(不令之民)이니 더하여 이러한 무리는 죽이라고 극단의 주장을 부르짖었다. 그 다음은 한나라와 당나라 사이에 동중서(董仲舒)도 하늘의 뜻에 따름을 선악의 표준을 삼고 한유(韓愈)의 박애지위인(博愛之謂仁), 행의지위의(行宜之爲義), 유시위도(由是謂道)라는 박애 정신으로 선악의 표준을 삼았고 사마천(司馬遷), 가의(賈誼), 류향(劉向), 공안국(孔安國), 반고(班固), 마융(馬融), 정현(鄭玄), 왕숙(王肅), 유작(劉焯), 유현(劉炫), 왕통(王通), 이고(李翱) 등의 학자가 주장하는 바는 모두 훈화와 해설을 주로 하여 선현의 관찰과 같았으며, 송(宋)나라와 명(明)나라에 걸쳐 왕안석(王安石)이 성론(性論)에 말하길, 성정(性情) 그 자체에 선악의 명칭을 부여하지지 아니하고 사물에 접하여 정발(情發)하

332) 끝까지 다 말함. 또는 딱 잘라 말함.

여 마땅히 합불합(合不合)에 따라 그 행위에 명칭을 준 것이라고 심리학적으로 비판하여 결국은 박애적 행위 여부에 선악의 표준을 두었다. 다음에 주돈이(周敦頤)는性情(性情)에 본래 선악이 없고 사물에 감동하여 선악이 구별되고 만사가 나온다고 말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바를 기(幾)라고 말하니, 기는 즉 선악의 붕조(崩兆)이니 선이 되고 악이 될 만한 순간의 기(機)를 말함이다. 이 기를 당하여 중정인의(中正仁義)를 논하여 말하길, 동(動)하여 정(正)함을 도(道)라고 말하고 용(用)하여 화(和)함을 덕(德)이라 말하여 추상적으로 선악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에는 장자(張子)의 천지의 성(性)과 기질의 성, 정자(程子)의 소위 이기설(理氣說)과 주자(朱子)의 오행설(五行說), 육구연(陸九淵)의 유심적(唯心的) 윤리설과 왕양명(王陽明)의 지행합일론(知行合一論)에 기반한 양지양능설(良知良能說)이 모두 직각설(直覺說)에 기인한 선악의 표준을 양심이 명령하는 바를 따름에 있다는 설이다. 요컨대 동양윤리학설에 기인한 선악관은 공맹(孔孟)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에 나뉘 하나는 박애정신에 합한 행위여부를 선악의 표준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하나는 형정법의(刑政法儀)에 의지하여 시대를 추구하여 한 국가, 한 사회의 편의를 따라서 다수의 습관에 기반하여 선악을 판정코자 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서양고금학자의 선악관을 일별(一瞥)코자 하노라.

서양에도 동양과 같이 처음에는 소크라테스, 예수와 같이 직학설(直學說)에 기인한 박애 정신을 발휘하여 애인여기(愛人如己)의 법칙으로 선악을 판정코자 하였으나, 일면에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소피스트 일파의 회의론이 일어났다. 소피스트의 관념은 선악이라 진리라 하는 것은 일정불변한 것이 없다고 하여 순자(荀子), 상자(商子), 한비자(韓非子) 등과 같이 각 국가, 각 사회의 정(正)이라 하며 선이라 하는 것은 최대 다수가 그것을 정이라 하고 선이라 하여 계속하는 사이에는 그것이 정(正)이 되며 선이 될 것이요, 결코 일정불변하여 만인공통의 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결국 법이라, 정의라 함은 일개 사회적 규약에 불과하니 이 규약은 강자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정한 것이이니, 이 규약에 따름을 선이라 하며, 이 규약에 불종함을 악이라 한다고 운운한다. 다음은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의 선악관이니 플라톤은 애(愛)와 미(美)와 선(善)을 역설하여, 애는 신인(神人)을 연결하는 바이니, 애는 우리의 정신이 미(美)를 열망하고 연모하여 동(同)은 동(同)을 좋아하는바, 단감(斷滅)치 아니하는 바 욕망을 말함이라고 하고, 미는 우리의 오관(五官)으로 알기 어려운 진리를 말함이니, 정화(整和)한 미술과 같음은 다만 그 전체 모양의 일반(一斑)에 불과하다. 우리가 생전에 천상에서 그 대미(大美)를 접한 기억이 있었으나, 지상에서 육체로 태어남에 이르러 그 미의 관념을 잃은 것이 많다 하였다. 최후 선은 무엇이오. 선은 신(神)이다. 이목에 촉감하기 불능하나 다만 사고(思

考)하여 알 수 있다고 말하여 선악의 표준은 신의(神意)에 합불합(合不合)으로써 정함이 옳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자의 중용설과 같은 의미로 선악의 표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하나는 용기니, 용기는 억겁(憶怯)과 맹진(盲進)의 중용을 말함이요, 그 둘은 절제이니 절제는 쾌락의 과불급이 없는 중간을 말함이요, 그 셋은 혜여(惠與)이니, 혜여는 인색(吝嗇)과 탕비(蕩費)의 중간을 말함 이요, 그 넷은 장대(壯大)니 장대는 호사(豪奢)와 각박(刻薄)의 중용을 말함이다. 그 다섯은 대도(大度)니 대도란 오만(傲慢)과 비굴(卑屈)의 중용을 말함이요, 그 여섯은 명예심 이니 이는 야심(野心)과 성심(誠心)의 중간을 말함이요, 그 일곱은 온순(溫順)이니 온순은 격렬한 감정과 퇴은적(退隱的) 감정의 중간을 말함이요, 그 여덟은 겸양(謙讓)이니 오만불손과 아유승순(阿諛承順)³³³의 중간을 말함이요, 그 아홉은 진실이니 자기가 가진 바를 가졌다 하고 아는 바를 안다고 하여 그 진실을 넘지 아니함을 말함이라 하였다. 또 정의(正義)를 논하여 말하길, 정의는 자기를 위함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 하는바, 사회적 도덕을 말함이니 선악의 표준은 역시 이 애인여기(愛人如己)하라는 박애 정신의 여부에 연계한 행동으로써 판정할 것이라 하였다.

다음은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선악관이다. 스토아학파는 대자연주의에 기반하여 우주는 대법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니, 이를 아는 것은 인생이다. 다만 이를 아는 것에 있을 뿐이 아니요, 이를 생각하여 정신을 고대(高大)케 하여 대신(大神)과 일신동체로 합하지 않음이 불가하니, 대개 만물이 이 신의 대법칙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이상은 우리 인간 역시 그 법칙을 준봉(遵奉)³³⁴하여 신과 함께 정화하며, 또 우주질서에 자기를 던져 우주의 복지(福祉)를 증진하지 않음이 불가하다. 둘이 하나보다 큰 것과 같이 전 우주의 이해는 한 개인의 이해보다 큰 것이다. 고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대사상을 가질진대 우리가 어찌 사소한 사물에 생각을 힘쓸 필요가 있느냐 함이 이 학파의 주장이다. 고로 이 학파의 선(善)이라 함은 신의 대법칙을 준봉함에 있다 함이니, 우리의 생(生)은 우리의 사유물이 아니요, 우리는 신의 소유로써 우주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직무를 갖고 있는 것이니 결코 일신(一身) 일가(一家)의 이익과 행복만 계획할 뿐 아니라 국가, 인류 및 전 우주를 위하여 노력치 아니함이 불가하다고 하여, 즉 세계주의를 부르짖었다. 그런즉 이 학파의 선악의 표준은 우주주의에 기반하여 세계 전 인류의 행복증진에 합한 행위는 선(善)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악(惡)이 된다고 함이다. 이에 대하여 에피쿠로스는 쾌락설을 주창하여 선악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 양주(楊朱)의 육욕(肉慾)

333) 아침하고, 윗사람의 명령을 순순히 좇는다는 뜻.

334) 전례나 명령을 좇아서 받들.

적 쾌락이 아니요 신체에는 고통이 없고 정신에는 번로(煩勞)가 없는 경지를 유지함이나 그 주색(酒色)과 같음은 일시적 육체의 쾌락됨은 명백하나 도를 넘으면 반대로 고통을 수반하는 고로 무엇이든지 절제를 가하여 중용을 유지하여 영구적 쾌락을 계속함에 있다 하였다. 고로 영구적 쾌락은 육체에서 구하기보다 정신상에서 구하는 것이 옳다고 논하여 사회 및 명우(明友)와 함께 쾌락을 공유하게 하여 상호 만족의 뜻을 얻음이 선(善)이라 하였다. 다음은 근대 유럽 윤리학상의 선악관이니, 우선 영국학자 토마스 홉스는 우리가 욕망하는 목적물은 선(善)이요, 싫어하는바 그것이 즉 악(惡)이라 한다. 즉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주장을 시도하였으니, 선악은 만인에게 공통한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요, 국가가 있고 사회관계가 발생한 후에 우리가 경험상에 비추어 권력관계로 인하여 국가나 군주가 정한바 사회적 규약을 표준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학설이 동국(同國)에도 있어 갓도스, 모어, 로크, 간바란드 등이 공격하여 말하길, 선악(善惡)은 군주나 국가의 의지로써 정할 것이 아니요, 영구히 어느 때든지 동일 불변한 인심(人心) 내에 선천적 도덕감이 있어 이에 견주어 판단할 것이라고 주창하였다. 이는 즉 직각설이요, 또는 생유관념론(生有觀念論)이라고 하는 바다. 그 뒤에 로크가 홉스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샤흘버리에 이르러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병립론에 기반하여 인생은 일면에 자기를 이롭게 하자는 이기심도 있음과 동시에 일면에는 박애의 감정이 스스로 존재하여 타인의 행복을 보고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희설(喜說)이 있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에서 일어나는 쾌락감이 인생에 선천적으로 있다고 하여 사회 공중의 행복을 증진하므로 선(善)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밧도라이나 역시 샤흘버리의 설을 인용하고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여 말하길, 인생은 자애심이 있어 자기 일신의 이익만 계획하자는 욕정이 있음과 동시에 박애심도 있어 사회 붕우(朋友)의 이익도 계획하려는 동정심이 있고 이 양자 위에 다시 우리 행위 전체를 통어(統御)하는 양심이라는 최고 심성이 있어 이 양심이 명하는 바를 따름이 최고선이라 말하였다. 다음은 하지손이니, 하지손은 밧도라와 같이 인생에는 박애와 자애의 양 심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덕의(德義)의 성질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는 것에 있다고 주창하였다. 다음은 만데뿔이니 그는 도덕은 지자(知者)의 발명에서 나와 사선(私善)보다도 공선(公善)을 택함이 옳다고 이기주의에 입론하였다. 다음은 흄이니, 그는 공리주의에 입론하여 선악의 표준은 심성의 발휘보다 사회 전체에의 유익 여부로 선악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아담 스미스니, 그는 이익과 불이익을 표준하여 선악을 정하지 아니하고 동정심의 정도로 표준을 세워 양심은 가설적(假說的) 방관자의 감정에 동정을 표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칭찬할 만한 행위를 정해(定解)하면, 공평하여 충분히 사정을 아

는 방관자의 동정을 표득(表得)함에 있는 것을 말함이라 하였다. 다음은 ‘하도레’니, 그는 동정과 박애를 선(善)이라 하였다. 박애의 내용은 인간의 최대행복을 얻게 함에 있으니, 이기주의에 기반한 학설은 절대공격하고, 도덕감에 호소하여 행위를 판단함이 선(善)이라 하였다. 다음은 부라이스, 리드, 스취아드 등의 직각설의 일파이니, 그들은 도덕적 관념은 오성(悟性)에 연유하여 진리를 바로 보고 사물의 본성을 바로 앎으로써 연유하여 얻는 것인 고로,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생유(生有) 도덕감이 있어 정사(正邪)는 행위의 외부적 관계에 의하여 정하고 덕행상의 선악은 내면적 관찰에 의하여 정함이니, 정사를 견별(見別)하여 도덕을 행함은 생유적 도덕감성 및 도리의 힘에 있음이요, 우리의 행위가 행복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는 물을 바 아니라 한다. 고로 정(正)은 우리가 이해관념을 초월하여 정(正)인 고로 취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다음은 ‘칸트’니, 그는 이상의 취지에 의하여 주장을 경진하되, 세상에 선의(善意)만 절대에 선(善)이라 하여 보통 사람에게 선이라 함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쾌락을 얻게 하고 정신상의 쾌락 및 미(美)를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이 선이니 음식, 의복, 가옥 등 우리의 욕망하는 모든 바는 선이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성자제(自省自制)하여 온화, 친절한 것은 모두 선이라 함에 대하여 칸트는 논하여 말하기를, 이들의 제물(諸物)은 그 사물 자신에 선악이 있음이 아니요, 다만 이들을 사용하는바 의지의 선악에 따라 선이 되고 악이 된다 말하였다. 고로 지금 대화(大和)와 대용(大勇)을 가진 자라도 근본 의지가 불선(不善)하면 이는 악마이다. 어떠한 지력과 용기도 다만 선의로 사용하는 곳에 있어야 선이 될 수 있다. 고로 선의(善意)지만 절대적 선(善)이라고 말하는 바이다. 그러면 자연적 선으로 관찰하면 신체에 대한 의식주가 모두 선이 될지나, 덕의적(德義的) 선으로는 의무를 완전히 행하는 의지가 절대의 선이 된다. 의무 이행에는 결코 쾌락을 동반하지 아니하나, 가령 고통이 전에 있어도 의무(義務)이면 행치 아님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니, 그러면 의무는 무엇이요, 의무는 신이 정하신 법칙이니, 법은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이다. 법은 필연적이요, 보편적이 아니면 법이 될 수 없으니, 필연과 보편은 우리의 실험으로 얻지 못할 관념이다. 고로 법은 선천적 생유관념이라 하였다. 그러면 선악의 표준은 우리가 이 선천적으로 생유(生有)하는 도리감(道理感)에 비추어 의무를 다하고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함이 가하다 하였다. 다음은 닷가 및 벼레 등 공리주의론자(功利主義論者)이니, 그들은 인생 행위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니, 행복은 쾌락 및 만족 등을 집합한 것이다. 고로 그 쾌락 및 만족은 혹은 양(量)이나 종류에 있어서 다르나 행복은 하나이니, 신은 공평하여 행복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분배코자 하시는 의사인 까닭에 우리는 신의(神意)에 따라 만인의 평등한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선(善)이라 말하였다. 다음은 헬버쥬

스 및 벤담 등의 설이니, 그들은 말하길, 자연은 인생을 쾌락과 고통 두 군주하에 있으니, 우리의 행위는 그 두 가지의 지배를 받지 아니치 못할지라. 그 왕좌의 삼방(三方)에는 정사(正邪)의 표준이 있고 또 다른 일방에는 원인과 결과의 철쇄(鐵鎖)가 결부하여 이 두 군주는 우리의 사상, 언동 일체를 지배한다. 우리가 쾌락을 취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선악이 판정되나니, 쾌락을 계량함에는 하나의 개인에 두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계량함에 있다며 그 하나는 강도(強度)요, 그 둘은 영속이요, 그 셋은 확실히요, 그 넷은 가까움(近)이요, 그 다섯은 함축한 쾌락의 양이요, 그 여섯은 순수요, 그 일곱은 다수로써 표준을 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호 비교하여 계량해서 쾌락의 총화를 알고 선택을 결정함이 옳다고 말하였다. 또 인생의 쾌락, 고통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네 종류의 재판을 설명하여 말하길, 그 하나는 자연적이니 자연법의 원인, 결과, 법칙에 따름이요, 둘째는 정치적이니 군주 또는 치자(治者)의 상벌(賞罰)이요, 셋째는 도덕적이니 사회의 휘예포폄(毀譽褒貶)이요, 넷째는 종교적이니 신명(神命)의 제재라. 다음은 오스진곤도, 밀, 스펜서 등의 공리주의론이니 말하길, 인성(人性) 중에는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인류 전체를 사랑하여 일신을 희생해 바침으로써 지고(至高)의 선(善)으로 하여 박애심의 발달 및 남을 위하여 생활한다는 습관을 양성하기로 도덕종국(道德終局)의 목적을 삼았다. 고로 인류일체감, 만인동체감이란 의식은 사회적 감정이 발달함을 쫓아 자타(自他)에 상관되는 의식이 더욱 명료케 되면 각인의 행위는 더욱 사회적으로 되어 사회의 이해(利害)가 즉 우리 자신의 이해로 인식함에 이를 터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다시 진화론을 가미하여 스런사는 이와 같이 선악관을 주장하였다. 진화는 천지의 일대이법(一大理法)이니, 각각의 행위의 선악은 이 이법(理法)에의 부합 여부로 판정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행위의 진화라 함은 어떠한 것인가. 행위의 진화는 한층 또 한층 그 목적에 적합함을 말함이다. 고로 행위의 선악을 정함에는 그 행위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할 것에 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목적에 적합하면 선(善)이요, 우리의 목적에 부적합하면 악(惡)이라 하였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제거함에 있으니, 덕의(德義) 그 자체는 결코 행복이 되지 아니하나, 행복을 주는 방편이라 하였다. 경진(更進)하여 그는 인생을 물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생물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관찰하여 이들 여러 과학이 완전하다고 하는 바에 부합하면 인간 행위는 진화된 것이니 즉 선(善)이라 하였다. 다음은 스키분베인, 싯지윳구 등의 학설이 있어 모두 스런사의 설과 대동소이하여 재래 공리주의 학설에 진화론을 가미하여 생물학상 원칙을 응용코자 하여 말하길, 선(善)은 생물학의 법칙에 적합함을 말함이라 하였다. 그러면 생물학상 선은 어떠한 것인가. 생물

학상으로는 생명을 위주로 함이니, 생명은 내부의 관계를 항상 외부의 관계에 적합케 함에 있으며 이를 생물적 운동의 평균이라 칭한다. 내부의 관계가 외부의 관계와 평균을 지킨다 함은 내가 능히 외계(外界)의 반대세력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혹은 나로부터 외계의 사정에 적합케 하거나, 혹은 외계를 나에게 적합케 하거나 하는 법칙을 말함이다. 그러면 결국 인생의 행복은 건강과 쾌락에 있으니, 이 인생의 건강과 쾌락을 얻은바 법칙에 부합함이 선이요, 이에 반대함이 악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까닭에 사회관계에 기초를 둔 윤리학상 선악(善惡)의 법칙으로는 불가하다고 함이 최근 학자의 일치한 언론이다. 우리는 이상에 동서고금의 성철(聖哲)의 선악관을 열거하였으나, 이의 각 설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은 결론에 도달치 아니치 못함을 깨닫노라. 선악의 표준은 무엇인가. 즉 선이라 함은 박애의 정신으로써 진화법칙에 부합한 행위가 완전한 선이요, 최고 최상의 선이다. 선의 내용은 박애의 정신이요, 선의 형식은 진화법칙에 적합한 행동이라. 그러면 이에 반대로 이기(利己)의 정신과 퇴화적 행동은 즉 악이라 한다. 이를 환언하면 박애의 적신(籍神)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박애는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와 같이한다 함이요, 그 사랑이 다만 일가족, 일민족, 일국가, 일사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세계 전인류³³⁵⁾에 미치지 아니하면 박애라 말하기 불가하다. 고로 박애는 반드시 세계일가주의(世界一家主義)요 인류동포주의에 그 기초를 둔다. 고로 박애는 국경, 민족의 차별을 초월하여 범세계 전 인류를 우리의 동포, 형제자매로 인식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는 반드시 타인에게도 이와 같이 베푸는 것이요,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는 결코 타인에게도 베풀지 말라 함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일국가 혹 일민족의 사랑에 편향되어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 물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엄격히 폐쇄하여 타 인종의 이주, 노동의 자유를 제한함과 같은 것은 천하의 토지를 일국가라는 이름하에 사유한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사랑은 비록 지방애, 민족애는 성립할지나 결코 박애라 칭하기 불가하다. 그러면 다음에 진화법칙에 적합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우주 및 인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요, 지금 이후부터 점차로 진보, 향상하는 정도에 있다 함은 고금철학가의 일치한 말이다. 과연 우리는 예전시대부터 지금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진보, 발전이 현저함을 목도하는 바이니, 현재시대보다 미래시대에 일층 진보, 발달됨은 우리 실험상에 비취 명백한 사실이다. 고로 우주법칙의 하나는 점진하고 들은 다시 셋에 나아감과 같이 가령 작은 것은 점차로 큰 것을 이루고 짧은 것은 길어지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열등한 것은 우월해져, 어제보다 오늘에 우월하고 지금보다 미래에

335) 원문에는 汎世全界人類로 표시되어 바로잡음.

한층 더 우월하여 전도가 무한으로 향상 진보함이 이 우주의 원칙이다. 그런즉 선의 행위가 이에 반하여 가령 우리가 부여조(父與祖) 시대에 했던 사업만 고수, 복구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자손시대를 위하여 더 큰 행복을 증진할 아무런 신사업을 창조치 아니하면 이는 진화법칙에 위반하는 바이니, 고로 이는 악이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이상 2대 원칙에 비취 우리의 행위를 이에 합치도록 전심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을지니, 비록 오늘 이후에 선의 형식, 외양은 시대를 따라 각양의 변천이 있을지나 선의 내용, 성질은 만세불역 일정불변할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4. 일한병합관(日韓併合觀)

무릇 일한의 병합은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법칙을 따라 하나는 병탄하고 하나는 침략한 것이 아니다. 금일 세계문명은 이미 생존경쟁을 원칙으로 삼지 않고 상호부조로써 원칙을 확립한 시대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인류는 모두 우리의 동포요, 형제이다. 형제가 서로 담장 안에서 다툼이 부당함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으니 하물며 일(日), 지(支), 한(韓) 세 민족과 같이 같은 예족(裔族) 간에 있어 그리함이 옳으리오.

이와 같이 동근동족(同根同族)은 마땅히 국가의 경영을 공동으로 하며 사회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자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편협한 지방적 인습관념을 탈각하고 마침내 세계³³⁶⁾적 개조정신을 자각하여 인류공동의 행복 증진과 문화의 향상에 공헌함이 윤리계의 대의와 명분에 합당하고 자연계의 생존과 진화법칙에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한병합은 이 주지에 기초한 우애적 정신과 인류공존이라는 윤리계의 대의를 확립함이요, 작은 둘이 합하여 큰 하나를 이루고 미약한 둘은 힘을 합쳐 강한 하나를 만들어 어제의 열세는 오늘에 우세가 되고 오늘의 우세는 내일에 또 우세가 되어 전도무한으로 발전하는바 진화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라 말할지로다. 일본이 과거에 일청, 일러두 전쟁을 위하여 수만 수억의 인명과 재산을 희생한 그 정신이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조선이 자국을 가장 귀중하고 가장 사랑하는바, 국가를 받들어 일본이라는 명칭하에 바치게 한 그 정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는 중(中)·러(露) 양국의 침략을 방어하고 동양평화를 확보하여 자타민족의 공존동영을 꾀한 정의관념이 아니겠으며, 하나는 자기민족의 장래 행복만 생각함에 그칠 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 민족의 공동복지도 자기민족과

336) 원문에는 界가 아니라 '男'으로 표기되어 있어 바로잡음.

같이 위하는 박애정신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이 정의관념과 박애정신 양자가 상호 공명 일치(共鳴一致)하여 평등한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로써 담소하는 사이에 합병을 단행한 까닭이라. 어찌 일국가나 일민족의 야욕과 영예심을 충족함에 있으리오.

그러나 일부 논자 간에 일한병합은 오로지 일본 국가의 존립을 보존하고 일본 민족의 발전을 계획함에 있으니 일본은 본국이고 조선은 식민지요, 일본인은 모국인이고 조선인은 영토에 부속한 신민이라고 본말의 관계와 주종의 차별을 정하여 거의 군국주의자의 승리로 자부하고 제국주의자의 성공을 몽상함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니, 실로 그 불심득(不心得)³³⁷⁾이 심대하여 우리는 무엇으로써 그것을 깨우칠지 모르겠도다.

생각해 보라. 일방의 승리와 성공의 자만적 태도는 일방의 비분과 치욕을 불러일으켜 적개적 행동을 격동케 하는 것 외에 하등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양 민족의 시의반감(猜疑反感)과 증오쟁투(憎惡爭鬪)는 필경 양 민족의 분리와 배치(背馳)를 초래하여 일한병합의 신성한 정신과 광원(宏遠)한 이상(理想)을 몰각함이 심대하니, 어찌 통탄할 바 아니리오. 나는 전하노라. 일한병합은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로써 하나의 신국가를 창조한 것이니, 이의 신국가는 단독 야마토(大和)민족에 한정된 구일본이 아니요, 조선 민족도 마땅히 경영과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신일본이다. 비단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라 일본국민의 적(籍)을 가진 자는 인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편시동일(遍是同一)한 권의(權義)와 자유와 명예와 행복을 공유함이 당연하니, 금일 일본이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됨도 물론 야마토민족의 실력의 우월함 덕분이라 말할지나, 일면에는 조선 민족이 편협한 국가주의에서 이탈하여 박애, 포용적 정신을 이룬 것도 사실인즉, 금일 일본 국가와 민족이 가진바 모든 영광과 복리는 조선 민족과 야마토민족 이외의 국민 일반에게도 공평분배함이 당연하도다. 그러므로 조선 민족도 일본 국가의 경영과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당연히 있음과 동시에 이 일본을 조선인의 국가로 소유하는 이상 이 국가가 날로 융성, 발전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음도 물론이다.

그러면 야마토민족은 반드시 흉금(胸襟)을 크게 하여 차별주의를 철폐하고 일시동인을 여실히 실현하라. 그러한 후에 가히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이 국가에 대하는 충의관념을 양성케 할지오. 조선 민족은 이 국가는 우리의 자유의사로써 우리가 건설한 신국가라고 사유하여 만강(滿腔)의 열성을 피력하여 충성의 태도를 표하라. 그러한 후에 가히 야마토민족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신뢰하고 안심하여 국가 경영의 대임(大任)을 맡기

337) 마음가짐이 좋지 못함. 무분별과 같은 뜻.

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이때를 맞아 소리 높여 야마토민족의 무차별주의를 여실히 실현함과 조선 민족의 충의관(忠義觀)을 대처고소(大處高所)로 보고 신국가에 대한 충의심을 발휘하라고 고창하노라. 그러면 세간에 혹은 구시대 충의관에 기인하여 백이·숙제(伯夷·叔齊)적 충절을 끌어와 나의 말을 반박할 자 있을지나 나는 이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도 백이, 숙제와 같은 인격과 정신에 대하여는 존경을 표하는 한 사람이나, 구국가 도덕이 반드시 이 시대 도덕에 적합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반대로 해독을 끼침이 큰 것은 우리가 전장의 애국심론에 이미 진술함과 같거니와 시대가 이미 백이숙제를 모방할 시대가 아니라. 신국가, 신시대에는 신국가의 도덕과 신시대의 도덕을 기대 하나니, 요컨대 도덕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요 인간 생활상의 일종의 규범에 불과한 것이니, 인간생활의 진보를 따라 도덕의 내용도 진화, 변천하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고로 충의(忠義)는 국가도덕의 일부인즉, 시대의 변천을 따라 충의관의 내용과 형식과 그 의의가 진보, 향상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지금 시대에 적합하다 할 수 없으니, 이에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다. 이상(以上)과 같은 의미에서 일한병합한 신국가는 일선(日鮮) 양 민족이 각기 상호 편협한 지방적 소국가의(小國家義)를 버리고 광대한 세계적 대국가의(大國家義)를 성립한 것이니, 소국가적 자아를 위한 행동이 충의라고 하면 대국가적 자아를 위한 행동은 대충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충의관에도 그 내용가치에 대소심천(大小深淺)의 구별이 없지 않으니 더 큰 생활 내에는 보다 작은 생활이 포함됨이 진리라 할진대 세계적 대국가와 생활 내에는 지방적 소국가의 생활은 자연히 포함할 것이요, 따라서 대국가에 대한 충의는 필연적으로 소국가에 대한 충의를 포함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지방적 국가주의는 국제주의로, 국제주의는 더 나아가 세계주의로 진화하는 시대요, 편협한 민족주의는 박애적 인류동포주의로 진전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삼천 년 고유의 신성한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은 사천 년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고 우리도 그대들과 더불어 삼천년의 신성한 역사를 흠양(欽仰)하고 사천년간 빛나는 역사를 존경하나, 우리가 현재에 창조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비하면 과거의 영광은 하나의 지방적 사건에 속하는 것이요, 하나의 사가(私家)의 기록에 불과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의 현재의 생활은 세계적 생활이요, 인류적 생활이니, 우리가 현재 창조, 노력하는 영광과 가치는 도저히 과거의 지방적, 일민족적 영광과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과거의 역사는 부분적이요, 장래의 역사는 전체적이다. 전체적 광영 내에는 부분적 광영이 포함될 것이니, 우리는 모름지기 이때에 부분적, 지방적 인습, 전통적 역사관과 민족 차별을 타파하고 전체적, 세계적, 인류적, 창조적 생활을 영위치 않을 수 없도다. 우리의 최고 이상이 세계적 대국가를 건설함에 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인류적 행복증진에 있다 할진대 우리가 이러한 이상과 목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함이 구극적(究極的) 진리에 합치하여 진정한 충의에 부합할 대의명분에 합당하고 선악정사표준(善惡正邪標準)에 조응하여 그 참되고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일 일한병합은 일선 양 민족이 편협한 지방적, 인습적, 전통적 생활을 초월하여 세계적, 인류적, 창조적 생활을 향하여 일보 진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도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국가에 충성을 다하라 함은 우리 양심에 대하여 대의명분관념에 호소하고 선악정사표준에 조응하므로 털끝만큼도 치욕을 느끼지 아니하고 배려(背戾)³³⁸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참(眞)되고 선(善)되고 미(美)됨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면 혹은 다시 논하여 말하길, 금일 세계에 산재한 약소민족이 일어나 모두 독립운동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조선인만 제한하여 불가하다 함은 무엇 때문이냐고 한다면 나는 이에 답하노라. 우리도 세계의 약소민족이 독립을 기득(企得)코자 하는 운동에 대하여 많은 동정심을 가진 자로다. 그러나 이는 세계개조 이전에 속한 사상이요, 개조 이후에는 나의 사상도 세계와 동시에 개조되었도다. 내가 기왕에 약소민족을 위하여 그 독립 성공을 은연중에라도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가 등의 무리한 압박과 능멸과 제반 비정의(非正義)와 무인도(無人道)한 악정에 시달리는 참상에서 이를 구출코자 하는 의미로 그리하였도다. 그러나 천운이 순환하여 지금은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식민정책에도 크게 그 정신을 개선하여 상호부조와 공존동영의 원칙에 기반한 정치로 변하였으니, 일시동인(一視同仁), 차별철폐, 공존동영,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미 그 근본 정신이 확립된 이상에는 금일 다소의 불평불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점차 시일이 지나면 머지않아 개선될 줄로 나는 믿는 것이다. 그리하면 약소민족도 강대민족과 차별이 없이 기회의 평등이 실현케 될 것이니 그들의 행복과 영광은 결코 비관할 바 아니요, 이의 실현을 촉진할 방법을 정당한 수단으로 강구하면 족하다 하노라. 그러면 구태여 합성한 대국가를 분리, 산별케 하여 무수한 소국가를 이루면 그 결과 자연히 국방문제 및 기타 국가 체면상 제반 시설로 무용한 인민의 부담만 증가케 되어 반대로 민족 자신의 행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편협한 국가주의, 이기적 민족주의로 타락하여 배외사상이 고취되어 무용한 경쟁열을 야기하여 국제문제를 더욱 분규케 하고 세계 개조의 기운을 지연케 할 염려가 많으니, 어찌 심사숙고할 바 아니리오. 우리는 이에 월슨이 창도한 민족자결주의에 대하여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월슨의 민족자결이라는 의의는 그 정체(正體)가 과연 무엇인가. 그 글자의 의미와

338) 배반되고 어그러짐.

같이 그 민족에 한하여 일국가의 건설을 종용함인가. 과연 그렇다면 일면적 이유는 없지 않다. 언어가 동일하고 역사, 문화가 동일하고 풍속, 습관이 동일하니 단결, 통일에 편할지요, 그렇지 않은 잡박(雜駮)³³⁹⁾한 민족의 상호 결합에는 많은 충돌과 곤란이 수반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면적 이유에 기반하여 현재 세계에 있는 약소민족으로 하여금 일민족에 한한 일국가를 형성케 하면 그 결과 무수한 약소국의 분립이 격발하여 현재 소위 대국가의 파멸, 또는 내란이 초래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소수의 국가 간 국제문제에 많은 부조화가 발생하여 타협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하물며 다수의 국가가 발생케 되면 반대로 정치상³⁴⁰⁾ 경제상에 무용한 경쟁을 야기하여 현재 당면한 국제문제 이상의 어려운 제반 국제문제를 야기할 화종(禍種)을 남기는 것이다. 고로 나는 생각하니,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그 정신이 결코 현재의 대국가를 파열 교란케 함에 있지 아니하고 약소민족으로서 강대국가에게 연래로 당한 각종의 압박으로부터 해방, 구출케 하자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군국주의 국가에 있는 약소민족 등을 구제하고 전후(戰後)에 하나의 임시적 시국 수습수단에 불과한 것이요, 결코 이것이 만세불역의 근본 원칙이며 진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개 인류의 진화과정은 개인아(個人我)에서 사회아(社會我)로, 사회아로 국가아(國家我)로, 국가아에서 더 나아가 인류아(人類我)로 향상, 확대하는 것이 법칙이요 순서이다. 이는 인류 문화의 향상을 따라 박애 정신의 보급과 사회적 경영 능력의 확대를 의미함이니, 오늘날 대국가를 형성한 여러 민족은 모두 편협한 민족아(民族我)를 초월하여 대국가아(大國家我)에 진화한 만큼 그들의 사회 경영하는 능력의 진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니, 이와 같이 모처럼 대국가를 경영할 만큼 자가 능력이 확대, 진보한 것을 소국가의 분립으로 인하여 종래의 능력을 축소, 퇴보케 함이 어찌 진화법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박애 정신의 퇴축(退縮)이 아니라 하리오. 이에 우리는 금일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약소민족은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해 결합하여 대국가의 건설을 계획함이 옳고 기성(既成)의 대국가에 이미 참여한 민족은 특히 국가의 분리독립을 계획함보다 다른 진화적 방법으로써 강대민족의 압박을 방어, 제재할 방법을 강구함이 옳다 하노라. 금일 약소민족이 강대민족에게 압박을 받는 원인은 그 문화와 실력의 정도가 열등한 것이 대 원인이라 할지니, 이의 구제책은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문화와 실력을 증진하여 강대민족과 동일한 정도에 이르도록 계도(計圖)함에 있다 하나, 이를 계도함에는 기회의 균등을 얻지 않음이 불가하고 기회 균등을 얻고자 하면 먼저 그 소속국가에 대한 참정권을 획득치 아니하면 불

339) 산만하여 통일성이 없음. 조잡함.

340) 원문의 '정활상(政活上)'은 '정치상(政治上)'의 오키로 판단되어 바로잡음.

가하다. 고로 정치상, 사회상, 경제상 각 방면에 있어 기회 균등을 얻음에는 우선 참정권 균등 행사(行使)부터 얻은 후에야 가능할지니, 오늘 이후로 세계에 대국가로 존속, 발전을 도모하려면 재래와 같은 소수한 특정계급이나 한두 민족에 한한 특권적 정치제도로는 도저히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제재하기 불가능하며 또는 그 제재하는 이유가 성립하지 않도다. 만약 인류 공존동영, 상호부조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민족의 차별과 문화의 우열을 자구(藉口)³⁴¹⁾하여 참정권 행사에 일시동인을 실현치 아니할진대, 이는 개조 이전 세계와 호리(毫厘)의 차이가 없어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동물계의 법칙으로 다시 어그러지고 퇴보함이라. 이로써 군국주의, 제국주의 시대가 출현하여 약소민족은 강대민족의 노예적, 기계적, 동물적 생활에 타락하고 말 뿐이니, 나는 아무리 박애심과 포용성이 풍부하더라도 저 군국주의의 노예가 되며 제국주의의 기계적 희생에 함께할 만큼의 아량은 없도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세계 대국가는 이에 비추어 그 소속국민에게 반드시 일시동인적 무차별주의의 정치제도를 실현할 날이 멀지 않을 줄로 확신하는 바이다. 이는 세계적 대정신이 이미 상호부조, 인격존중이라는 원칙하에 확립한 것을 확신할진대, 그 결론은 필연적으로 이에 도달치 아니치 못할 것이니, 금일 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이 주지에 기초하여 동일한 해결책을 취하고자 한다. 나는 과거의 일본이 군국주의요, 제국주의인 것은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일본의 정신이 인종평등안을 창도한 일본이요, 국제연맹에 일원이 된 일본이요, 워싱턴군비 축소협약에 참가한 일본인 것은 확실히 알았도다. 그리하면 국제정의를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기초한 일본이 결코 전전(戰前)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변화할 나라가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혹은 금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제도로 취급하는 정책을 지적(指斥)³⁴²⁾하여 말하길, 과거의 유럽 제국이 이민족 간에 행한 패악무도한 식민정책을 대조하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본 이상은 오늘 이후 조선의 문화와 경제가 진화, 발전하더라도, 그 정신이 일본인을 본위로 삼은 이상은 결코 조선인의 행복은 안중에 없다 하여 앞날을 자못 비관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노라. 무엇 때문인가. 시대는 이미 구시대와 달라 일본이 예전 영국이 아니요, 조선이 예전 인도가 아니다. 금일 영국의 인도, 기타 식민지에 대한 정책도 전전과는 그 정신이 크게 달라져 상호부조, 공존동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을 혁신코자 하는 경향이 현저하며, 기타 제국도 물론 그러함이 사실이다. 가령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취급하여 정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코 구 영국의 실패한 시대역전의 악정을 시행할

341) 구실이 될 만한 핑계를 댈. 또는 그 핑계나 구실이라는 뜻.

342) 웃어른의 언행을 지적하여 탓하는 것을 뜻함.

이유가 만무하고, 일본이 이와 같이 악정을 시행코자 한들 이미 시대가 불허함에 어찌하리오. 하물며 일선병합이 세계 대세의 추향에 적응하여 세계적 정신발휘와 박애, 인도, 정의의 실현을 위주로 하는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양 민족의 공동국가로 경영하고 있는 금일이리오.

그러나 우리도 현재 정치제도는 일종의 과도시대현상(過渡時代現象)에 그치는 것이요, 결코 영구불변할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 이의 개선은 단순히 당국자에게 일임할 바 아니요, 우리 국민 된 자도 책임을 각각 나눠 가지는 것이 옳다 하노니, 우리의 정견을 발표하여 헌의(獻議)³⁴³⁾ 혹은 경성(警省)³⁴⁴⁾ 혹은 여론 환기 등의 정당한 수단으로써 국민된 권리행사와 의무, 직책을 다함은 어느 누구도 이의(異議)할 바 아님을 믿고자 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선 민족의 행복은 모두 일본 국가와 분리, 독립함이 최상책이라 하여 이미 달성한 국가를 파훼, 분열, 또는 미약케 함과 같은 수단을 취하고자 함은 소위 뿔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를 죽이는 것과 같으니, 이 어찌 우리의 본의라 하리오.

그러면 혹은 논박(論駁)하여 말하길 여러분의 말이 이론으로는 그러하나 사실은 크게 부당하니, 가령 금일 일본인을 대하여 무차별주의의 실현을 촉구한들 이것이 과연 실현 되겠으며, 또 당국에 대한 헌의나 경성과 같은 것은 당국이 한 문장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겠으며, 더욱이 여론 환기와 같은 것은 치안방해라는 법령 하에 즉시 제재를 받을 따름이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할 자유가 있겠냐고 하여 나의 말을 단순히 공론(空論)으로 볼 터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나도 논자와 같이 금일의 현상을 부인코자 함이 아니요, 과연 우리의 부자유와 불편을 절감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의 신장과 자유의 확충을 도모하여 크게 획득치 않을 수 없으니, 나도 이 점에 대하여는 논자와 같이 그 수단, 방법을 강구코자 하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수단, 방법을 택함에는 반드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함이 옳다 함이요, 결코 무이해한 맹목적 복종을 강제함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가 일고(一考)를 요할 것이 있음은 당분간은 조선인의 독립열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은 시대인 고로, 혹은 우리의 무의식적 행동에 대하여도 당국이 다소 색안경을 쓰고 유의미(有意味)하게 됨은 현재 주위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나온 것이요, 결코 당국도 압박을 좋아하여 압박을 가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양해할 필요가 있다. 고로 우리의 부자유를 탄식하기보다 먼저 이와 같이 부자유한 현상에 이르게 한 그 근본 원인부터 생각하여 이의 교정(矯正), 구제

343) 윗사람에게 의견을 아뢴다.

344)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

(救濟) 방법을 강구함이 사실상 하루라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케 하는 촉진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금일과 같은 현상은 일시에 그칠 것이요, 결코 영구히 지속될 것이 아님을 단언하고자 하노니, 왜 그런가. 시대의 진화와 인문의 발전은 결코 일시라도 고정침체(固靜沈滯)를 불허하고 전도부단(前途不斷)하게 향상, 진보됨이 원칙인 이상 당국도 대세의 추이와 인심의 추향을 살펴 이에 적응하도록 그 정치도 개선에 또 개선을 가함은 당연한 순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일시적 현상에 대하여 비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일본 정치 그 자신도 지금의 대세로 보면 관료주의에서 점차로 민주주의로 진전하는 과도시대이니, 머지않아 보통선거 운동의 실현을 볼 것이며, 보통선거가 실현되면 조선인의 참정권 행사도 필연적으로 실현케 됨은 명약관화하니, 금일 다소의 불평이 있기로 어찌 이에 대세를 무시하고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을 그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도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몽상하는 자 없지 않아 일한병합을 일본인 본위로 생각하여 민족적 차별관에 입각하여 조선 정치를 논하는 자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편견을 가진 자 부류와 구식 사상가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수 민중 내에 소수 존재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이 시대 낙오자와 폐물적 인생은 도저히 세계대세의 변천 여하를 모르고 시대역전의 자존대과(自尊大誇)하는 태도는 흡사 지구(地球)의 원(圓)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지금껏 천원지방(天圓地方)³⁴⁵⁾을 미신함과 같으니 그 편견누식(偏見陋識)을 누가 비웃지 아니하리오. 이와 같은 무리의 주장이 결코 일본현대의 민심을 지도하거나, 여론을 움직일 능력과 가치가 없음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는 바이니, 우리가 따로 거론할 가치도 없거니와 조선인 동포는 왕왕 이와 같은 무리의 주장을 중시하여 일본 자체의 정신까지도 오해코자 하니, 이는 일찍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러나 대세의 추이는 이미 그 무리의 말로를 촉진케 할 뿐이니, 점차로 이와 같은 무리의 그림자는 잠멸될지라. 조선 동포는 당분간 이목에 불쾌한 감정론이 있더라도 결코 경해(驚駭) 또는 낙망치 말라. 무엇으로써 그러한가. 우리는 세계 대세를 믿고 일본의 정의적 정신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하다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신념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이후로는 일본 민족과 상호 제휴의 방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장래 일본의 중견 인물이 될 신진사상가와 최우수한 식견가로 더불어 그들과 함께 협의하며, 상보하며, 상조하여 신일본 국가 경영을 맡김이 옳다 하니, 조선문제 해결에도 결코 조선인 단독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진실로

345)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남을 뜻함.

일본 국가에 관한 문제는 그 대소를 막론하고 아마토민족과의 충분한 양해와 동정과 협조를 얻지 아니하고는 불가한 시대에 이르렀으니, 금일 조선동포는 이에 유념하여 매사를 경영함에 아마토민족과 더불어 한다는 대세의 관찰과 민족 간 상호부조라는 윤의적(倫義的) 관념에 기반하여 재래와 같은 반국가적 태도는 이때에 마땅히 일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선 독립을 계획하고 자치를 부르짖으며, 참정권을 요구함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독립, 자치, 참정권 그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이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조선 민족의 행복증진에 있음이 주요점이 아닌가. 이미 목적이 조선 민족의 행복증진에 있다 하면 그 수단, 방법으로 독립을 최의(最宜)라 하며 혹은 자치나 참정권을 최적(最適)하다는 것은 일종의 정견에 불과함이 아닌가. 독립 자치 참정권이 이미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을 도달케 하는 수단, 방법 되는 일종의 정견에 불과하다면 조선 민족의 행복을 증진하자는 동일한 목적 하에 그 수단, 방법을 택하는 정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써, 혹은 자신의 의견만 충(忠)으로 자임하고 타인의 의견은 역으로 배척하여 와우각상(蝸牛角上)의 쟁투³⁴⁶⁾로써 능사로 여기고자 함은 어찌 그 편견을 가련타 아니하며, 그 좁은 아량을 타매(唾罵)³⁴⁷⁾할 바 아니리오.

우리가 편시동일(偏是同一)한 조선 민족으로서 물론 어떠한 일을 경영하든지 자가(自家) 민족의 항구 행복을 위해 도모함은 병이성(秉彝性)이 있는 인간인 이상은 어느 누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조선 민족의 행복을 위한 목적은 대개 이와 같은 모양이나, 그 목적을 도달케 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소양(宵壤)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목하(目下)의 정세로 보아 도저히 내용(內容)과 외계(外界)가 함께 불허하는바 독립운동에 열중하여 공연히 무용한 인명, 재산의 희생만 발생케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일선 양 민족의 질시와 반감을 조장하여 끝내 도저히 흡수키 불가능한 지경을 만들어 반대로 자기 민족의 불행을 초래케 할 뿐인 수단을 취코자 하는 것이라. 다른 하나는 국가의 병합을 기정 사실로 시인하고 이의 국가를 조선 민족의 토태로 하여 장래로는 이 국가를 우리의 이상과 목적에 합치하도록 개조하여 세계적 경영에 맡기며, 현재로는 우선 가능성이 있는 방면부터 우리의 실질적 행복을 증진하는 실익, 실리, 실무에 노력, 분투하고자 하는 수단이라. 우리는 매사를 서두르지 않고 함에 반드시 그 사리의 난이순역(難易順逆)과 이해득실을 고찰하여 그 선후본말의 순서와 경중을 오인하지 않음이 옳으니, 동포 제군은 이때에 마땅히 목전의 감정이해와 인습, 정실을 초월하여 장래

346) '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은 달팽이 뿔 위의 싸움이라는 뜻으로, 세상에 쓸데없는 싸움이나 하찮은 일로 다투는 일 따위를 이르는 말.

347)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경멸하여 욕함.

의 영원한 행복과 광영에 착안하여 민족 장래의 운명을 심모원려(深謀遠慮)³⁴⁸⁾치 않음이 불가하니, 재래의 태도를 이때에 일변하여 금일으로써 정치의 하나의 전환기로 세워 신국가의 의식에 각성하고 신국가 사명에 자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다. 그러나 이 원고를 끝냄에 이르러 이에 야마토 동포에게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의 일선병합관은 이와 같이 현상은 평원하고 그 목적은 심대하고 그 의의는 풍부하고 그 가치는 고귀하고 그 영광은 도저히 일민족에 한한 일국가의 영광과 동일하게 논할 수 없다. 목하의 조선인의 생활과 문화 수준의 빈약저열(貧弱低劣)이 과연 어떠한가. 세계의 낙오자임은 물론이요, 야마토민족이 낙오되는 것이 자못 큰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그러면 조선인을 신일본 신국민으로 완성케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조선인을 자연적 진보과정에 방임해 둔다면 도저히 십 년, 이십 년으로는 야마토민족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 고로 성공할 수 있는 대로 이를 최대한 속보적인 향상방법을 강구하여 비상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빈부강약의 차별이 현격하여 동일한 국민 간에 있어서도 우승열패의 법칙에 따라 강자는 더욱 강하고 빈자는 더욱 빈하여 끝내는 일대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앞날에 실로 우려할 바 있을지니, 이때에 야마토민족은 조선인에 대하여는 비교적 그 권리는 중후하게 주고 그 의무는 가볍게 요구함이 가하다 하도다. 이것이 비록 일면으로 보면 불공평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외관상의 불공평은 내용상의 균등과 평화를 가져오는 바니, 현대 복잡한 정치현상은 결코 구시대와 같은 단순한 법이론의 해석, 또는 주반적(珠盤的) 타산에만 사로잡혀 목전에 피편계적(被偏屈的) 수속절차론이나 사소한 이해, 감정 또는 인습, 정실에 얽매어 국가 백년대계의 영구한 계획을 잊음이 불가하도다. 조선인이 불가능한 독립을 요구하는 그 근본 원인의 주요점은 조선인도 세계인과 같이 생존과 영광을 욕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니, 위정자는 모름지기 이러한 인심의 기미(機微)를 관찰하여 그 근본원인을 천착하고 그 교구방법을 강구치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조선인이 참정권과 같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하거든 이를 즉시 실시함이 옳은데, 혹은 인민의 실력 정도가 어떠한가 하며 혹은 단순한 법 이론과 일본 유신 초에 어떠한 순서를 거쳤다 하는 인습관에 농침(籠蟄)하여 당연히 부여할 바도 지지부진하게 지연함과 같은 태도는 민심으로 하여금 날로 시의(猜疑)³⁴⁹⁾와 분리를 조장케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고로 우리는 이와 같이 비상한 시기를 맞아 편협한 법 이론이나, 이해, 정실, 인습에 구애치 말고 모름지기 파격적 과단과 천공해활적(天空海濶的) 정책을 펼쳐 조선인에게

348) 먼 장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움.

349) 시기하고 의심함.

도 대의사(代議士)는 물론, 국무대신 또는 외국의 공대사(公大使) 같은 중임(重任)까지도 단연코 믿고 임명하라. 그러한 후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야마토민족과 진실한 형제된 자각과 동일한 나라의 백성된 영광을 환희케 함에 이르게 할지로다. 관공(寬宏)한 흉도(胸度)와 해활적 태도와 포용적 아량이 없다면 비단 일선인의 용화라 하며 능히 신국가를 이끌고 장래 신세계 경영을 담당할 자격의 그 유무부터 의심치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위정자에 대한 요구와 비평과 논란을 능사로 삼을 바 아니요, 마땅히 우리의 실력이 이에 도달하도록 각반의 노력과 분투를 요하나니, 우리는 이에 이 논고를 마감함에 있어 우선 금일 조선 동포의 실력을 가급적 최대 급속도로 적어도 야마토민족과 같은 정도까지 진상(進上)케 할 필요를 고갈(高喝)함에 그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나도 다소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후일에 논고를 고쳐 경론하려 하노라. 하여튼 우리의 일선병합관은 상술함과 같이 세계적 정신과 인류적 의식에 기초한 박애정의의 실현이요, 생존진화의 법칙에 조응하여 순응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라. 인생의 최고 이상과 궁극적 목적에 합치한 국가의 통일은 천의에 부합한 인류사회적 경영능률이 확대, 증장(增長)된 표현이요, 민족의 합체는 신명에 따른 박애, 평등, 자유 실현의 초보적 시동이니, 일선 양 민족 된 자는 마땅히 이 천의신명(天意神命)을 체화하여 더욱 상제상휴(相提相携)하고 인류 동포주의에 기초한 박애, 정의의 실현과 인종 평등주의에 기반한 무차별 일시동인의 제도의 건설과 민중 자유주의에 기반한 제반 기회 균등의 확립에 대하여 세계 어느 국가, 또는 어느 민족들보다도 최선최우한 모범적 국민 또는 민족이 될 자부와 그 사명에 자각하라. 세계적 행복과 문화에 공헌함이 없으면 국가의 병합과 민족의 합체는 다만 일개 지방적 사건에 그치며 하등 의의와 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할지니, 일본과 조선 동포는 오로지 여기에 염원을 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라.

〈이상 (2)〉

5. 신국민의 사명

우리는 앞서 일선병합(日鮮併合)은 일선(日鮮) 양 민족이 평등한 권리와 자유 의사로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였다 전하였으니, 이 신국가는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의 정의관념과 조선 민족의 박애정신이 일치 단합한 결정체이다. 따라서 신국가의 정신은 박애와 정의에 기초하였으니, 일선 양 민족은 마땅히 이 신국가의 정신을 본받아 반드시 전 세계의 영원한 평화와 모든 인류의 행복 증진과 범문화의 최고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 공헌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국민의 사명으로 인류애를 실현하여 세계의 영구평화를 기해야 하고, 세계 평등의 대 원칙에 의한 기회 균등을 확립하여 전 인류의 행복을 꾀해야 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의 자유를 보호하여서 문화의 극치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그 기본 원칙으로 우선 다음의 4대 근본책을 제창하는 바이다.

제1은 군비전폐(軍備全廢)의 실현이다

워싱턴의 군비축소협약은 그 성격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불철저하여 해군에만 한 하고, 육군은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10개년 기한으로 겨우 태평양 일대 지방에만 일본, 미국, 영국 사이에 일시적 완충적 평화보장에 불과한 것이니 이 또한 있는 편이 낫다고 하면 그렇지만, 세계대국으로 보자면 영원하고 철저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을 일종의 직업적 계급으로 본다면 수백, 수천만의 유능한 청년들을 비생산적 전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인도적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백해무익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처럼 비인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이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다시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있다. 따라서 이미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국가들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사랑하여, 국제연맹을 조직하며, 군비축소협약을 실행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때에 백척간두에서도 다시 일보(一步)를 전진하여 해군과 육군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이들 국가가 먼저 주장하여 그 실행 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함이 가하다 하노라.

제2는 최상국가의 건설이다

오늘날 국제연맹은 의결권은 있으나 집행권이 없는 것이 최대 결점이다. 저 미국처럼 자국의 헌법에 맞지 않다 하여 탈퇴를 성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능력과 실력이 없으니, 그 능력과 실력이 없는 국제연맹은 유명무실한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각국에 과연 국제문제를 힘의 지배, 법의 지배를 대신하게 할 정신이 있다면, 전세계를 법률적으로 조직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세계를 법률적으로 조직하고자 한다면, 국제재판의 권위를 확립해야 하고, 국제재판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자연히 각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각 국가가 현재와 같이 절대 자유의 주권을 고집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자 한다면, 이 세계는 영원토록 무정부상태에 방치되는 것이며, 무정부 시대에는 법보다 힘이 만사를 지배

함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영구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기약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국가 이상의 최상 국가를 두고, 이 최상 국가에만 절대주권을 부여하여 먼저 세계 각 국가가 법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힘이 소용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 이처럼 최상 국가가 건설되면 현재 각 국가는 자연히 연방제도로 점차 나아가는 단계를 만들어 다소 격하되는 감이 없으나, 전 세계의 영구평화와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희생을 함이 불가피하다. 더 큰 생활 내에는 더 작은 생활이 포함됨이 진리라면, 우리가 세계적 대 국가들도 사용하지 않는 경쟁을 단절하고, 무리한 폭력의 지배를 벗어나고, 공평한 법의 보호를 받아 각자의 영원한 생명과 발전을 얻는 근거임을 깨닫는다면, 어찌 약간의 희생을 피하리오. 하물며 국가 자신의 궁극의 목적이 이에 있는 바이리오.

제3은 인류 대의원(人類代議院)의 조직이다

오늘날 국제연맹에는 몇몇 강대국이 맹주를 점하고, 그 나머지 약소국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무용하다. 가령 이번 근동쟁의(近東爭議)로 보아도 소국 측 대표는 이를 연맹 총회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주장하였으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소위 대국 측 대표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니, 원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 쟁의는 모두 국제연맹이 이를 처리할 것을 규약 제11조에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대국가의 사정으로 인해 자유행동에 대해 조금도 이를 구속할 권한이 없다. 이처럼 국가의 강약(強弱)에 따라 의견을 말하는 우열의 차가 있어 진정한 연맹의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우니 이때에 세계를 통해 인종평등의 대원칙에 근거한 균등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세계인의 진정한 동정과 협조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일은 세계인이 공동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고 민족을 단위로 하여 각 민족이 일정한 할당 수에 따라 대의원을 선정하게 하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세계 각 민족을 망라한 하나의 의원(議院)을 조직하고 이 의원이 세계 각 국가, 각 민족의 여러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니, 세계인의 협의 및 입법기관으로는 현재의 연맹 대표자는 그 성질부터 민주와 교섭하지 않는 자니 이때에 이를 철저히 개선하여 세계민중의 완전한 의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제4는 문호개방, 기회균등의 확립이다

전 세계를 통한 문호개방, 기회균등의 확립은 국제연맹규약 전문에 쓰여진 세계평화의 대원칙인데, 중간에 저 미국이 편협한 감정으로 '먼로'주의를 삼입한 것은 우리에게

평생 유감이 아닐 수 없는 바이다. 세계 어떤 토지를 물론하고, 참으로 인간이 있는 곳은 진실로 모든 세계인의 토지요, 결코 한 국가나, 한 민족만의 토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공존동영(共存同榮)을 꾀하는 것은 천지간의 원칙임을 무시하는, 미국과 같이 함은 처음에는 자기가 솔선하여 국제연맹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르러 편협고류(偏狹固陋)한 지방적, 인습적 먼로주의를 고집하여 인민의 이주 및 노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종 차별을 엄수(嚴守)하여 이기, 배타, 고립, 비협동주의로 떨어진 것은 진실로 세계인에게 유감과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 건국 초기의 그 신성한 정신을 회고하며, 다시 독일, 러시아, 터키 등도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그 완성에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료의 공평과 분배요, 둘째는 시장의 공개요, 셋째는 인민 이동의 자유요, 넷째는 노동 자유의 보장이다. 세계평화는 세계인 공존주의(共存主義)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에 있고 공존주의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바다. 이는 국제연맹 회의에 이탈리아가 열심히 창도(唱導)한 바나, 결국 성립되지 않은 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요컨대 현대인의 공실(功實)한 요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생존권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기회균등실현에 있으니, 이는 단지 한 국가, 또는 한 민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요, 실로 세계적인 큰 문제로 세계인이 주의해서 연구해야 할 긴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신국가의 사명으로 이상의 4가지 근본책을 주장하였고, 부수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상설(常設)과 그 집행기관으로 국제 경찰군대의 편성과 관세 철폐와 화폐 통일과 편협(偏狹)한 국가주의에 기초한 교과서 개정과 세계어 장려와 이민족 잡혼(雜婚) 장려와 동서사상의 조화 및 기타 국제문화 또는 구제사업 등 무수한 필수조건이 있겠지만, 이는 우선 4가지 근본책이 확립한 후에 점차 부수적 실현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요컨대 세계의 평화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다른 것도 물론 이와 같이 근본책의 실현이 이후 몇 10년간의 짧은 시간에 완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아무튼 인생에는 평화를 이상으로 동경(憧憬)하고,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만인 공통의 성질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이상은 세계평화에 두고, 그 목적은 인류행복에 두지 않으면 안 되니, 이 이상 목적에 가능한 접근, 도달하도록 노력, 분투하는 그 생활에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 흔들리는 정평

(淨萍)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아무런 이상과 동경(憧憬)과 목적과 포부와 분투와 노력이 없는 생활은 인생의 생활이 아니요, 금수(禽獸)적 생활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과도하게 이상을 좇고, 헛된 공문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 말라. 비행기 발명 전에 사람의 몸으로 조류(鳥類)와 같이 하늘을 비행하는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공상망념(空想妄念)을 좇는다고 비웃었겠지만, 실제로 비행을 자유자재로 시연(試演)하는 오늘날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가능(可能)을 믿고 인생의 지력(智力)을 당연한 발달로 생각하여 보통 늘 있는 일로 여긴다. 오늘날 인문(人文)의 수준이 낮은 정도(程度)에서 세계 항구(恒久) 평화를 계획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현재 세태(世態) 인심(人心)에 비추어 도저히 그 불가능함을 역설할지라도, 원래 사람의 본성에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보편적, 본능적 정감(情感)과 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현은 다만 그 시기의 빠르고 늦음 문제에 달려 있고, 결코 영구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류 진화 역사에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다. 돌아보면 전에는 그리스도, 공자(孔子), 석가(釋迦), 소크라테스 등의 성현(聖賢)이 모두 이 이상을 위하여 노력, 헌신하였고, 지금은 세계의 식자(識者) 계급이 또한 이 완성을 각 방면에서 계획하는 시대이므로, 이미 평화의 서광(曙光)은 모든 땅에 비쳤으니, 어찌 우리 개인의 독단적 공상(空想)으로 돌리리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의의와 현재의 대세를 이하(以下)에 진술하여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놀랜엔젤이 수년 전에 대환영(大幻影)이라는 글을 써서 말하기를, 침략정책이 오히려 침략국에 해롭기만 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는 아무리 배상금을 많이 받더라도 침략국 자체에 이익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막대한 상금을 받으면 물가가 폭등(暴騰)하게 되고, 물가가 폭등하면 무역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 산업계의 동요와 쇠퇴를 초래할 뿐이라. 또한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한꺼번에 막대한 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금융의 부족으로 구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 영향이 자국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는 영토의 획득이 반드시 획득한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다는 것이니, 영국 식민지의 대부분은 사실상 영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독립국과 차이가 없으며, 외국이 통상(通商)상 영국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영국을 이롭게 하고 그 외 아무런 특별한 경제적 이익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영국은 정식으로 식민지를 해방, 독립시키는 비용을 줄이는 만큼 그 이익을 가질 뿐이라 하였다. 셋째는 전쟁은 부(富)를 깨뜨리니, 승패를 떠나 오히려 국방에도 항상(恒常) 손실을 의미할 뿐이라 하였다. 근래 국가의 경제상 상호 밀접한 관계는 타국을 해(害)하고 자국만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관계를 역설하였다.

이상(以上)의 주장은 물론 전부 따르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어떠한 모두에게 손실이요, 결코 승리국의 이익 독점에 이르지 않음은 이번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오스트리아보다 영국, 프랑스 등의 경제공황에 나타난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쟁과 침략이 이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한 각 국가, 각 민족이 이후 국제간 이해 감정의 충돌을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조금이라도 해결방법을 강구(講究)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첫째, 전쟁에 반대하는 굉장한 중심세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유럽 노동계급의 비전적(非戰的) 각성(覺醒)이니, 노동계급은 군벌과 자본가 등을 비난하는바 애국심의 가면을 쓴 국가, 우리의 소리에 거짓으로 세계평화를 위하고 정의인도(正義人道)를 옹호하고 민족 생존을 위한다고 믿어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자식을 차가운 참호(塹壕)에 매장(埋葬)한 그 전쟁의 결과로 맺은 평화조약은 그들이 기대한 바와는 정반대이며, 평화와 정의와 민족을 위한다는 전쟁은 결국 소수 자본가와 군벌(軍閥) 및 정치가의 양갈음과 야심(野心)과 이기욕(利己慾)을 위한 일종의 사기 수단의 전쟁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얻은 바는 오직 실업과 생활의 어려움뿐인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원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는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 이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내려온 편협한 국가주의 교육에 희생되어 국방을 위해 가혹한 세금을 피하지 않고, 전투를 위해 혈세(血稅)를 기꺼이 낸 자이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꿈을 크게 깨뜨려 '우리 노동자는 무엇을 위하여 전쟁하는가' '우리들 노동자는 사해(四海) 동포 형제가 아닌가' '형제가 서로 죽여 자본가의 배를 살찌우고, 야심가의 사욕을 채울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하고 절규(絶叫)하게 하였다. 전에는 정부에 전쟁을 좋아하는 군벌 야심가가 있고 민간에는 전쟁을 이용하는 자본가가 있어, 전쟁의 기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바, 이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이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것이 되었으니, 이는 과학의 진보로 병기(兵器)가 발달하고 교통 및 운수가 편리해져 이미 자본과 병력뿐만 아니라 공업 및 노동의 힘이 중요해져, 즉 전쟁이 공업화 노동화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전쟁은 자본가 및 군벌이 아무리 전쟁을 원하더라도 병기(兵器)를 제조하고 운수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열강의 노동자가 연맹 제휴하여 전쟁에 반대하면, 결코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함이니, 예컨대, 몇 해 전에 영국이 러시아 과격파 토벌을 위해 전쟁을 개시(開始)하고자 하였을 때에도 영국 노동자가 연합하여 러시아 출병 반대를 결의하고, 해운노동자는 한 명의 병사도 러시아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당국자도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번 터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전쟁 반대로 인

해 당국의 곤란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상(以上)에서 우리는 전쟁이 종전대로 군벌 및 자본가의 의사에 의해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전쟁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각 국가는 안으로는 개인적 생존경쟁으로 인해 계급투쟁이 생기고, 밖으로는 국제 경제적 경쟁이 더욱 심하여 즉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시경제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맹렬(猛烈)한 경쟁을 야기하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미 어떤 나라처럼 자본적 제국주의 정책을 세우고 풍부한 자본력에 의지하여 세계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니, 유형적(有形的), 기계적(機械的) 전쟁은 유한적(有限的), 국부적(局部的), 일시적(一時的)으로 인명을 죽이는 데 그치고 무형적(無形的), 경제적 전쟁은 무한적(無限的), 전체적(全體的), 영구적(永久的)으로 세계인의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저 강대국가가 이들의 두려워할 만한 자본적 제국주의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필연적 형세로 약소국, 또는 약소민족(弱小民族) 등의 연맹을 유도하여 이에 대해 저항, 방어, 제재하는 운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큰 주의를 하여 그 구제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세계대전이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니 어찌 두려워할 바가 아니리오. 대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꺼려 피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없다. 인생의 생명은 우주생명과 유기적으로 연락(連絡)한 실재이니, 우리는 반드시 그 본원적 생명을 자각하여 사회적으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돕고, 공존동영(共存同榮)의 균등한 기회를 확립해야 한다. 환언하면, 우주 및 인생은 하나의 큰 유기체(有機體)이니, 우리의 생명은 이의 근원됨을 자각하여 이 생명의 충실한 발달을 도모하고 그 자유와 희열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른바 철학에서 생명육의 충족이라 하는 것이요, 이른바 종교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생명의 완성이라 할지니, 생명의 완성은 즉 인격의 완성이라는 의미와 같다. 인생의 보통의 모든 목적 중에 그 궁극적 목적은 인격의 완성에 있고, 인생의 보통의 모든 이상 중에 그 근원적 이상은 생명의 완성에 있다. 이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여 그 발전과 완성을 기도함이 정치, 경제, 사회 그 외, 여러 문제의 귀착점이 될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국가나 사회의 그 존재의 의의를 이룰 수 없고, 그 가치가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에 알맞게 좋은 환경을 부여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즉 평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에 좋은 기회를 주는 수단이므로 그러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이 의미에 상반하여, 한 국가나 한 민족이 인류 생명의 보존과 발전 및 완성에 필요한 도의(道義)를 무시하고, 자기자아주의에 빠

저 강권(強權)으로 이익을 탐하고, 공존동영(共存同榮)의 원칙에서 어긋나, 주인이 노예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함과 같이 약자가 강자에게 앞에서만 순종하는 이율배반적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일시적 힘의 강약으로 인해 복종하는 것이니, 아무 때나 복수, 반항, 분쟁의 소지를 가진 잠시의 침묵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즉 이와 같은 평화 상태는 우리의 생명 완성에 대해 아무런 의의와 가치가 없는 평화이니, 우리가 요구하는 인격 존중이라는 정신에 입각한 평화가 아니면 안 되고, 국제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혹은 이와 같은 의미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혹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논하여 말하기를, 저 워싱턴이 미국 독립을 위한 전쟁과 저 링컨의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과 같은 것은 정의, 인도(人道)에 적합한 정당한 수단으로 찬양할 만하지만, 우리는 워싱턴, 링컨 등의 정신과 목적의 신성(神聖)함은 어디까지나 흠양(欽仰)하는 바나 그 수단으로 동포가 동포를 살해하고, 사람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수라(修羅)³⁵⁰⁾ 상태를 한시라도 만들어내는 것은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미래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가령 아무리 그 목적이 좋고, 그 정신이 신성(神聖)하더라도 그 취하는 수단이 열악한 이상 이미 그 정신과 목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이유로 옛 성인이 적을 사랑하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힘을 눌러 법으로서 하고, 악을 대함에 선으로 하라 함이다. 전쟁은 힘을 힘으로 누르고, 악을 악으로 갚는 수단이니, 옛 성인이 악을 선으로 대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애적(愛敵)의 실행을 위해 희생에 공헌한 그 고귀한 태도에 비하면, 워싱턴과 링컨 등이 취한 수단이 반드시 가장 좋고 가장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문(人文)의 수준이 낮은 과거에는 그들이 취한 전쟁이라는 수단도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로 수천만 인격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 확립하게 되었으니, 물론 그 공적은 오랜 세월 사라지지 않을 바이다. 그러나 그 공적 모든 은혜는 과거에 속한 바요, 과거에 공적이 있는 수단이라고 하여 반드시 현대 및 장래에까지라도 적합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인류 진화 법칙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가령 저 편협한 애국심이 과거에는 국가의 유지,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을 낳았으나, 현대에는 오히려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각종 폐단을 낳는 것과 같이 과거에 공적이 있었던 수단이라도 현 시대에 이용하여 반대로 전보다 더 큰 폐해를 낳게 되면, 어찌 이를 취하리오. 우리는 마땅히 신시대에 처해서는 신시대에 어울리는 개조 수단을 따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신시대

350) 아수라.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

에는 저 전쟁이라는 비참한 야수적, 파괴적 수단을 피하고, 평화적, 인도적, 건설적 수단에 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에 의지할 것인가, 또는 칸트의 비협동주의에 의지할 것인가, 또 한편 레닌의 이른바 과격사회주의에 의지할 것인가. 하나는 인도주의에 합당하나 종교를 떠나 사회적으로 보면 현대인의 사상을 초월하여 잘못하면 소극적 비활동,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서, 현대인 활동에 합당하지 않은 바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에 긴요하나 너무 편협한 지방적 인습과 관념을 사로잡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배외사상(排外思想)이 농후하니, 세계일가(世界一家) 인류협동주의에 배치(背馳)되어 현대세계 개조정신에 적당하지 않은 바이오. 또 그 하나는 경제산업정책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나, 물질적 법의제도(法儀制度)에 너무 고착(固着)하여 윤리적, 정신적 방면을 무시하고, 파괴는 잘 하나 건설에는 뒤떨어져 현대인의 희망하는바, 물질과 정신 양 방면의 조화완미(調和完美)를 동경하는 문화적 큰 이상에 배치(背馳)되어 도저히 현대사상을 지도할 가치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즉 우리는 이들 주의(主義)를 취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이 실로 현재의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내려오는 여러 폐습(弊習), 전통적 제도와 괴이하고 과격한 사상을 버리고, 다시 친구주의(新舊主義)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실제적, 현대적으로 박애(博愛), 인도(人道)에 적합하고, 활동진취(活動進取)에 좋은 합리적, 적극적, 진화적, 평화적, 인도적, 건설적인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여 신시대, 신인(新人), 신사상을 지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외람되게 이상의 4대 근본책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 실현방법에 대해 다시 여러 시대에 알맞은 신발견에 대해 세계인이 연구, 발표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바로다. (끝)

〈출전 : 高義綏 余의 新國家觀(1~3), 『時事評論』 4~6호,
1922년 8월 15일, 9월 15일, 11월 15일〉

10) 고희준, 관동지방 진재(震災)에 대한 감상

(1) 세계 각 국민의 동정

관동진재의 보(報)가 한 차례 해외에 전함에 세계 각 국민은 매우 경악하여 일본에 대한 동정은 용연(湧然)히 집주(集注)하였다.

미국 동양함대는 대련(大連)에서 관동(關東)장관을 방문하여 구원의 임무를 신청하고, 그후 미국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출동을 명할 뿐 아니라 대통령은 특히 교서(敎書)를 내려 국민적 의금(義金) 각출(釀出)을 권유하며, 선박을 거두어 구원 재료 수송에 대신 사용하는 등 동정, 우조(友助)의 아름다운 정을 열심히 발휘하였으며, 영국도 중국 함대에 대해 일본 구조 출동을 명하였고, 국민 일반의 의금(義金) 모집에 착수하여 대부분 큰 금액을 모았다 하며,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여러 나라도 의금(義金) 혹은 선박(船舶)으로 구조 재료를 운송 중이라 하며 중국(支那)도 방곡령(防穀令)을 철폐(撤廢)하여 일본 구조를 위한 미곡을 운송하게 하며, 막대한 의금(義金)을 모집 중이라 하며, 러시아, 프랑스 양국도 조의(弔意)를 표하기 위해 활동사진 및 연극의 흥행을 정지하여 반기(半旗)를 거는 등 순진(淳真)한 우조의 아름다운 정을 드러내어 실로 사해동포인류(四海同胞人類)라는 일체감을 낳았으니, 이처럼 이 세계는 인류애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일본 국민도 이에 답하기를 오직 물질적 원조에만 감사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격려와 감동을 받음이 적지 않아 안으로는 전국 관민 모두가 일치협력하여 부흥 사업에 열중하는 태도가 매우 역력하다. 이때에 정우회(政友會), 헌정회(憲政會) 등 각 정당도 반대주의의 내각임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부흥사업원조의 성명을 하는 등 실로 이번 잔재 일본 국민의 사치, 붕당, 이기, 교만 등 오래된 폐습(弊習)은 모두 없애버리고, 검약, 호조(互助), 애인(愛人), 겸손, 인내 등 미덕을 육성할 굉장한 시련의 때였다. 과연 그렇다. 지금 일본 국민은 유사 이래 미증유의 대천재(大天災)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휘어지지 않는 금강심(金剛心)을 발휘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부흥사업에 용왕분투하는 쾌거(快擧)를 보게 된 우리는 일종의 일본 국민적 대 시련의 기회를 주시는 천의(天意)에 감사의 마음이 발동하는 것은 왜인가. 우리도 이재민 및 사상자에 대해서는 세계인과 함께 많은 눈물을 삼키고, 어떠한 말로 위로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국난의 때를 당하여 어찌 다만 무위비애(無爲悲哀)의 소극적 자세로 세월을 헛되이 쓰겠는가.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는 자연법칙이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천지법칙이 변하지 않음은 체관자약(諦觀自若)하여 오늘날 과학의 수준이 낮음을 개탄하며 다른 나라의 자연계를 정복할 학술을 몇 배로 연구하는 것과 같지 않고, 아직 생존한 다수의 동포가 어떻게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 몸을 던져 노력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연후에야 천재(天災)도 능히 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인사(人事)의 화를 바꾸어 복에 이르는 비결도 배울 바이다. 과연 그렇다. 지금 일본 국민은 거국일치하여 이와 같은 재변(災變)에 직면해, 옛날 이상의 대부흥을 기대하며 착착 그 일에 대한 관(觀)이 현저함으로써 우리는 실로 일본 중흥의 호기회(好機會)를 받은 것이라고 전하는 바이다.

(2) 비인류적 행동자를 증오함

이처럼 미증유한 대참경(大慘景)을 다한 수라장(修羅場)에서도 사람이 불행한 틈을 타서 야수와 같은 강간, 절도, 상인(傷人), 방화 등 각종의 폭행을 드러냈다 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로 망연자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인 중에도 이와 같은 악행을 한 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귀를 막고,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괴통탄(自愧痛嘆)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무리를 어찌 사람이라 칭하리오. 우리는 무엇으로 피해자를 위로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다행히 조선인 중에도 100명 남짓의 노동자는 무료로 진재지(震災地) 구호에 자원(自願)으로 종사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 우리는 무릎을 치고 기쁨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이처럼 일비일희(一悲一喜)하였으나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람이 불행한 틈을 타 이기비욕(利己肥慾) 또는 폭행을 감행하는 자가 이 세계에 있으므로 현재에 감옥, 경찰의 필요를 인식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무리는 실로 인류 사회의 공통된 악적(惡敵)이요, 문화 진보의 큰 장애물이요, 문명국의 수치의 산물이다. 우리는 하루라도 이러한 비인류, 무인도(無人道) 무리의 절멸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적으로 정신교육기관의 시설 확장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3) 인류상애(人類相愛)의 아름다운 정을 발휘하라

인류상애의 요구는 현재 소극적 태도에서 점차로 적극적 태도로 전진하는 모습이다. 적극적 노력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인류를 일체로 만드는 유기적 조직을 포함에 있으니, 혼돈한 무정부상태를 벗어나 질서가 있는 유기적 사회를 건설함이다. 즉

힘의 지배를 바꾸어 도리(道理)의 지배를 받게 함에 있으니, 대표사상은 최근에 있는 국제연맹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이 국제연맹도 매우 불완전하여 도저히 우리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음은 물론이니, 우리는 국제연맹이 국가를 표준하기보다 민족을 표준하여 각 민족의 대표자로서 일대 인류 대의원(代議院)을 설치하고, 세계적 입법을 맡게 함이 가장 유효한 바라고 평소부터 주장해왔다. 사람들이 모두 전쟁이라는 비참한 구습을 싫어하고 평화와 상애(平和相愛)라는 낙원을 동경하는 심정이 있음은 만국민의 공통된 감정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류의 근본적인 동경을 요구하는 감정에 근거하여 인류사회의 항구평화(恒久平和)는 인류애의 정신을 고취, 장려함에 있다고 하는 바이니, 오늘날에도 세계 각 방면에 불안의 파동은 상존, 불식함이 사실이라 할지나, 이렇게 언제까지라도 한정 없이 상호 쟁투할 때는 승패 간에 결국 서로 피해를 입을 뿐이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자각할 날이 도래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현대인이 물질 생활 방면으로도 이처럼 세계와 긴밀착중(緊密錯綜)한 관계에 있음은 사람들 모두 공화(共和)한 사실이다. 오늘날 관동지방 진재인(震災人)의 피해가 오직 관동지방 인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일본 전 국민에게도 심대(甚大)한 파급을 미칠지니, 물질 관계로만 보더라도 어찌 우리가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리오. 세계대전 후 경제의 영향은 세계인이 많거나, 적거나 직접, 간접의 구별은 있을지라도 그 여파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과 같이, 동경 지방의 진재도 결코 일국부시(一局部視)할 수 없음은 동일한 국가 내에 동일한 이해를 공통한 국민적 관계상 어찌 조선인의 물질 생활에도 관계가 전혀 없다 하리오. 그런즉 우리의 물질 생활방면으로만 봐도 사건이 매우 중대하거든, 하물며 인심의 미묘한 파동, 즉 정신상 방면으로도 또한 그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를 모두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적 조직으로 전진(轉進)하는 이 기운(機運)에 처해 타 국가, 타 국민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조선인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경우에 있거든, 하물며 동일한 국민 간의 이해휴척(利害休戚)을 동일하게 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가 어찌 관동지방 진재를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리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신속히 관동지방의 부흥을 위해 심축(深祝)하는 바요, 일반 인심의 안정도 속히 그 도(途)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조선인도 일제히 힘을 다해 구제에 성의를 포함은 물론이요, 다시 나아가 부흥사업에 있어서도 응분(應分)의 진력을 기울이는 것이 동일한 국민의 의무요, 인류상애(人類相愛)의 공도(公道)라 할 것이다. 근간 각 방면에서 이에 대한 의금(義金) 모집을 권유하는 단체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의(意)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동포는 정신적, 물질적 양면으로 희생적 결심으로써 가슴 속에 가득 찬 성의를 표하라. 우리는 다시 말

하노니, 이때에 유산자(有産者)는 물질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무산자(無産者)는 물질로 충분히 성의를 표하기 어렵거든 우리 조선인 동포의 심적 방면을 개척하기 위하여 인류에 정신의 고취와 거국일치(舉國一致) 사상 및 그 행동의 훈육에 힘을 다해 공헌함이 가장 유효한 봉공(奉公) 됨을 잊지 말라 하노라. (1923년 9월 10일 씀)

(출전 : 高羲駿 關東地方震災에 對한 感想, 『時事評論』 2권 5호, 1923년 9월 15일)

11) 김의용(金義用), 참정권에 대한 우리의 의식

생명의 보존과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본연적 충동은 인류 사회의 공동생활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가장 명확한 궁극적 원인이 되었고도다. 우리가 각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환경에서 모든 침해를 제거하여 절대적 안전을 유지하지 아니치 못할 것은 생명을 받은 자의 필연적 요구이니, 이는 인류사회의 존재를 인식하는 공동생활의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각 개인의 근본 권리라. 생존의 실체인 생명권이 사회의 공동생활을 성립케 하는 근원이므로 모든 인간의 활동은 모두 생존권의 안전한 기초상에서만 정립되는 것이다.

인간 활동의 전부를 통틀어 연장하는 생명, 그 자체를 사회의 공동생활에서 서로 인식한 것이 곧 생존권이므로 생존권을 확충하며 발전하는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우주를 상징하며, 세계를 인식하며, 인생을 관조하며, 따라서 그 외의 삼라만상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곧 사회의 존재를 인식하는 전제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의 이치라.

사회생활에서 공인(共認)한 인류의 생존권을 밖으로부터 어떠한 침해 없이 안전히 보존, 발달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결합하여 사회 심리가 되며, 사회도덕이 되며, 마침내 견고하여 뽑을 수 없는 사회력(社會力)을 형성하는 것이니, 그 생존권에 대한 사회력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각 사람이 여러 가지 단결 행동을 고집함은 이면으로는 각자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가 아직 야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개시대에는 약육강식하는 자연계의 이법(理法)이 때때로 인류생활의 안전을 위협하여 하늘이 준 생존권을 옹호하는 사회력의 보

장이 매우 미약하였으나, 인류의 진화와 사회의 발달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사회력의 공고(鞏固)를 도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어떤 민족적 사회권(社會圈)과 지역을 한정하여, 그 중심이 될 만한 통솔자에게 모든 권력을 모으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지배와 복종의 관계하에서 사회적 공동생활의 안전을 꾀함이 가장 좋은 방식임을 자각한 끝에 국가라는 최고단체를 조직함에 이른 것이로다.

국가란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최초로 성립된 국가제도에 있어서는 일국을 통솔하는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한동안 인류 각자의 안전과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이지(理智)와 감정과 의욕은 자연 진화의 법칙에 의해 단순에서 복잡으로, 저조(低阜)에서 고상(高尚)으로 쉼 없이 향상하는 결과, 인간의 천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쟁심과 정복욕은 군주에 있어서는 자기가 얻은 지위와 권력을 공고(鞏固)하게 할 의도로써 당시의 제도상 결함을 구실로, 혹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몽매(蒙昧)한 인민을 기만하여 권력의 연원을 신과 억지로 비교하는 소위 왕위천수설(王位天授說)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인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강압적 사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인민에 있어서는 이지의 교활을 이용하여 자기보다 어리석은 민생의 인권을 유린하여서 각각 자신의 안일을 탐하는바 소위 귀천노주(貴賤奴主)의 계급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당시는 전제(專制) 국가와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다.

사회적 공동생활에서 각자 생명의 안전을 얻고자 하여 결성된 국가적 단체가 역전하여 오히려 인민의 생활상 안전을 협박하는 사실을 경험한 인류의 의식은 마침내 각자의 천부(天賦)의 생존권을 보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요구로 인해, 다시 국가의 조직을 개혁하여 사회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그 안전을 보장하며 장래를 발전시킬 가장 확실한 사회적 결합력의 대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일대 운동의 산물이 곧 입헌적 의회정치제도라.

입헌적 의회제도에 의해 성립된 국가가 인민의 공동생활을 보존, 발달시킴에 최고 권위를 가진 사회적 법률의 형식으로 받아들여 제정한 것이 소위 성문헌법(成文憲法)이니, 즉 일국의 근본 법률이라. 이 국헌(國憲)의 권위에 의지해 국가의 강녕과 인민의 복지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문명제국의 향유(享有)한 바 국가조직이로다. 이러한 국가 조직하에서 생활하는 인민으로서 각자의 생존권을 확충하며, 발전함의 유일한 보장을 얻음은 그 절대적 권력을 군주 한 사람의 전재(專裁)에 방임하지 아니하고, 의회라는 사회적 결합체에 부여한 형식에 있느니라. 예를 들어 전술한바 최초로 성립된 전제적 봉건시대의 국가에서 받던 생활의 위협을 입헌적 의회제도를 채용하는 현대국가에서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 입헌적 의회제도로부터 표현되는바 치법(治法)기구에 참가하는 권리를 보류

함으로써 현대인은 각자의 생존목적과 사회생활의 도정(道程)을 이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로다.

무릇 인류가 생존의 목적을 성취함에 가장 좋으며, 또 편리한 방법을 생각해 내고 설정한 국가조직이 도리어 그 목적과 모순되는 전제정치체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생활상의 고통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여 입헌정치체제로 개조한 현대문명 국민으로서, 그 국가를 향해 인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근본적 기초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은 입헌적 의회제도의 설립 취지를 보건대 당연히 발생할 사실이라. 이것은 전제정치시대의 일반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견지(見地)에서 2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으니, 하나는 국가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요, 하나는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정치기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소위 국법상으로 본다면, 전자는 사권(私權)의 인정이니, 즉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소유의 권리 등이요, 후자는 공권(公權)의 인정이니, 즉 중앙과 지방의 국회의원 선거 및 피선거의 권리, 의회 투표의 권리, 관리 등용의 권리 등이라. 그리고 이 공권을 칭하여 인민의 참정권이라 말하며, 그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일반 참정의 권리 중 가장 중대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권리의 연원은 원래 사회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였으나, 서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침해하지 아니하는 엄격한 보증하에 각자의 생활의 안전을 피하게 됨은 입헌적 국가조직이 성립된 이후라. 오늘날에 있는 우리의 모든 권리는 국법(國法)에서 그 연원을 발하였나니, 일본제국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바는 행위청구권(行爲請求權), 자유권, 참정권의 3대 권리라.

헌법상에 설정된 이 3대 권리는 설사 총회의 권력을 권 정부일지라도 아주 작은 침해를 허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관인 정부로서는 더욱 인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현대 입헌제도의 특색이로다.

이상적 정치생활을 동경하는 문명국민의 심리는 인민의 모든 계급을 통하여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됨을 최고 목적으로 하는 바라. 오랜 역사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인은 그 축적되고 세련된 경험적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의식의 치열한 표현으로 더욱이 3대 원리의 구체화에 의해서만 인류생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뼈에 사무치게 느끼는 바로다.

소재(所在)에 착중한 총진(總全)의 사조는 그 신앙하는바 주의주장의 관철을 위해 취하는 수단방법의 정도에 혹은 과격하며, 과격하지 아니한 차이 등이 있을망정, 그 본질에 공통한 정신에 이르는 자유, 평등, 정의의 3대 관념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현대사조의 경향으로 세계적 공통사상을 구성한바 위의 3대 요소는 우리의 사회생활을 지도하는 근본 원리가 되었도다.

사람의 마음의 근저에 스며든 이 3대 관념이 적용되어 정치에서는 정치의 민중화를 외치며, 경제에서는 산업의 민중화를 외치며, 사회에서는 사회의 민중화를 외치며, 문예에서는 예술의 민중화를 외치게 된 것은 대세를 좇음으로써 각 개인이 능히 억제하며, 저지하지 못할 세계적 세력임을 의식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세계적 사상의 구성 요소인 자유, 평등, 정의의 3대 원리가 인류 사회의 공동 생활을 지도하는 최고 목표가 되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사이일지라도 이 목표를 향하고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여 손을 마주 잡고 기뻐하는 기세가 현저하게 된 오늘날에 동일한 국가 내에서 어찌 민족의 이동(異同)과 문화의 현(軒口)으로써 사회생활의 근본 원리를 무시하리오.

이것을 일본제국의 현상에 비추어보면 조선 산하에 살고 있는 1천 7백만 신민(臣民)은 가장 엄정(嚴正)한 의미에 있는 헌법상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였다 말할지니, 즉 입헌국민의 특색인 의회에 참여하는 중대한 공권(公權)을 결여함이 이것이라. 대개 새로이 복속된 인민에게 참정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이 차별의 이유는 다만 정치 사상과 문화 수준이 낮음으로 돌릴지니, 우리 조선에 살고 있는 신민일지라도 정치사상의 보급과 문화 수준의 승격(昇格)을 따라 조만간 헌법상의 3대 권리를 완전히 얻을 날이 도래할 것은 필연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바라.

경제사회에서 균등한 이득의 분배를 요구함은 오늘날 20세기 이래의 정의 관념이고 정치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의 분배를 요구함은 과거 19세기 이래의 정의 관념이라. 현재 전 세계의 문명국 민족보다 약 2세기 2백년간이나 늦어 입헌적 권리 획득의 첫 목소리를 낸 것은 우리 조선 민족이라. 이미 낙오된 자기의 저능(低能)을 반성하여 실력의 양성을 격려함은 내부에 속한 일이고 문명의 제도를 모방하여 입헌적 권리의 균등을 추구함은 외형에 속한 일이라.

또한 사물에 대해 관찰할지라도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내용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사물의 이치(事理)가 명하는 바를 따라서 열성으로 참정권의 분배를 요구함도 결국 외형을 얻은 후에 내실을 채우고자 하는 의미에 다름 아니도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열은 노력의 과정에서 희망의 빛을 붙잡아야 하며, 오직 노력의 과정을 동정하는 위정자의 도량과 애타(愛他)의 심천(深淺)이 한편으로는 운명의 장래를 신축(伸縮)하는 원동력이 되며, 한편으로는 희망의 앞날을 측정할 바로미터가 될 뿐임을 자각할 따름이로다. (끝) 1922년 2월 11일 원고

(출전 : 金義用, 參政權에 對한 吾人의 意識, 『時事評論』 창간호, 1922년 4월 15일)

12) 김의용, 정치적 신앙의 파악

- 현대 위정자에 대한 요망

무릇 국가 활동의 기관을 장악한 위정자로는 근대적 정치 조직의 특색인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하여 헌정의 합리적 운용, 즉 환언하면 국가 의지를 결정하는 입법부와 안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와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정부의 협력 공동을 통제하는 중추 기관이 되는 바, 그러한 이유가 일반 국민의 목인과 긍정을 배경으로 하여 모든 국정(國政)을 요리하는 명예와 권능을 얻음에 있는 것임을 스스로 감식(感識)하여야 하리라. 일국의 현명과 선량과 정영(精英)³⁵¹⁾을 대표하는 위정자로서 갖추고 있는 바 자격의 연원(淵源)이 일반 민중의 정치적 신임에서 발생한 것이란 의미로서, 그 정치상의 지위와 권위를 일반이 존경하며 따라서 스스로 그것을 존중하는 자중심(自重心)을 반기(伴起)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정자의 국가 통제력이 이러한 상대적 관계에서 유지되는 도리(道理)를 반성할 때에 자기의 공적 생활인 정치 행동이 얼마나 의식이 있으며 또 책임이 중한지를 자각할지라도.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만 인식되는 위정자의 지위는 동시에 인민의 여론에 입각해야만 그 이상적 포부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한 줄 믿을진대, 위정자의 정치 활동의 근거가 될 자기 인격의 본성인 도덕적 자각을 견지(見地)할지니, 바꾸어 말하면 민중의 기탁(寄託)에 대한 충성과 정무(政務)의 집행에 필요한 공정(公正)이 책임 관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표준이 될 근본 원리의 지도를 자율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리라. 다시 이를 요약하면 지식을 정돈하는 자율적 범주와 행동을 제약하는 도덕적 자각과 개성을 발휘하는 인격적 자유의 통합 작용을 말함이다.

개성과 지식과 행동, 이 3대 요소의 포함과 통일이 위정자의 자격조건이 되어야 비로소 정치 활동의 기본이 될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니, 위정자의 전인격(全人格)적 의식에서 구성되는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정치기관을 운영, 통제하는 곳에 자기의 이상이 국가의 목적과 일치됨을 깨달을지라도. 원래 국가의 목적은 국민 전체상에 표현된 이상을 떠나서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요, 국민 전체의 의향이 위정자의 이상과 부합하지 않으면 일국의 정치상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저간의 소식을 들어서 충분히 알 것이로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향 즉 국가의 목적이 위정자의 전인격적 의식에 의해 구체화되는 미묘한 관계를 이해함에는 정치 현상을 드러내는 정치적 활동의 유래(由來)하는 바 정치적 신념의 파악으로서 위정자의 인격적 의식 내용이 이러한

351) 정예롭고 뛰어난 것.

자율적 근본 원리에 근거해 통일되었는지를 해부 분석하여, 인격의 본원인 개성의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의 결합량을 견주어 보는 동시에, 그 사회적 환경의 객관적 보편성을 인식하는 수용력을 따지는 데서부터 그 진상을 포착(捕捉)할 것이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위정자가 스스로 부여한 성격의 당위성과 포용한 지식의 타당성의 통합 상태, 다시 요약하면 위정자가 소유한 인격적 자각이 시대의 정신에 어울리는가의 여부를 관찰하면 곧 명답(名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고상하고 원대한 이념의 목표를 쫓아가는 도정(道程)에서 위정자의 인격적 표현이 정책 시설의 형상을 취하여 연속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민중의 삶과 죽음, 편안과 근심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문제이므로, 위정자의 정치적 신념의 확보(確否)를 논함은 민중 자신의 운명을 반성하고 헤아려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일반 민중이 정치 기관을 운영하는 위정자에게 인격적 자각과 정치적 신념의 확립을 요구함은 결국 민중 자신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함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위정자의 자격조건인 인격의 내면적 파악 즉 그 정치적 신념의 본질을 추구함에 앞서 먼저 일반 민중의 정치 이상을 천명하여 그 요구와 방향의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결과 발생하는 보편적 타당점을 포착함으로써 위정자의 인격적 자유에서 나오는 도덕적 자각을 규범화하는 동시에 그 규범적 사실이 곧 위정자의 사명이 되며 책무가 되나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위정자의 이상과 포부는 일반 민중의 요구와 방향이로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의 정치 이상을 구성하는 근거인 시대의 대세를 따라 객관적으로 나타난 주의사조(主義思潮)의 선택이 그 정치적 신념의 근본적 지도 원리가 되나니, 이제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진리에 의해 파악한 세계관과 숭고심원(崇高深遠)한 이상에 의해 형성된 인생관과 시대의 정신 및 인생의 목적에 순응하는 도덕관을 종합한 문화개념을 기조로 하여 이상적 정치생활의 표준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정치의 문화적 가치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다. 그리고 세계관의 파악과 인생관의 수립으로 현실의 결합과 착오를 개조, 혁신하게 함에 구체적 동기를 주는 것은 실로 도덕적 자각의 마땅한 작용이로다.

위정자의 자유 인격과 일반 민중의 정치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는 현대정치의 의의로서 상술한 것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위정자의 정치적 신념의 보수적 태도와 진보적 태도로 나누어진다. 이 경계에서 방향의 결정 여하가 일반 민중의 생활상에 드러나지 않은 암흑과 광명, 위협과 안정의 운명을 점칠 전환

점이 되나니, 즉 우경(右傾)의 태도를 가지고자 하면 근대적 정치조직을 전제(專制)시대에 환원하는 결과를 도출할지며, 좌경(左傾)의 태도를 가지고자 하면 현대의 정치조직을 개조 혁신하여 신시대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경적 방향에 의함은 보수의 태도요, 좌경적 방향에 의함은 급진의 태도이니, 모두 극단에 치우친다는 변증(辨證)하에 절충적 태도의 온건함을 주장함에 이르러 비로소 위정자의 정치적 신념의 표준으로 하여금 현상 유지적 점진주의의 방향으로 기울지 아니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도다. 그 이론적 근거는 원래 전설과 습관의 타력(惰力)은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인과율의 연결 고리이므로 역사적 발달의 과정에서는 신구(新舊) 양 세계를 연결하는 과도기의 존재를 긍정함이 정치생활의 법칙이니 현대에 사는 위정자의 태도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스스로 절충적 방향에 따르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란 신념을 고집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헤겔' 변증법에 의해 승인된바 발달의 원칙이요, 문화의 원리이니 인류 사상의 조류는 이러한 선도(旋道)를 따라 무한히 연속하는 까닭이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 원칙은 인간 생활의 실상을 다만 논리적으로 귀납한 하나의 개념적 법칙에 불과함이니, 요컨대 인간의 생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보편성의 비판적 태도 그것의 내면적 파악일 뿐이요 그 원리원칙에 기초해 일반 민중의 사회적 의지의 결합력으로써 사조(思潮)발달의 선도를 전개하는 자율적 능동적 태도 그것의 존재를 감각(減却)하였도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시대에 순응하는 일면만 인식하고 시운(時運)을 촉진하고 개전(開展)하는 다른 면을 한각(閑却)할 태도로다.



오늘날 위정자의 정치적 신념과 태도가 반면적(半面的) 시대 순응주의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으므로 그 구체적 활동의 징표인 정치 현상은 항상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의심하며, 은근슬쩍 넘겨버리고, 분명하지 않으며 사라져 없어질 뿐이요, 어떠한 효과도 문화적 생활 가치에 기여하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사물의 이치의 한 부분만 관찰한 소위 시대순응주의를 정치 활동의 근거로 하여 정치 기관을 운전하며 민중의 생활을 통정(統整)하고자 하면 결국 시대의 정신과 역행하며 대세의 흐름과 배치되는 모순을 야기할지니, 도저히 일반 민중의 정치적 요구와 방향을 대표하는 정치적 신념의 소유자라 이르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위정자의 인격적 본성이 부족한 무자격자(無資格者)임을 증명하겠도다. 그러므로 시세를 철저히 관찰하며 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위정자가 가진 바 시대 순응의 근본의는 일반 민중의 정치적 의향을 존중, 대표하

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를 가진 위정자의 시대순응주의는 일반 민중이 요구하는바 시운의 개진적(開展的) 태도를 조장하는 곳에서 그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위정자의 시대순응주의는 즉 일반 민중의 시운개진주의(時運開展主義) 그것이므로 이 두 표어는 정치적 태도의 전모를 다른 곳에서 관찰한 결과의 이어동의(異語同意)에 불과하니 위정자의 시대순응주의와 일반 민중의 시운개진주의(時運開展主義)는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상관적으로 협조병진(協調竝進)할 정치적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와 신념에 의한 그 정치적 활동을 국가의 사명으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에 해조공명(諧調共鳴)하게 하는 이상적 정치생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상(以上) 정치 생활의 필연적 요구인 그 방향과 태도의 윤곽을 묘사하며, 매우 희미한 정도로 정치적 신념이 귀의(歸依)할 인격적 본성을 제시하였거니와,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 생활의 근본 요구인 구체적 방면이 어디에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시대순응주의와 시운개진주의의 병진적 실제 행동의 대상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하면 이는 일반 민중의 정치에 대한 자유 비판의 객관화를 요구함이 이것이니 그 자유 비판의 보장은 언론의 자유를 용인함에 있으며, 객관화의 보장은 여론의 귀추(歸趨)를 결정함에 있다. 또한 언론이란 것은 내면적으로 파악된 생활 가치의 객관적 논증이요, 여론이란 것은 정치 생활상 유일의 가치 규정을 수행하는 것이니 즉 정치생활의 내면적 가치를 언론으로 확증하며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생활상 언론은 공공적 활동의 한 표현으로 절대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나 만약 위정자로서 정치적 신념의 착오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화의 가치와 생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파괴함이요 또 인권의 유린과 인격의 박멸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위정자의 이러한 태도는 벌써 정치의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요, 생활의 본의를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이다. 위정자와 민중 사이에 연속된 상호적 관계는 이로부터 파열되며 마침내 정치적 파탄을 양성함에 이를 것이니, 그러면 정치적 파탄을 전제로 하여 아무리 정치 활동을 임시로 계속하고자 할지나 어찌 그 위정자의 포부와 이상이 예상한 것과 같이 일반 민중의 생활상에 실현될 수 있으리오. 이것이 실로 위정자로서 인격적 자각과 정치적 신념의 확립이 필요한 일대 근본문제로다. 사적 발달의 과정에 있는 정치사상의 변천 추이를 잠깐 보더라도, 이러한 정치적 파탄이 생길 때마다 정치 조직의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없었도다. 최근 기록된 세계사 중 프랑스혁명,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중국혁명, 러시아혁명 등은 가장 현저한 증거로다.



현대의 여러 국가는 과거의 역사적 교훈에 의거하여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입헌대의 정치체제를 만들었으므로 전제시대(專制時代)의 전설인 차별과 제한을 어떤 계급에 해방하여 권리의 평등과 경쟁의 자유를 인용하였다 할지나, 인격의 평등과 언론의 자유에 이르는 절대적 보장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이에 있는 정치 발전의 단계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분하면, 초기 제1단계에서는 '민(民)은 의지하게 할 것이요 알게 하지 말라'하는 관념이니 이는 한편으로 보면 절대복종의 관념이요 다른 면에서 보면 전제압박의 관념이다. 문화의 역사상으로도든지 장차 또 개인의 생활상으로도든지 가장 수준이 낮은 시기로서 민중의 개인적 자각이 일어나지 못한 시대에는 벗어나지 못할 자연적 단계이로다. 다음 시기 제2단계의 발달은 최근 약 20년간을 연속한 단계로 즉 '민은 알게 할 것이요 행동하게 하지 말라'는 관념이 지배하였도다. 이제야 우리의 정치 생활은 '의(依)'라는 관념에 '지(知)'라는 한 요소를 더하여 일반 민중은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 정치 생활의 객관적 이해를 얻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단계가 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진보의 정도를 보였다 할지로다. 그러나 민중이 어떠한 인격적 자유와 그 자각을 갖지 못한 점에서는 전 단계와 별로 차이가 없도다. 단지 민중으로 하여금 알게 할 뿐이요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하지 못하는 즉 생활 가치의 실현에 대해 자유의 인격적 권리를 용인하지 않음은 오히려 더욱 압제적 비문명적이라 하겠도다. 그런데 최후 제3단계의 발달 단계는 매우 최근에 싹튼 정치적 자각으로 아직 구체적 사실이 되지 못한 장래에 속한 발전 단계라 할지니, 소위 '민중은 다만 의(依)하며 지(知)할 뿐 아니라 스스로 행(行)할 것이다'하는 관념이니 이것이 가장 발달한 자치적 내지 인격적 외침이로다. 이 단계의 원리는 모든 생활 가치의 종합적 구체화를 실현함이니 문화 내지 정치 생활에 있는 최후의 단계요, 그 정치적 자각의 관념은 전적으로 민중화된 문화정치의 개인적 자각에 기인한 것이로다. 장래에 속한 이 단계의 실현 완성을 희망하며 노력하는 현대의 일반 민중이 연소(燃燒)적 약진(躍進)적으로 그 발전 가능한 생명을 체험하는 중에 있음은 도저히 간과하지 못할 징후로다.

개인적 자각에 근거한 제3단계의 의식은 정치생활의 민중화로써 최후의 목적을 삼았으니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 현 사회의 개조, 신문화의 건설을 바라고 동경하여 즉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보편화하는 이유를 다만 일시적 우연적 사상(事象)으로 우연과안(雲烟過眼) 시 함을 허용하지 못하겠도다. 일반 민중의 최후의 목적이 정치의 민중화로 말미암아 문화적 가치생활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그 필연적 근본 요소와 열망을 이해

하며 자각하고 이해하는 자에 한해서만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고매한 이상을 정치무대에 펼칠 수 있을 것이로다. 시대의 추세를 따라 객관적으로 구별된 주의사조(主義思潮)의 선택으로 장래의 정치 이상을 구성하고자 하는 일반 민중의 앞에 선 입정자(立政者)가 자기의 편견과 짧은 소견을 반성하되 민중의 여론을 포섭하여 정치적 신념을 갈고 닦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만연하게 사상 구속과 언론의 압박을 강요하여 정치 현상의 표면적 안정을 가장함은 실로 현명한 위정자가 취할 정책이 아니로다. 급류를 거슬러 흐르는 기세로 빠르게 진보하고 발전하는 일반 민중의 정치의식은 도저히 위정자의 권력으로써 능히 억제하지 못할 신비한 위력임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위정자는 결국 자기의 권세를 과신하는 착오의 당연한 귀결로 도리어 정치적 운명의 마지막을 스스로 촉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권모술수(權謀術數)에만 가혹함이 위정자의 능사가 아니요, 수단과 정책에만 교묘함이 위정자의 본래 성질이 아니로다. 영겁(永劫)의 미래에 길게 이어진 인간 세계의 무궁한 생명을 마음의 눈으로 보되 숭고한 이상, 목표의 신구적(愼久的) 불변성을 붙잡아, 현재의 정치적 신념을 건립하는 능력과 기량을 가지지 못하면 다만 권세와 명예의 거짓 형상에 조종되는 일개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진정한 위정자라 자부할 인격자라 하지 못할 것이로다. 이 의미에서 위정자의 인격 구성상 섭취치 아니하지 못할 것은 즉 철학자인 동시에 예술가이자 도덕가이고, 더 나아가 종교가의 체험의 힘일 뿐이로다.



현대 문화인의 심리는 개인의 사회화, 정치의 민중화, 국가의 세계화로써 문화생활의 최고 이상으로 함을 긍정하였나니 이 정신은 문화사적 발전과정의 소산인, 자유인격자의 개인적 자각과 문화적 자각에 유래한바 인류의 필연성이로다. 근대 생활의 근저를 이루는 근본 정신은 시대의 변천을 따라 더욱더 밝혀지며 확충되는 동시에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표준이 모든 현상을 통해 거꾸로 변화되었도다. 이는 국가적 도덕의 협보(狹步)에서 세계적 도덕의 확대로 바뀌는 대세가 그러함이니, 이러한 발전적 과정을 따라 최후에 세계통일의 극한경(極限境)을 만들어 낼 정신을 다만 하나의 공상(空想)으로 웃어넘길 바가 아니로다.

“이 글을 다 쓰고 번(翻)하여 조선인의 정치적 생활 상태를 회고하노니 도원(桃源)의 꿈을 누가 깨우겠는가. 감개무량으로써 오직 넓고 아득한 하늘을 우리러볼 뿐!”

〈출전 : 金義用, 政治的 信仰의 把握 『時事評論』 2권 5호, 1923년 9월 15일〉

13) 김아연(金阿然),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

1.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 함은 우리가 종래로부터 역설하던 바이나, 또 지금 여기 시사평론(時事評論)의 제1호를 창간하는 때에 그 주의, 주장을 글로 밝혀 우리 조선 2천만 동포의 자각을 환기하는 동시에 위정 당국자의 반성을 재촉하고자 하노라.

우리의 생활을 가장 의의 있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유리하게 함은 현재 우리가 가진 역량, 처한 경우를 자각하며, 환경의 현실과 내용을 올바르게 보고 이를 활용하며, 바르게 사용하여 그 허락하는 바의 정당한 권리와 상당한 수확을 구하고 얻는 것에 있으니, 현재 우리 조선 2천만 동포는 과연 그 가진 바의 역량과 그 처한 바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활용하며, 바르게 사용하여 환경이 허락한 권리와 수확을 구하여 얻었는가?

일한합병이 양자 사이의 인문(人文) 고저(高低)와 빈부의 심한 차이와 실력의 여하를 초월하여 그 사이에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는 정신하에 양자의 합의에 의해 결행된 것은 지금 재차 말할 필요가 없는 바라. 조선은 결코 피점령지가 아니요 조선인은 결코 피정복자가 아님은 분명할 뿐 아니라, 종래로 세계 각국이 그 획득, 점령한 새로운 영토에 대하여 실시하던 제도와 다수 학자가 이에 대해 주장하던 학설에 일대 변혁이 발생한 오늘날에 헌법이 우리 조선에 포(布)한 바 되지 아니하다는 미론(迷論)을 주장하는 상식 없는 자는 없을 터이오. 따라서 우리 조선동포가 입헌정치하의 국민 됨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도 결코 없으리рода.

입헌정치하의 국민으로 정치에 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 함은 매우 기괴한 일이나, 현재 우리 조선의 2천만 동포는 사실 이 기괴한 현상 아래에 처해 있으며, 우리 조선의 1만 4천 방리(方哩)의 지역은 사실 이 기괴한 현상 아래에 놓이게 되었도다.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이 내선일시동인(內鮮一視同仁)에 있다 하면, 그 제도, 그 현실이 반드시 일시동인이라야 당연한 바요, 조선 2천만 동포가 입헌정치하의 국민 된 이상에는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이 당연한 일이라. 현재 일본에는 귀족원, 중리원 양원(院) 이하, 현회(縣會), 군회(郡會), 정회(町會), 촌회(村會) 등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이 있어 국가 경륜에 관한 중요 정책과 지방 행정에 대한 계획 방침을 오로지 국민의 여론에 묻고, 국민의 희망에 따르게 하도록 제반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 이래로 보통선거론이 고창(高唱)되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한걸음 나아가려는 오늘날에 조선에서는 다만 지방 행정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평의원회(平議員會), 협의

원회(協議員會)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우리 동포로 하여금 정치에 관하여 참여하는 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으며, 행정에 대하여 아무런 간여하는 기관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입헌정치하의 국민을 전제정치하에 두는 바라. 일시동인의 정신이 무엇에 있으며, 같은 국민으로 그 당연히 행사할 바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니, 우리 동포의 치욕이야 무엇에 비하리오.

대저 생물이니 칭하면 대부분 그 생존을 욕망하나니, 하물며 인간 된 자로 누가 그 생존을 욕망하지 아니하며, 그 향상을 희망하지 아니하며, 그 자유를 요구하지 않으리오. 그러나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인민으로는 도저히 이들 희망과 요구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요. 혹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인민으로 이들 희망과 요구를 이루려 함은 도리어 무리하다 할까 하노라.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인민은 노예 또는 가축이라 칭하여도 가하리니,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인민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장악하는 입법에 대하여 참여하는 권리가 없으며, 무엇보다 긴요한 자기의 생활을 지배하는 행정에 관하여 간여하는 권리가 없으며, 그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필요한 재산을 징수하는 과세에 대하여 참여하는 권리가 없고, 인권, 자유, 재산 등 그 외 하늘이 준 권리와 그 생존을 유지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 전반의 지배와 장악의 권리를 대부분 소수 위정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그 기분에 의해 자기의 화복(禍福)이 달라지며, 그 일거수일투족에 자기의 명암(明暗)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바이로되, 소수 위정자는 반드시 전지전능한 신인(神人)이 아니며, 또 그러함을 요구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니, 이에 따라 보면, 참정권이 없는 자의 생명은 실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으며, 그 생활은 실로 살얼음을 밟음과 같다 할지로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의 생명, 재산, 자유의 모든 권리를 전지전능한 신인이 아닌 소수 위정자에게 바치고, 다만 그 명령 하에 부림당하는 바가 되어 전전긍긍 그 생명을 보존하며 그 생활을 유지하니, 이가 노예가 아니며 가축이 아니면 무엇이냐 칭하리오.

보아라, 오늘날 세계상에 문명국민으로 참정권을 갖지 못한 인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 조선 2천만 동포를 제외하고는 그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렵도다. 우리 조선 2천만 동포는 세계의 3대강국이요, 입헌정치체제 국가인 일본 국가의 일시동인하에 있는 국민이니, 이 인민으로 하여금 세계에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인민, 즉 노예와 가축과 같은 처지에 내버려 두면, 우리 조선동포의 치욕은 고사하고 세계 3대강국의 체면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고. 바라노니 위정 당국자는 이에 마음을 고쳐 반성하고 깨달아 우리의 요구하는바 조선 참정권을 즉시 부여하여 우리 동포로 하여금 국민 된 자각을 확립

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본질을 충실하게 하여 3대강국의 체면을 유지할지이다.

2.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 함에 대하여 위정 당국자는 항상 시기상조라는 한마디로 이를 거절하니, 시기상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여 말함인가? 일한병합에 의하여 결정된 조선통치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함인가? 조선통치의 방침은 병합의 조칙(詔勅)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현 중앙정부와 현 조선 위정 당국자의 누차 언명(言明)에 의하여 확정된 바이니, 아무런 고려할 바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조선재주동포의 이에 대한 요구가 아직 미약하다 함인가? 우리는 수년 이래로 조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온건한 방법으로 이의 요구에 분투, 노력하여 드디어 동지의 참혈(慘血)으로써 이를 표시하였나니,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정치결사의 자유를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직접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도리가 없다 할 것이니, 이는 민(民)을 몰아내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자 함이라 어찌 개탄할 바가 아니리오. 혹은 시기상조라 함은 조선의 부력(富力)과 민지(民智)가 아직 참정권을 부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함을 의미함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논거의 애매모호함은 고사하고, 의회정치의 정신을 무시하며, 우리 동포를 모멸함이 매우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우(智愚)와 빈부의 구별은 그 시대와 그 경우에 의하여 상대적 가치로써 논할 바요, 도저히 보편적, 영구적 절대 가치로써 구별하기 어려운 바라. 즉 10세기 인류의 최고 지식은 그 분량이 반드시 현재 인류의 최고 지식의 분량과 동일하지 못할 것이요, 또 갑(甲) 지방의 부호라 칭하는 자의 재산분량이 을(乙) 지방의 빈민에도 미치지 않는 예가 있으니, 소위 지식과 부력의 정도가 부족하다 함은 이러한 표준에 의해 이를 말함인가? 그 이유의 모호, 불철저함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원래 의회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일반사회의 복리와 향상을 도모하는 최선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해 낸 정치 형체요, 결코 어떤 정도의 부력과 지식이 준비된 결과에 의하여 이를 행하게 된 바는 아니라, 그러므로 의회정치의 원조라 칭하는 영국에서는 이미 앵글로색슨, 노르만 시대로부터 의회정치를 실시하여 연속 오늘날에 이르렀나니, 이에 어떤 시기가 있으며, 어떤 표준이 있으리오. 만일 마치 못하여 그 표준을 구하고자 하면, 영국의 앵글로색슨, 노르만 시대의 민지와 부력으로 이를 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리니, 현재 우리 조선동포로 하여금 그 지식, 그 부력의 분량이 영국의 유목시대의 원시인민보다도 수준이 낮고, 작다 함은 우리 동포의 모욕이 아니리오. 통재라. 우리 조선 2천만 동포도 같은 폐하의 적자(赤子)요, 20세기의 3대

강국의 국민이라. 이를 몰아내어 원시적 야만인의 경우에 버려두니 설령 약자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참는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체면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고. 혹 우리 조선재주 2천만 동포는 그 관계와 성질이 미국의 흑인 노예와 같다 함인가? 이 중에 포함된 35만의 야마토(太和) 민족이 가련하다 할지라도.

혹은 조선에 부력과 민지가 아직 참정권 부여의 정도에 달하지 못하였다 함은 일본의 의회정치의 실시 시대를 표준으로 한즉 조선의 제반 정도가 일본의 1881년 내지 1890년의 제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함인가? 추측컨대 이것이 위정 당국자의 유일한 구실 일 듯하나, 현재 조선의 부력이 결코 일본의 1881년 내지 1890년의 부력에 부족하지 아니함은 통계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오. 또 지식 정도에 관하여는 보통교육의 보급에 다소의 차가 있다 하겠으나, 지식의 깊고 얇음과 유무(有無)의 구별을 반드시 교육을 받은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단정하지 못할 것은 우리 각 개인 간에 대한 일상의 경험이 증명하는 바이니, 다만 보통교육의 보급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 제반 지식에 차이가 있다 함은 편견임을 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有史) 이래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다방면으로 각종 지식을 흡수하는 현대인을 30여 년 전—절대가치로 논하면 적어도 1세기 이상을 경과한—의 과거의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함은 시대를 지나치게 무시함이라 할지라도. 다시 조선의 부력과 민지가 가령 일본의회정치 시행시기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현재의 부력과 민지의 정도가 현재의 일본과 너무 격차가 크다 하니, 이로써 동일한 의회정치에 참여하려 함이 시기상조라 할지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많다. 현재 함께 의회에 참여하는 동북(東北) 지방의 민지와 관서(關西) 지방의 민지가 과연 서로 다르며, 동북지방의 부력과 관서지방의 부력이 과연 서로 다르며, 동북지방의 과세부담액과 관서지방의 과세부담액이 과연 서로 다른가? 현 중앙정부와 현 조선 위정 당국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방하는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는 즉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간주함이니, 조선이 이미 일본의 한 지방인 이상에는 조선의 부력과 민도가 일본의 어떠한 지방보다 가난하고, 수준 낮음이 동북 지방의 부력과 민도가 관서 지방보다 가난하고 수준 낮음에 비하여 그 성질에 어떤 특별히 다른 바가 있는가. 만약 조선에 만에 한하여 특별한 취급과 특수한 제도를 행하고자 한다 하면, 소위 내지연장주의는 일시에 허언(虛言)에 불과함시오. 따라서 조선에 살고 있는 2천만 민중은 영구히 노예의 처지에 만족하거나 다시 새로운 방면으로 활로를 찾아 전진할 밖에는 도리가 없을 뿐이니, 또다시 무엇을 논하리오.

3.

아사(餓死), 학살, 아비지옥(阿鼻地獄)보다도 심한 러시아의 현상은 우리가 이를 상상만 하여도 모골이 송연함을 금할 수 없으니 세계에 빠른 독수리(悍鷲)라는 효명(驍名)으로 널리 알려진 강한 러시아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함은 무엇 때문이뇨. 우리는 이 원인을 궁구(講究)하고 참고하여서 앞날을 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노라. 러시아 인구의 8할을 점한 농민은 혁명 이전에 어떠한 경우에 처한 바 되었던가. 그들은 1861년의 해방령 발표 전까지는 실로 자기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절대로 갖지 못한 동물 이하의 참혹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후 누차의 변혁에 의하여 생활이 다소 향상, 개선된 바가 있었으나, 그들은 의연히 소수 귀족계급에게 부림당하는 노예 생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도다. 국책의 여하는 그들이 간섭할 바가 아니요, 행정의 여하는 그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요, 과세의 많고 적음은 그들이 미리 알 바가 아니요, 세출(歲出)의 내용은 그들이 유의할 바가 아니라. 국방의 안위(安危), 산업의 성쇠(盛衰)에 어떤 이해가 있으며, 어떤 각오가 있으리오. 일거수일투족을 오로지 소수 위정자의 명령에만 따를 뿐이었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사람이니 어찌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욕망하지 않으며, 그들 또한 인간 된 본능을 구비하였나니 어찌 정치에 대한 천부(天賦)의 취미와 기호를 행사하고자 아니하리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처한 바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계속 참고 따랐을 뿐이라. 암암리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인 그 불평불만은 반드시 어떠한 기회, 어떠한 시기에 폭발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한 바이로다. 때는 무르익고 때는 이르렀나니, 전 인류를 저주하고 전 세계를 소진시키고자 하여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호시탐탐(虎視眈眈)하던 유태인은 어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리오. 기름은 화신(火薪)에 가하고 화살은 시위를 벗어나 금옥전(金玉殿) 안은 초열지역(焦熱地獄)³⁵²으로 변하고 가무장(歌舞場) 뒤는 도림지옥(刀林地獄)³⁵³을 이루어 국토의 전부를 태우고자 하며, 인민의 전부를 구덩이에 묻고자 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마지아니하니, 인민의 권리를 무시하여 생긴 재앙이 얼마나 참혹함을 충분히 알겠으며, 인류의 정치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충분히 깨달았으며, 정치에 참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인민의 일시 폭발이 얼마나 위험함을 충분히 알렸으리라. 위정 당국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우리 조선에 살고 있는 2천만 민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을 아까워함은 이 눈앞에 생긴 사실의 증명을 알

352) 팔열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살생, 투도(偷盜), 사음(邪淫), 음주, 망어(妄語) 따위의 죄를 지은 사람이 떨어지는데, 불에 단 철판 위에 눕히고 벌겍게 단 쇠몽둥이로 치거나, 큰 석쇠 위에 얹어서 지지거나, 쇠꼬챙이로 몸을 꿰어 불에 굽는 따위의 형벌을 준다는 지옥이다.

353) 숲이 우거진 것처럼 같이 꽂혀 있는 지옥.

지 못하여 그러함인가, 무시하여 그러함인가? 만약 알지 못하여 그러함이라 하면 여러분의 도리(道理)에 대한 판단이 너무 우둔하다 하겠으며, 만약 무시하여 그러하다 하면 여러분의 국가에 대한 성의가 너무 냉담하다 하겠도다.

남의 실패를 거울삼을 것이 다만 거기에만 있음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에 조선에 일어난 만세 소요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병합 당시부터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여 국가에 대한 자각을 양성하는 동시에 세계의 대세를 추측할 만한 바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로다.

당시 소요의 상태가 때때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지식(識者)의 대부분은 그 무모함과 무지함을 일종의 활계(滑稽) 사건으로 취급하여 그다지 중시하지 않으며, 그다지 우려하지 아니하였던 점도 있으며, 또 위정 당국자도 철저하게 소요의 근본 원인을 강구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은위병행(恩威並行)³⁵⁴이라는 일시적 구급방책으로 이를 미봉하여 안정시킨 듯하고, 불온(不穩)하며 불온한 듯하고, 안정한 오늘날의 현상을 유지하여 오는 바로다.

국가 민생의 운명과 화복을 양 어깨에 스스로 짊어졌다고 자임하는 우국지사와 위정당국자여, 만세소요의 상태가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현상을 드러냄을 보고, 다만 그 국헌(國憲)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대세에 대한 이해가 천박함을 가엽게 생각하고, 웃지 말지어다. 국가를 부수고 생명을 산 채로 파묻는 참극(慘劇)이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관념이 있는 국민에 의하여 생긴 예가古今東西의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있는고. 만세소요가 그만한 범위와 그만한 정도로 그침은 실로 우리의 요행(僥倖)에 의한 바라. 프랑스의 혁명, 러시아의 혁명의 경로와 참극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나니, 어찌 그 쉽게 단속됨에 만족하여 깊이 삼가 살피고 생각하여 헤아리는 바가 없으니 어찌하리오. 일시동인(一視同仁)을 아무리 표방하며, 문화정책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고자 할지라도 조선에 사는 민중으로 하여금 그 하늘이 준 성격 중에서 뿔어져 나오는 정치적 본능, 정치적 기호를 행사하게 하여 국가에 대한 자각과 정치에 관한 이해를 가지게 하지 아니하면, 반도 천지에 덮인 어두운 구름은 여전히 그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오. 따라서 어떤 때에 제2의 불상사를 야기할지도 알지 못하리니,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그 하늘이 준 정치적 본능을 발휘하게 하여 국가에 대한 자각과 정치에 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방법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또 어떠한 다른 법이 있느냐. 정부 당국의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함을 하루라도 지연함은 국가의 현재의 발전을

354)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베풀.

저해하는 좋지 않은 현상을 그만큼 오래 방임하여 두는 것이요, 국가의 장래에 재앙과 난리를 야기할 염려의 근본 원인을 그만큼 더 배양하는 것이라 할지니, 여러분이 조선에 참정권을 실시하게 하는 여부와 지속은 가히 여러분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 유무(有無)와 분량을 표현하는 잣대가 되리라 할지로다.

〈출전 : 金阿然, 朝鮮에 參政權을 附與하라, 『時事評論』 창간호, 1922년 4월 15일〉

II. 동민회(同民會)

1. 목적과 취지

1) 동민회 창립총회 및 발회식의 상황에 관한 건

1924년 4월 25일 고경(高警) 제1382호

조선총독부 경무국

동민회 창립총회 및 발회식의 상황에 관한 건

아시아 민족의 결합, 조선과 일본의 융화 및 사상의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한 동민회는 조선과 일본 관민 700명의 찬조를 얻어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경성공회당에서 창립총회 및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280명이었다. 창립위원장인 호조 도키유키(北條時敬)가 병 때문에 결석하여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가 대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를 좌장으로 추대하여 총회에 들어갔다. 먼저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별지 첨부한 취지와 규약의 의정(議定)에 들어가자, 도쿄에서 참석한 사사키 기요마로(佐々木清麿) 이외 수명으로부터 동 회 취지서의 자구와 규약의 내용에 대해 두세 개 정도의 질문이 있었다. 이후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의 동의에 따라 평의원의 임명을 아리가 미츠토요 좌장에게 일임하였다. 좌장은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한상룡(韓相龍), 이진호(李軫鎬), 신석린(申錫麟)을 전형위원으로 추천하고, 전형의 결과 평의원 52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회계, 감사, 상임이사, 감사고문과 상담역 임원을 추천 보고하였다. 휴식 이후 발회식(發會式)으로 이어져 회장 호조를 대신하여 히로시마고등사범 교수 후지이 다네타로(藤井種太郎)의 축사 낭독이 있었고, 이어서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 경기도지사, 경성부윤, 경성상업회의소 회두(會頭), 이왕직장관 이완용(李完用), 박영효(朴泳孝), 한상룡,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외 십 수통의 축사 낭독 혹은 낭독이 있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출장 중) 외 30여 통의 축전이 낭독된 다음 오후 4시 20분 종료 폐회되었다. 또 오후 7시 50분부터 공회당에서 선전강연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각 강연이 이루어졌다.

- | | |
|----------------------------|-------------------|
| - 개회사 | 사토(佐藤虎次郎) |
| - 주덕(主德) | 후지이 다네타로(藤井種太郎) |
| - 동민회 ¹⁾ 의 근본정신 | 다카시마 헤이사부로(高島平三郎) |
| - 동아민족의 근본정신 | 고쿠부(國府種德) |

청중 가운데 조선인 지식계급은 약 300명이 참가하였다. 오후 11시 20분에 무사히 끝
마쳤다.

발송처

내무대신, 외무대신, 내각서기관장, 칙식사무국장, 경보국장, 경시총감, 각 청부현장관
(廳府縣長官), 각 도지사, 도쿄출장소장, 각 파견원

동민회 임원 명단

회 장 : 호조 도키유키(北條時敬)

부회장 : 남작 이재극(李載克)

고 문 : 공작 도쿠가와 이에사토(德川家達), 자작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 후작
이완용(李完用), 후작 박영효(朴泳孝), 백작 송병준(宋秉峻)²⁾

상담역 : 노나카(野中清), 미야오카 나오키(宮岡直記), 오자키 다카요시(尾崎敬義), 아
키메(秋目左都夫),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유맹(劉猛), 카시이 겐타로(香椎
源太郎), 조진태(趙鎮泰), 토미타(富田儀作), 후리다(谷多喜磨), 아리마 준기
치(有馬純吉),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마츠야마 츠네지로우(松山常次郎)

이 사 : 와타나베(渡邊彌幸),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 신석린(申錫麟), 이병렬(李
炳烈),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다카야마(高山孝行), 방규환(方奎煥),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建太郎),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 오무라 토모노
쥬(大村友之丞), 이범승(李範昇), 유전(劉銓), 조병상(曹秉相), 야마토 요지로
(大和與次郎),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 원덕상(元惠常), 야마기시 토미
오(山岸富雄), 이진호(李軫鎬), 전성욱(全聖旭), 이승현(李升鉉)

회 계 : 와타나베(渡邊彌幸), 원덕상

1) 원문은 동광회로 잘못 기록되어 있음.

2) 원문은 李秉峻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음.

상임이사 :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 신석린,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建太郎)

감 사 : 카와나카(河中山樂三), 한상룡(韓相龍)

평의원 : 와타나베(渡邊彌幸),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 신석린, 이병렬, 타카하시(高橋章之助), (高山孝行), 방규환,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建太郎),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 오무라 토모노조(大村友之丞), 이범승, 유전, 조병상, 야마토 요지로(大和與次郎),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 원덕상, 야마기시 토미오(山岸富雄), 이진호, 전성욱, 이승현, 스키이치(杉一郎平),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김영한(金榮漢), 장도(張燾), 신응희(申應熙), 아라치(足立丈次郎), 아카기(赤木萬次郎),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 장두현(張斗鉉), 박승직(朴承稷), 김한묵(金漢睦), 잇코우 이타로(執行猪太郎), 사세라이 쿠마데즈(佐瀨熊鐵),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민대식(閔大植), 김한규(金漢奎), 유일선(柳一宣), 사와무라료이치(澤村亮一), 호리와치(堀内滿輔), 스미이 타츠오(住井辰男), 쿠도 다케키(工藤武城), 오모이다 다운다(思田銅吉), 유해중(劉海鐘), 채기두(蔡基斗), 고희준(高義駿), 어윤적(魚允迪), 현동익(玄東翊), 코바야시 겐쿠로(小林源六), 박동규(朴東奎), 오태환(吳台煥), 이원석(李元錫), 오무라 모토조(大村百藏), 코스기(小杉謹八)

동민회 창립취지

극동의 천지는 날이 갈수록 다사다난해지고 있다. 일본 국민은 극동의 문화를 촉진하고 세계의 평화에 공헌해야 할 임무를 띠고 협심동력(協心同力)할 필요가 가장 절실하다.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 혹은 최근에 이주해 온 자라 하더라도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야만 한다. 일본 국민은 동아의 선각자이다. 일본국의 성쇠용체(盛衰隆替)는 실로 동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니, 우리의 책임이 또한 막중하지 않겠는가.

제1차 세계대전은 수년 전에 종식되었지만 열강 경쟁의 형세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열강의 경쟁은 재력, 지력, 학력과의 경쟁이 되었다. 재력을 늘리고, 지력을 다하고, 학력을 과시할 최적의 땅으로 열강은 모두 눈을 우리 극동으로 돌리고 있다. 극동의 천지는 이제 열강 경쟁의 중심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일본 국민은 열강 사이에서 어지럽게 정의를 주장하는 그들을 견제하고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

는 데 힘써야 한다. 일본 국민은 이러한 중대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를 완수하여 자기의 실력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조선반도는 실로 극동의 인후(咽喉)이며, 열강과 우리 일본이 접촉하는 관문의 위치에 있다. 이 반도에 거주하는 자는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모두 일본 국민이다. 일본 국민으로서의 광영을 같이하고 또 일본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같이해야 한다. 그런데 안으로는 융화의 열매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걸핏하면 공연히 감정에 치달아 서로 반목질시(反目嫉視)하는 경향이 있다. 밖으로는 과격하며 천박한 사상이 팽배하여 장차 우리의 지순한 동양사조를 좀먹으려 하고 있다. 이에 그 결합을 견고히 하고, 서로 힘써 도우며 근면노력의 풍습과 강건성실의 기상을 양성하여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이다. 하물며 지난번 관동지방에서 일어난 미증유의 큰 재해는 실로 우리 국민의 큰 시련이다. 모든 과거의 미상(迷想)을 일소하고 새로운 의기와 용맹한 노력을 경주하고 개조부흥에 노력해야 하는 오늘날,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이에 느끼는 바가 있어 유력한 여러 군자(君子)의 지도를 얻어 동민회를 창립하고, 아래와 같은 강령에 따라 몸을 바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비록 미약하지만 힘을 본회의 발전에 모두 바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는 한 사람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실로 우리 일본의 경사일 것이다.

강령

- 아시아 민족 결합의 기초로서 조선과 일본 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기한다.
- 실질강건(實質剛健)의 기풍을 양성하고, 경조부박(輕佻浮薄)의 사조를 배척한다.
- 근면역행(勤勉力行)의 풍습을 일으키고, 방종타약(放縱惰弱)의 폐단을 경계한다.

월 일 발기인

동민회 규약

제1. 사업

1. 본회는 다음 강령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1) 아시아 민족 결합의 기초로서 조선과 일본 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기한다.
 - 2) 실질강건의 기풍을 양성하고, 경조부박의 사조를 배척한다.
 - 3) 근면역행의 풍습을 일으키고 방종타약의 폐단을 경계한다.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 1) 강연회, 강습회, 활동사진회 등을 개최할 것.
 - 2) 회보를 발행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를 간행할 것.
 - 3) 강령의 본뜻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조선의 미풍양속을 천양(闡揚)하고 문화 촉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 것.
 - 4) 필요에 따라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것.
 - 5) 각종 수양단체와 연락하여 그 발달을 원조할 것.
 - 6) 기타 평의회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2. 명칭

1. 본회는 동민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사무소는 경성부에 둔다.
3. 필요에 따라 지방에 본회 지부를 설치한다.

제3. 경비

- 본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자, 기본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지의 기부금 및 회비로 지급한다.

제4. 임원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이 가운데 3명은 상무이사), 평의원 25명.
2. 필요에 따라 본회에 총재와 부총재를 추대하거나 고문을 둘 수 있다.
3. 평의원은 본회의 발기인 중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생길 때는 평의회 회의를 거쳐 이를 보충한다.
4.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평의회에서 추천하고,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지부의 임원 및 조직은 평의회 회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6.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5. 회원

1. 본회 회원은 명예회원, 찬조회원, 특별회원, 정회원으로 나눈다.

2. 본회에 공로 있는 자 또는 덕망이 있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시금 100엔 이상 혹은 1년간 월부로 10엔 이상 또는 5개년부로 300엔 이상 기부한 자를 찬조회원으로 한다.
4.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매년 회비 10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를 특별회원, 회비 2엔을 납부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6. 회의

1. 회의는 이사회, 평의원회의로 나눈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회무를 협의한다.
3. 평의원회는 정기(4월) 혹은 임시로 회장이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출전 : 同民會創立總會發會式ノ狀況ニ關スル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一般ノ部』(2), 1924년 4월 25일〉

2) 동민회 창립취지, 강령, 규약

동민회 창립취지

제1차 세계대전은 수년 전에 종식되었지만 열강 경쟁의 형세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열강의 경쟁은 재력, 지력, 학력과의 경쟁이 되었다. 재력을 늘리고, 지력을 다하고, 학력을 과시할 최적의 땅으로 열강은 모두 눈을 우리 극동으로 돌리고 있다. 극동의 천지는 이제 열강 경쟁의 중심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일본 국민은 열강 사이에서 어지럽게 정의를 주장하는 그들을 견제하고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일본 국민은 이러한 중대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를 완수하여 자기의 실력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그런데 안으로는 융화의 열매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걸핏하면 공연히 감정에 치달아 서로 반목질시하는 경향이 있다. 밖으로는 과격하

며 천박한 사상이 팽배하여 장차 우리의 지순한 동양사조(東洋思潮)를 좀먹으려 하고 있다. 이에 그 결합을 견고히 하고, 서로 힘써 도우며 근면노력의 풍습과 강건성실(剛健誠實)의 기상을 양성하여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이다.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이에 느끼는 바가 있어 여러 강호군자(江湖君子)의 찬동을 얻어 동민회를 창립하고, 아래와 같은 강령에 따라 몸을 바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비록 미약하지만 힘을 본회의 발전에 모두 바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는 한 사람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실로 우리 일본의 경사일 것이다.

강령

- 대국(大局)에 고처(高處)하여 조선과 일본 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기한다.
- 실질강건(實質剛健)의 기풍을 양성하고, 경조부박(輕佻浮薄)의 사조를 배척한다.
- 근면역행(勤勉力行)의 풍습을 일으키고, 방종타약(放縱惰弱)의 폐단을 경계한다.

1924년 4월 15일

동민회

동민회 규약

제1. 사업

1. 본회는 다음 강령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1) 아시아 민족 결합의 기초로서 조선과 일본 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기한다.
 - 2) 실질강건의 기풍을 양성하고, 경조부박의 사조를 배척한다.
 - 3) 근면역행의 풍습을 일으키고 방종타약의 폐단을 경계한다.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 1) 강연회, 강습회, 활동사진회 등을 개최할 것.
 - 2) 회보를 발행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를 간행할 것.
 - 3) 강령의 본지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조선의 미풍양속을 천양(闡揚)하고 문화 촉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 것.
 - 4) 필요에 따라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것.

- 5) 각종 수양단체와 연락하여 그 발달을 원조할 것.
- 6) 기타 평의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2. 명칭

1. 본회는 동민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사무소는 경성부 관훈동 198번지에 둔다.
3. 필요에 따라 지방에 본회 지부를 설치한다.

제3. 경비

- 본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자, 기본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지의 기부금 및 회비로 지급한다.

제4. 임원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이 가운데 3명은 상무이사), 감사 2명, 평의원 약간 명.
2. 본회에 총재와 부총재 각 1명을 추대하거나 고문 및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평의원은 본회 창립 발기인 중에서 선출하고, 이후는 총재가 이를 결정한다.
4.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평의회에서 추천하고,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지부의 임원 및 조직은 평의회 회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6.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5. 회원

1. 본회 회원은 명예회원, 찬조회원, 특별회원, 정회원으로 나눈다.
2.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 있는 자 또는 덕망이 있고 평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3. 찬조회원은 일시금 100엔 이상 혹은 1년간 월부로 10엔 이상 또는 5개년부로 300엔 이상을 각출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매년 회비 10엔, 정회원은 회비 2엔을 각출하는 자로 한다.

제6. 회의

1. 회의는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로 나눈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협의한다.
3.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4.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부칙

- 본 규약 개정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출전 : 同民會 創立趣旨, 綱領 規約, 『同民』 제1호〉

3) 동민회의 근본정신

다카시마 헤이사부로(高島平三郎)

I

만장의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생애에서 참으로 기억할 만한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이 곳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부터 믿고 있던 것과 느낀 점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청중 여러분 특히 조선의 우리 경애하는 동포 여러분이 매우 공명(共鳴)하고 동감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노력한 것과 똑같은 의미의 동민회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많은 명사 분들이 여기에 찬동해주셔서 정말 성대한 발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홋카이도(北海道) 아사카와(旭川)로부터 일본을 횡단하여 이러한 성대한 발회식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의 기쁨이자 영광으로서 생애 잊을 수 없는 인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동민회 창립자의 한 사람이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본회의 근본정신을 말씀드리고 이런 신념으로 동민회의 창립에 찬성한 점을 여러분 앞에 피력하고, 앞으로도 이 정신으로 제 남은 인생을 이 정신의 철저한 보급을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II

먼저 제가 동민회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인간은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동물로 결코 고립해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정신의 움직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경우에는 소위 개인정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정 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서로 돕지 않고서는 절대로 적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가정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 타인의 가정에 들어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하숙집일지라도 그건 일종의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 필요 없다고 설령 말하는 사람도 역시 타인의 가정에 들어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생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통상 인간으로서 분리될 수 없고, 또한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정신이라는 설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불리도 좋습니다. 가풍이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정신이 표출되어 가풍이 됩니다. 가족이 모두 좋다고 생각하는 정신이 모인 것이 가풍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를 부정하는 학설은 국가라는 것이 허위라고 합니다. 종래 국가라는 것은 인간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과격한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은혜를 받고 있지 국가의 도움을 조금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허위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오늘날 문화국민이라면 국가를 갖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만약 국가를 갖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아니라 단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한 가는 곳의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거짓일지라도 그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국민정신 즉 국가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에게 그 정신이 없다면 국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의 도덕에서 국민정신, 즉 국민이 국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신의 나라만 좋으면 좋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생각이 고조되었습니다. 만약 자기의 형편만 좋다면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대전 당시의 독일과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세계정신 즉 인류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제27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William Howard Taft)가 ‘인터네이션얼 마인드(International Mind)’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 국민이 자기의 나라를 생각한 것처럼 세계 인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기꺼이 스스로를 버릴지라도 헛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죽더라도 아무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을 충분히 생각하여 개인정신을 발달시킨 다음,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국가사회를 생각하거나 나아가 세계 인류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각 개인이 자각하여 발달해 나가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의 동포 여러분이 개인을 자각하고 문화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저는 대찬성입니다. 원래 개인이 훌륭하지 않다면 훌륭한 가정이나 국가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원래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과 관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은 어떻게 되든 문제없다, 집안, 국가, 세계가 어떻게 되든 좋다, 나 자신만 좋다면 문제없다는 개인주의는 오늘날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III

여기에서 동민회라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단지 세계인으로서 세계정신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 혹은 단지 개인을 주체로 개인정신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가정을 주체로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먼저 동민이란 무엇일까요. 민(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필시 나라를 갖고 임금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君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국민이라고 말합니다만, 사회민(社會民)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와 임금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민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일본인은 우수한 국민이고, 조선인은 열등한 국민이라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일본인은 막히지 않은 국민이고, 조선인은 우수한 민족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중에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말로 눈물겹게 감격했습니다. 저는 조선인으로 실로 훌륭한 일을 행한 자를 보았습니다. 어딘가가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국민……제국의 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특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동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전부터 도쿄에서 동인회를 만들었는데, 동인사(同人社)라는 사숙(塾)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나카무라(中村敬宇) 선생이 개인 글방으로 자제를 교육시킨 곳이었습니다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민회도 뜻을 같이하는 백성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서로 훌륭하게 만들어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과 세계를 주체로 하지 않고 국가를 주체로 동민회가 결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민으로서 서로가 자각하여 박애의 정신을 지니면서 상호화합하여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태 계통 혹은 적화된 과격한 사상으로 국가를 멸망시켜 국경을 없애거나 자연스럽게 공산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세계의 대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레닌은 마르크스를 선생으로 삼아 국가를 부정하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합동하라'를 표방하면서 그 이상은 가까운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그의 주장대로 될 수 없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다만 물질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때때로 삶을 버리더라도 의(義)를 추구하는 고상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유물사관의 물질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국가를 멸망시켜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겠다고 러시아가 국가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류하지 않겠다고 빈번히 국가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또 오늘날 이탈리아는 어떤지 말씀드리면 무솔리니가 등장하여 훌륭한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가 태업이나 파업을 일으켰지만, 무솔리니의 행동에 감격하여 8시간 노동을 9시간으로 늘리고, 나머지 1시간의 임금을 국가에 제공하여 한 시라도 빨리 국채를 변제하라고 한답니다. 그러자 자본가는 노동자만 일하게 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그 시간에 만든 물품을 국가에 제공합니다. 또 귀부인도 이에 감격하여 자기들의 보석과 귀금속류를 제공합니다. 이 사실은 작년 1월 정월에 뉴욕타임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읽고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국가정신이 잘 나타나있다고 감격했습니다. 또 터키에서는 케말 파샤가 나타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널리 흥국운동(興國運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배경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V

여기에서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시혼 간지(西本願寺)의 승려로 오타 가쿠멘(太田覺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그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러일전쟁 이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가 불행하게도 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모두 급히 되돌아오게 되었고 영사 또한 귀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사에게 부탁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부탁한 증명서 내용은 본인은 종교인 증명서로서 군인도 아니고 첩보원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사는 가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로 그의 요청을 위협하다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타는 자신은 일신을 부처님께 바쳤고, 우리 동포가 적의 일본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그들은 친형제가 죽더라도 절해줄 사람도 없고, 병들더라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이 동포들을 구하고 싶으니 꼭 증명서를 발급해달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영사는 어쩔 수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블라디보스톡 역전에서 소위 생이별의 심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타는 홀로 숙연하게 불상을 등에 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타는 조금 가다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자신은 종교인으로 우리 동포를 위로하고자 왔기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러시아는 종교를 중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동포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블라고베센스크까지 갔습니다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의심을 받아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일상적인 수법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을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는 결국 포로로 취급당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국 송환이 결정되어 모스크바에서 독일의 브레멘을 거쳐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포로 중에는 몽고인, 중국인, 네덜란드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타는 당시 적국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일본은 가장 싫은 적국이자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가운데 대우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일본인인 오타였습니다. 몽고인, 네덜란드인, 중국인에 대한 대우는 가혹했습니다. 오타에게는 침대가 제공되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대는커녕 땅바닥에 깔린 마른 지푸라기가 전부였습니다. 음식도 따뜻한 국물을 먼저 가장 적국인 오타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적국인도 아닌 다만 의심을 받던 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오타는 당시 무척 감격했습니다. 국가의 은혜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체험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일개의 오타가 적으로부터 우대받은 것은 일본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국가가 고마웠고 성은에 보답할 길이 없어 눈물을 흐리며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 그가 항구에서 보낸 편지를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수일 전 그를 만나 이야기하며 감개무량했습니다만, 튼튼한 국가를 배경으로 갖지 못하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V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나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민회의 창립에 찬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사상의 선도라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말뿐인 사상의 선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동감을 얻어내고, 한 사람이라도 많이 우리와 같은 생각의 사람을 얻어 사랑하는 국가를 더욱 융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동민회에 대해 지닌 신념입니다.

실로 오늘날 동양, 아니 동양만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일본도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가나 실업가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종교인, 교육자, 학자, 군인은 물론 기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오늘날의 위기를 수습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서로가 동민회의 본령을 신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령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요컨대 도덕관념의 철저에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도덕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일반 국민이 진실로 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동양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융화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직접적인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간접적인 원인의 뿌리는 도덕이 진실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격파는 도덕이나 이상은 필요 없고, 다만 현재 안전하고 유쾌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도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며 도덕을 부정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밖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은 하지 않더라도 도덕을 존중하지 않는 과격파 계통에 속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요 원인은 제가 작년 4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에게 경건한 마음이 없어지고 신이나 부처

님, 우주의 절대자와 같이 자기 이상의 초인적 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인간이 자만심에 빠져 신앙심이 없어진 것이 최대 원인입니다.

VI

오늘은 이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덕 경시의 경향이 나타난 직접적인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이 입을 열거나 펜을 잡으면 이구동음으로 오늘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도덕은 행해지지 않는다, 완전히 웃기는 세상이 되었다고 공격합니다. 일본의 신문을 보십시오. 그 어떤 신문을 읽더라도 세상에는 부도덕한 자들만이 득세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쁜 일과 추태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면 천하가 모두 도덕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는 알 것입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현재 사회는 도덕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물론 이렇게 단상에 서있는 저도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대로입니다만, 그렇다고 세상이 전부 무도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저도 공격해야 할 점은 공격합니다만, 실제로는 결코 현대가 완전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주의라면 난폭하고 무정부주의는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원래부터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무정부주의에도 물론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의자 중에는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거나 친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등 여러 도덕상 칭찬할 점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도덕을 저버리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세상에는 이와 유사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덕을 경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해 연안의 명예를 위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이름을 밝히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소도시의 중학교를 참관하고 교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언제나 학생의 기풍교육 상태와 품성에 대해 질문합니다만, 교장이 대답하기를 이 학교 학생들은 성실하고 수신, 훈육 등도 정말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수신 시간에는 서로 줄거나 주변 친구와 떠드는 등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덕을 중시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의 학생들은 열심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장은 문제는 일단 사회에 나가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은행에 취직한 학생이 오래간만

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얌전한 학생이었지만, 이야기 끝에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에 수신을 가르쳐주셨습니다만 열심히 들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가르친 학생이 2년 정도도 지나지 않아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장은 놀랐습니다. 뭐라 답해야 좋을지 몰랐고 그렇게 변한 것에도 놀랐습니다. 교장은 자신이 믿는 바를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품행이 발라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니는 은행장은 첩이 돌이나 있고 매일 기생(藝妓)과 놀거나 술을 마시는데도 그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품행을 방정히 한다면 평생 주임관(奏任官) 대우에 월급 150엔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웃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회에 나가보면 외면적으로는 도덕이 행해지지 않고 도덕을 행하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도 품행이 나쁘지 않으면 은행의 두취도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려가 깊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불완전한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 완전하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악으로 바라본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도덕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행의 두취가 된 것은 첩을 두거나 예기와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약점이 있더라도 다른 면에서 도덕에 적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이자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작이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품행이 바르지 못한 것이 이토를 그 정도로 위대한 정치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품행이 바르지 못한 것은 나쁩니다. 우리는 이토가 살아계셨을 때, 이토를 단상에서 공격한 적도 있고 글을 통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폐하를 생각하고 조선인에게 동정하여 공평한 정치를 행한 것은 실로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3단 논법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도덕을 무시하려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웅은 술을 좋아한다. 나 또한 술을 좋아한다. 따라서 나는 영웅이다.’ (웃음) 이러한 3단 논법에 사람들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거리도 되지 않는 논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이 품행이 바르지 못해 성공한 것

도 아니고, 이토가 바르지 못해 정치가로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 또한 아닙니다. 일본해 연안 마을 은행장도 품행이 바르고 훌륭한 인격자였다면 중앙에 진출하여 훨씬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철저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덕을 무시하지 않으면 세상에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업에도 실업의 도덕이 있고, 정치에는 정치의 도덕이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도덕입니다. 자유는 훌륭한 도덕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은 그런대로 깨닫기 쉽습니다.

VII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도덕 부정론자나 도덕을 멸시하는 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지식계급이나 소위 새로운 사상을 접한 자에게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상으로 세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사상에서는 졌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상에겐 뭐라 할까 반항적이고 파괴적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러시아처럼 된다면 국민의 사상 또한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성인이라고도 불립니다만, 그 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전하지 못합니다. 크로포트킨, 바쿠닌, 고리키 등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순수문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작품 속에는 항상 파괴적, 반항적, 소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은 길목이기 때문에 분명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문학이 우리나라 청년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큼니다. 그 사상 때문에 우리 국민정신은 여러 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문학과 사상에 물든 사람이 현재의 도덕, 특히 과거 동양에서 행해진 도덕을 멸시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들은 지금 행해지는 도덕은 결코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부친을 위한 도덕이요 고용주를 위한 도덕이요 권력계급을 위한 도덕이지 종속계급을 위한 도덕이 아니며, 종래의 동양 도덕은 권력계급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이런 사고방식에서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철저히 왜 도덕이 사회에 생겼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성현 중에 그 누구라도 도덕을 논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 도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라는 자가 아주 과격한 사회주의에 몰들어 대역사건(大逆事件)³⁾을 기도한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토쿠와 함께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니시카와 고지로(西川光二郎)라는 자가 당시 만약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대역사건에 가담하여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시오(足尾) 사건⁴⁾으로 2년 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매일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것은 주로 종교와 철학관련 서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순서에 따라 읽지 않고 손이 가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회주의 이외의 책을 읽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이외에 천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사회주의 서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철학 등의 책을 읽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도덕의 문제를 논했습니다. 어떤 것을 읽어도 금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도덕만을 논하는지 의문이 들어 옥중에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은 생활의 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면 성인의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 생활에 곤궁하지 않은 자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깊이 탐구하다가 최후에는 가슴을 치며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단지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훌륭한 도덕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성인이 마음을 살피우는 도덕을 주창한 것에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밖에 니시카와가 옥중에서 깨달은 것은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노동자에게 도덕을 주장하고 자동도활(自動道活)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의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巖)과 같이 도덕을 일반인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처럼 물질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불공평한 도덕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도덕일까요.

3) 1910년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고토쿠 슈스이 등 26명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건이다.

4) 메이지 시대에 후루카와(古河) 재벌이 개발한 아시오 동 광산에서 유출된 광독으로 인해 근변의 와타라세가와(渡良瀬川) 하류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 광업 금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원이었다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였다.

지금 이야기한다면 윤리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근거의 일단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문학에 정통한 사람, 예를 들어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와 같은 인물도 그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사사건(情死事件) 이외에는 경력에 부도덕한 점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가 현대의 도덕에 반감을 품었는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의 도덕은 남편에게 걸맞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과거 상위계급에 있던 자가 자기에게 걸맞도록 도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좋고, 남편이 부인 이외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남자의 본능이고 살아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도덕에도 어긋나고 법률에도 저촉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효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래에 충효 등을 주창하면 고리타분한 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현대세계의 문화권에서는 웬지 효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개인주의 나라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버 더 힐’이라는 활동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어린이가 부모를 모시는 장면을 보고서 말괄량이 미국소녀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사진이 상영되면 언제나 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바우덴 바웰이라는 사람이 진실로 인류애를 철저히 하고자 소년단을 만들었습니다. 바우덴 바웰은 일본의 무사도를 모방하여 소년단을 조직했습니다만, 교훈 중에 효행의 중요함을 주장하고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행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문화권의 추세를 살펴 보더라도 효행은 결코 오래된 도덕이 아닙니다. 영원히, 인간에게 부모가 생존하는 이상은 효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부모가 걱정하고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신 이상은 그 생존 여부를 떠나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예전처럼 부모가 장거나 바둑으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딸에게 매춘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효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의 도덕에는 이처럼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꾸어 올바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다하여 모든 도덕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진정한 도덕은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는 하늘

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즉 자연입니다.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에 진정한 도덕이 있습니다. 물론 도덕법과 자연법이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여 한편을 무센(Müssen)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을 졸렌(Solle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렌은 인간이 따라야 할 당위를 말하고, 무센은 필연적으로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법 모두 자연의 법으로 귀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사회를 만들어 생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홀로 존재한다면 도덕의 대부분은 거의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는 약속이란 것이 있어야 하고,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이 곧 도덕입니다. 생물학에 ‘트라이얼 앤 에러(Trial and Error)’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이 무언가 하다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고쳐보려는 것처럼 생물은 진화해나가는 데 실패하더라도 고쳐나갑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진정한 도덕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년의 경험을 하고 결국 자연의 법칙에 적합한 것이 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저는 동양 도덕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의 아니게 동양을 망각하고 서양에 심취하여 서양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유럽 문명이 세계전쟁으로 인해 무너져 뭔가 의지할 곳이 없어 동양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그리스나 라틴 고전을 배우지 않는 학생은 동양 고전을 연구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셀이 주장하는 것도 노자(老子)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노자의 경우는 유럽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만 40여 권이 번역된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동양사상을 동경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신도에 대해 서양인이 저술한 문헌도 수백 개에 이릅니다. 이처럼 동양에는 아주 위대한 사상이 존재합니다. 조선은 일찍이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였고, 우리 일본에는 조선을 통해 이들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철학 가운데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중용(中庸)에는 “성(誠)은 하늘의 도이며, 성(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⁵⁾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자연입니다. 실로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빌려 말한다면 임운법(任運法爾)⁶⁾로 결코 인위를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자연의 도를 인간이 성실히 지켜나가는 곳에 진정한 도덕이 행해집니다. 저는 이를 이전부터 믿어왔습니다만, 지난 대지진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6) 제법(諸法)의 이치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자연스럽고 스스로 그러함을 이룸(法然).

지진과 화재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진 이후 도쿄에 간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도쿄역을 나서면 마천루(摩天樓)의 높은 건물이 보입니다. 그건 우선(郵船)회사 건물로 2층과 3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히비야(日比谷) 방향으로 걸어가면 높은 건물은 아닙니다만 웅장하고 검붉은 색깔의 제국호텔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보면 천연에 따라 세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인간의 정신이 물질로 변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호텔은 미국인이 세웠습니다. 일본의 박사나 학사가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은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술의 참조를 위해 건축을 외국인에게 맡겼습니다. 제국호텔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이 몸소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한편 마루노우치 빌딩은 미국의 프우라라는 사람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프우라 또한 유명한 건축가로 뉴욕에서 신용이 높았습니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미국의 자연을 참조로 웅대한 건물을 쌓아올렸습니다. 뉴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지가 하나의 바위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지반이 튼튼한 도시이기 때문에 50~60층 정도의 건물을 쌓아올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곳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우라는 도쿄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국의 자연에 적합하도록 건축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일본의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자연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에 이전의 작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보강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원래가 일본의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번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트가 설계한 제국호텔은 어떻습니까. 제국호텔은 이전에 불탄 적이 있어 화재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필요해 지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자연의 지층에 도달할 때까지 땅을 파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이런저런 고등수학으로 계산하여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붕괴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했습니다. 모든 건축은 석재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화강암은 튼튼합니다만 불에 약합니다. 500~600℃의 열이 가해지면 녹아내리고 맙니다. 열에 강한 석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우스노미야(宇都宮) 부근에 있는 오야이시(大谷石)라는 것은 불에 달군 듯한 석재로서 불과 물에도 잘 견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호텔 높이도 2층으로 설계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소위 제국호텔이라는 것이 겨우 2층에 불과하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불에 견디면서 붕괴되지 않고 건재한 것은 단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성은 하늘의 도’가 되었고, 오로지 자연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통된 자연의 원칙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에서 건축한다면 조선의 자연에 따라야 합니다. 도덕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곳에서는 그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격사상이 마침 그 나라의 자연에 맞아떨어졌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모두 좋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뉴욕의 건축을 그대로 일본에 적용한 결과 무참히 붕괴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X

그래서 도덕은 결코 각 개인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생활하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사사로운 데에 얽매이지 않으며 거짓을 일삼지 않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 올바르게 해나가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민회의 근본정신은 도덕에 있다고 믿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융화친선은 지금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진실로 도덕을 지킨다면 부당한 차별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합니다. 요컨대 그 귀착점은 도덕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목적론에서 말한다면 복잡해집니다만, 아무튼 도덕의 실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만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안만을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집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나라도 생각한다는 자신과 상대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이상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상을 아주 높여야 합니다.

저 산 넘어 그대 앞에 서있는 구름은, 내가 사는 암자의 연기와 같네.

저 멀리 있는 하얀 구름은 내가 살고 있는 암자의 연기이다. (중략)

동민회의 이상은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서로가 손을 맞잡고 형제처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큰 이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커다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가까운 일상행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박수)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차를 타면 대개 세면대 등에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일을 마치면 빨리 나가라고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 세면대에 들어가려 하자 젊은 신사가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저를 보자 급히 서둘러 얼굴을 씻은 다음 깨끗이 하려고 주변의 쓰레기를 치운 다음 기다렸다고 말한 다음 나갔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말한 다음 얼굴을 씻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신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여행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는 좋더라도 타인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얼굴로 산다는 것은 아주 천박합니다. 세수한 다음 뒷마무리를 잘해두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천해왔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당신을 만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넓혀간다면 일본에서의 수평사(水平社) 문제나 일본과 조선의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인류가 자신의 일을 생각함과 동시에 타인의 일도 생각하는 일이 실현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신사는 하코다테(函館)의 히라노 노부오(平野信男)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의 생활은 아주 유쾌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좋다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는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생각하고 친절히 대해 나가는 것이 동민회의 목적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XI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11월 만주에서 돌아올 때 조선의 한 신사와 기차를 함께 탔습니다. 그 때 제가 관계하던 여자대학 출신자가 부부로 평양역까지 저를 만나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날은 사제지간의 도가 실추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고 언제나 옛날 제자들이 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덕도 없고 학문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제자들이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 부부도 옛날부터 자주 만났기 때문에 역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 사과를 준 것입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먹었고 하나를 조선인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를 바라보던 조선의 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며 저에게 이런저런 물건을 주어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조선과 일본의 융화는 물론 동양 각 민족의 결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작은 사실에서 얻을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러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한병합에 반대하여 러시아에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무슨 일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인은 중국인을 바보 취급하여 러시아인 5명과 중국인 10명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러시아인은 반밖에 되지 않아 정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영국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등의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인 편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싸움은 더욱 커져 또 한편으로 조선인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어 중국인 편에 가세했고, 일본인도 여기에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조선 신사는 무언가 커다란 것을 깨우쳤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인종의 싸움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서로 융화하고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실로 이러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사실 아무런 일도 아니고 마치 어린 아이의 장난과도 같은 사건에서 그 신사는 이를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를 몇 십 년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각 개인이 훌륭해야 하듯이 국가 또한 그렇습니다. 동양 각국은 서로 훌륭한 나라가 되고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사람이 서로 돕고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 말한들 동양은 서양과는 다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풍속과 습관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인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양인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세계를 위해 공헌한다면, 우리도 세계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 신사는 싸움을 통해 느끼고 이후 내선융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훌륭한 생각을 품은 조선인이 우리 동포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저는 조중응(趙重應)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중응은 병합 훨씬 이전 일본에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회에 조중응을 만나 교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당시 아무리 추위도 누추한 옷 한 벌밖에 입을 수 없는 불쌍한 상태가 아주 가여웠습니다. 훌륭한 조선의 귀족이었지만 국사범(國事犯)으로 본국에 있을 수 없게 되어 일본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40엔 봉급으로 나가노(長野)의 사범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중응에게 도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시골이 마음 편하고 할 일도 있다며 맛있는 것은 먹지 못하지만 아무튼 나가노에

오도록 안내하여 1개월 정도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조중응은 마치 친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후 조중응이 출세하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만, 언제나 저에게 소식을 알렸고 가끔씩 물건도 보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것은 조중응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다카시마 헤이사부로 선생에게 여러모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물건을 보내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서였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다가 한번은 주사를 맞고 다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다카시마 헤이사부로 선생에게 물건을 보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자세히 적은 명세서와 물품이 도착하자 정말로 울었습니다. 조선인은 흔히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접촉한 조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일본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인에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접촉한 조선인들은 훌륭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차에서 만난 조선인 신사, 옆에 있는 조선인에게 나눠준 사과 한 개에 마음을 담아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저를 아버지 대하듯 친절을 베푸는 조선인, 또 지금 말씀드린 조중응의 유언처럼 저는 조선 동포를 다른 인종이라든가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XII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과 더불어 서로 제후하여 근본의 정신을 도덕에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은 조선인과 일본인 구별 없이 인간으로서 그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동민회는 제가 믿는 바, 도덕을 근본으로 삼는 사상단체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기 보다 먼저 회원 각자가 스스로 실행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함으로써 각자가 일본의 국민으로서 또한 국가로서도 번영하여 동양의 문화 나아가 세계의 문화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강연을 조용히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상 연단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출전 : 高島平三郎, 同民の根本精神, 『同民』 제1호, 1924년 6월〉

4) 동민회 발기의 동기

지난 1923년 봄, 황민회(皇民會) 간부 미야오카 나오키(宮岡直記) 중장과 다카시마 헤이사부로(高島平三郎) 일행이 조선에 건너와 각지에서 사상 선도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경성공회당에서도 유익한 강연으로 청중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미야오카 나오키 일행은 경성 관민의 주요 유지와 회견하여 조선에 황민회 지부 설치를 희망했지만, 결국 황민회와는 별도로 동민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출전 : 同民會發起の動機 『同民』 제1호, 1924년 6월〉

5) 이병렬(李炳烈), 동민회의 사명

동민회 이사, 이병렬

국내대세(大勢)가 합해지면 크고 강하며, 나누어지면 작고 약한 것은 바꿀 수 없는 당연한 이치라 할지라. 그러므로 국가라든지 그 외 사회라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대소강약(大小強弱)의 기세를 합하고 나눔으로 판단할 바이다.

원래 국가는 민중이 합하여 형성한 것인즉 민중이 다수가 될수록 그 나라가 크며 강하나니, 만약 민족이 서로 분리하여 각자 한쪽을 지키고자 하면 그 기세가 약소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모욕을 벗어나지 못할 것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분명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민중이 많아서 국가가 커도 민심이 분리되어 단합되지 못하면 그 국가의 크고 민중의 많음으로 외부로부터 받는 모욕을 막지 못하나니 최근 중국의 형세를 보라. 4억의 민중이 4억의 마음을 만들어 잘 다스리는 날은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아 바로잡을 바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국가는 통일의 형식을 이루었을지라도 민심이 통일되지 못하면 그 강대함을 자랑할 수 없을지라. 그러므로 토지를 넓게 차지하고 민중을 많이 거느려 진실로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를 내려다보고자 할진대, 먼저 민심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한합병이 국내대세(大勢)에 얽매이지 않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함에

서 나온 것은 재차 말할 것이 없거니와, 요컨대 소(小)를 합하여 크게 하고 약(弱)을 합하여 강하게 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16년을 지낸 사이에 산업과 교육과 그 외 제반 시설이 착착 발전됨에 따라 민심이 점차 안정되고 생활이 향상되어 점차 합병의 열매를 거둬온 기쁨을 만끽하는 현상이다, 내선(內鮮) 양 민족의 현상을 살펴보면 더욱 정신적 결합을 공고히 하여, 인류 생활의 최고 이상을 관철하는 데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 이러함에는 대세에 처하여 내선융화(內鮮融和)의 철저한 실행을 기하며, 씩씩한 기풍을 길러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조를 내던지며,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 바람을 일으켜 제멋대로 행동하며 나약한 폐단을 경계함에 있나니, 이것이 우리 동민회가 동아민족의 단결을 견고히 하여, 인류의 최고 이상으로 매진하는 무기이며, 일단(一段)의 사명이다.

〈출전 : 李炳烈, 同民會ノ使命, 『同民』 제19호, 1926년 2월〉

6)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1939년 6월 3일
경기도지사
조선총독 전(殿)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재단법인 동민회 이사장으로부터 1938년도 사업 상황 보고가 제출되어 별지를 첨부하여 송부함.

1939년 5월 15일
경성부 화천정(和泉町) 6번지

동민회 재단법인

이사장 신석린(申錫麟)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전(殿)

재단법인 보고에 관한 건

동민회 재단법인 보고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민회 재단법인 보고서

1. 법인의 목적인 사업의 상황

당 법인은 민풍개선 및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동민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공급한다. 1938년도의 공급 금액은 1,720원 23전이다. 공급을 받은 동민회의 1938년도 주요 사업의 개요는 별책과 같다.

2. 전년도 처리의 요목

본 법인은 동민회에 교부금을 처리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항이 없다.

3. 전년도의 경비, 수입 지출 금액 및 그 비목

재단법인의 재산 목록은 별지 첨부한 인쇄물 1938년도 결산서와 같다.

4. 본년도 예산

별지 첨부한 인쇄물은 1939년도 동민회 예산서에 기재한 바와 같다.

회보

—1938년도 실행사업의 개요—

동민회

신년축하시, 신석린 (생략)

사업보고

1938년도에 실행한 사업의 개요

1. 강의록 발행(2종류)

자녀교육의 보조 또는 사회 교화의 일조를 위해 매년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강의록을 발행하였다.

(1) 보통학교 5, 6학년 강의록

조선 내에는 민도나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 수업연한 4개년 정도의 보통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 때문에 보통학교 졸업자는 더 나아가 5, 6학년으로 입학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 수업연한 6개년 규정의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까지는 수료했지만, 가정이나 기타 사정 때문에 5, 6학년에 진급할 수 없는 자 또한 적지 않다. 동민회는 이들 아동을 구제하려고 본 강의록을 발행하여 소위 일종의 통신 교수를 실시하였다.

1938년도에 각 지방의 신청에 따라 발송한 책 수는 다음과 같다.

1월	918책	7월	1,065책
2월	528책	8월	580책
3월	1,303책	9월	1,105책
4월	2,139책	10월	859책
5월	1,234책	11월	852책
6월	1,256책	12월	860책
총계	12,699책		

(2) 고등보통과 강의록

본 강의록은 고등보통학교 정도로 한다.

보통학교 6개년 정도의 교육을 수료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본 강의록을 발행하여 통신 교수를 실시하였다.

1938년도에 발송한 책 수는 다음과 같다.

1월	744책	5월	1,093책
2월	430책	6월	793책
3월	815책	7월	466책
4월	907책	8월	452책

9월	695책	11월	404책
10월	674책	12월	410책
총계	7,883책		

(3) 연차별 발송본 부수

발행 이후 연차별 발송 부수는 다음과 같다.

연차	보통과	고등과	계
1926	546	2,040	2,586
1927	5,078	5,629	10,707
1928	6,730	6,846	13,576
1929	6,578	8,829	15,407
1930	4,460	6,216	10,676
1931	3,649	3,723	7,372
1932	4,165	4,959	9,124
1933	6,599	5,621	12,220
1934	8,370	6,569	14,939
1935	7,701	6,179	13,880
1936	11,226	8,378	19,604
1937	11,958	9,579	21,537
1938	7,883	12,699	20,582
합계	74,943	87,267	162,210

* 비고 : 본 강의록은 학제 개정에 따라 1939년도부터 명칭과 내용을 개판(改版)할 예정이다.
즉 소학 5, 6학년용은 지금 새로이 원고를 제작중이다.

2. 총후보국부인 강연회 개최

(1) 취지

시국의 중대성 인식과 황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환기시켜 총후의 적성(赤誠)을 실현(實顯)하고자 한다.

(2) 실시 상황

- 4월 26일 수송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장석원(張錫元)
청강자 57명
- 4월 27일 방산(旁山)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황우찬(黃祐燦)
	청강자	300명
4월 27일	덕수(德壽)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안중철(安鍾哲)
	청강자	250명
4월 27일	미동(溪洞)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한규복(韓圭復)
	청강자	257명
4월 28일	청운(淸雲)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양재창(梁在昶)
	청강자	400명
4월 30일	화광(和光)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청강자	46명
5월 1일	서빙(西氷)고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황우찬(黃祐燦)
	청강자	62명
5월 2일	효창(孝昌)소학교에서 개최	
	강사	남궁영(南宮營)
	청강자	170명
합계	청강자	1,542명

3. 동민부인 하계 대강연회 개최

(1) 취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강조를 목적으로 삼아 조선 가정부인에게 시국의 올바른 인식을 깊이 하고 적절한 대처실행을 촉구한다.

(2) 개최일

경성부 원서정 휘문(徽文)중학교 강당

(3) 회기

1938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4) 강습신청자 수

315명

(5) 강습사항

제1일

황거요배, 묵도

총독각하 유고낭독

본회 취지 및 인사

시국대처 가정부인의 각오와 실천

일동

회장 신석린(申錫麟)

부회장 한규복(韓圭復)

부회장 한규복(韓圭復)

제2일

비상시 부인의 체위 향상

가정방공지식

현대 신가정의 주부(만담)

여의학사 김복인(金福仁)

육군소좌李大永(李大永)

경석우(庚錫祐)

제3일

시국에 처한 부인의 임무

양처현모주의

종이연극 설명

성신여학교장 이숙중(李淑鍾)

총독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총독부 문서과 제작

이상의 일정을 마치고 특히 본회를 위해 임석한 총독 부인의 인사를 한규복 부회장이 통역한 다음 모두 소리 내어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였다. 이어서 강습자 대표의 감사의 답사가 이어지고 176명에게 강습수료 증서를 수여했다.

4. 경제전(經濟戰) 강조강연회 개최

(1) 취지

경제전(經濟戰) 강조주간 실시요항에 의거하여 조선가정부인에게 현하 정세에 대응하여 물자절약과 근검저축을 권장하고자 한다.